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 제주도 조상신 신앙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류진옥

2023년 1월

# 제주도 조상신 신앙 연구

지도교수 허 남 춘

류 진 옥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류진옥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3년 1월

# A Study on the Ancestral God Faith in Jeju Island

Jin-Ok RYU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iterature

2023. 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eon-Seon Kim, Prof. of Literature  
.....  
.....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선행연구 검토 .....	6
1) 1기(1970년대~2000년대 초반) .....	6
2) 2기(2006년~현재) .....	10
3) 주제별 연구 성과 .....	11
3. 연구방법 .....	17
제2장 조상신 신앙의 요체 .....	20
1. 신격 .....	21
1) 조상 .....	21
(1) 혈연 조상 .....	21
(2) 맺은 조상 .....	23
(3) 태운 조상 .....	24
2) 일월과 군웅 .....	26
(1) 일월과 군웅의 개념 .....	26
(2) 젓드리의 일월과 군웅 .....	28
(3) 일월-군웅과 제석 .....	30
3) 제주도의 ‘조상신’ .....	32
2. 본풀이 .....	35
1) 군웅본판 .....	36
(1) 군웅본판의 의례적 기능 .....	36
(2) 군웅본판과 조상신본풀이 .....	40
(3) 덕담과 지두서 .....	43
2) 조상신본풀이 .....	45
(1) ‘혈연 조상’ 조상신본풀이 .....	50

(2) ‘맺은 조상’ 조상신본풀이 .....	54
(3) ‘태운 조상’ 조상신본풀이 .....	58
3)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	59
(1) ‘혈연 조상’ 당신본풀이 .....	66
(2) ‘맺은 조상’ 당신본풀이 .....	66
(3) ‘태운 조상’ 당신본풀이 .....	70
4) 조상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 .....	72
(1) ‘혈연 조상’ 일반신본풀이 .....	73
(2) ‘맺은 조상’ 일반신본풀이 .....	74
(3) ‘태운 조상’ 일반신본풀이 .....	75
3. 조상신본풀이와 의례의 상관성 .....	75
1) ‘혈연 조상’ 유형의 의례 .....	77
2) ‘맺은 조상’ 유형의 의례 .....	78
3) ‘태운 조상’ 유형의 의례 .....	79
<b>제3장 조상신 신앙의 의례 .....</b>	<b>81</b>
1. ‘거느리기’ .....	84
1) 개념 .....	84
2) 사례 : <살려옵서> .....	85
2. ‘놀리기’ .....	86
1) 개념 .....	86
2) 사례 : <놀판> .....	88
3. ‘풀이’-<동이풀이> .....	89
1) 개념 .....	89
2) 사례 : <동이풀이> .....	91
4. ‘맞이’-<일월맞이> .....	92
1) 개념 .....	92
2) 사례 : 석시로 군웅 .....	96

제4장 조상신 신앙의 전승 .....	98
1. 조상신 신앙 전승의 주체 .....	98
1) 신앙민-서귀포시 남원읍 연주(延州) 현씨 집안의 사례 .....	98
2) 심방-이중춘 심방 잡기장 사례 .....	104
2. 조상신 신앙의 전승 양상 .....	106
1) 조상신 신앙의 불교 의례 수용 .....	106
2) 조상신 신앙의 혼종성 .....	108
제5장 결론 .....	111
[참고 문헌] .....	114
[Abstract] .....	119
[부 록] .....	123

## <표 차례>

[표1]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목록 .....	42
[표2] <광청아기씨> 신앙 개요 .....	42
[표3] 조상 유형에 따른 당신본풀이 목록 .....	54

## <사진 차례>

[사진1] 밧칠성터 .....	80
[사진2] 칠성비뎀 .....	80
[사진3] 동이풀이 진설 .....	90
[사진4] 문전제_남원읍 .....	101
[사진5] 안네상_남원읍 .....	101
[사진6] 현씨일월당 .....	102
[사진7] 김녕리 윤씨조상당 신과세제 .....	103
[사진8] 이중춘 심방 잡기장 속표지 .....	105
[사진9] 이중춘 심방 잡기장 속지 .....	105

## 초 록

이 논문은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에 대하여 조상신본풀이[신화]와 의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공동체 신앙인 '당 신앙'과의 연관성을 새로이 정립하는 관점으로 제주도 무속 신앙 내에서 갖는 '조상신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였다. 그간 조상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제한적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 방향의 전환을 위하여 가장 먼저 '조상신 신앙'의 근원적 신앙 관념인 '조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은 한민족 고유의 영혼관을 바탕으로 하며, 여러 지역에서 전승하고 있는 '조상 신앙'으로서의 보편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조상'의 관념이 확장되면서 다면적인 특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조상'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대상 신격을 구성하며,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으로 구분되고 있는 양상을 밝혔다. '조상'에 대한 관념의 세 가지 유형은 조상신본풀이와 조상신 의례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별 유형에 속하는 조상신본풀이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혈연 조상'은 한민족 고유의 조상 의례에서 4대 봉사(奉祀)로 모셔 왔던 집안의 조상이다. '혈연 조상' 유형의 조상신은 본풀이에서 생업 수호신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간 해명하지 못하였던 '군옹본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옹본판'이 '혈연 조상' 유형의 다양한 생업 수호신을 풀어내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밝혔다. 육지부의 다양한 조상 의례를 공유하고 있는 '군옹본판'과 제주도 조상 의례의 동일성에 대한 확인은 육지부의 조상 신앙 관념을 수용하여 형성한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연원을 밝히는데 근거가 되었다.

'맺은 조상'은 '혈연 조상'과의 특별한 내력을 인연으로 하여 '맺어진' 조상이다. 이 유형은 한민족 고유의 영혼관 중 '원혼' 관념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다양한 이유로 원사(冤死)의 영혼이 되면서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가 특별한 내력을 통하여 '자격을 갖추고' 특정 집안의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이 유형은 육지부와 교류 양상을 반영하는 본풀이를 형성하고

있다.

‘태운 조상’은 제주도의 ‘태우다’라는 특별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좌정하는 조상신이다. 자연신앙적 관념을 반영하며, 제주도의 토착성을 드러낸다.

‘조상신 신앙’의 신격을 구분한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의 개념을 당신본풀이 구분에도 적용하면서 조상신 신앙과 당신앙의 새로운 관계성을 밝히는 시도를 꾀하였다. 그간 제주도 무속 신앙에 대한 연구는 ‘조상’에 대한 신앙 관념에 깊이 있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토착적 신앙 관념인 ‘조상’과 ‘조상신’에 대한 개념을 개인 혹은 가정 차원의 신앙 관념으로만 축소시켜 바라보았다. 그 결과 당신앙과 조상신 신앙의 관계성에 대하여 확장적인 관념을 정립하지 못하였던 한계가 존재했다. 당신앙과 당신본풀이에 대한 새로운 유형 구분과 분석은 제주도 무속 신앙 전체를 조망하는 데 있어 새로운 모색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당신본풀이는 ‘신들의 이야기’와 ‘신과 인간의 이야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신과 인간의 조우(遭遇)’를 바탕으로 형성된 당신본풀이는 조상신본풀이를 구분한 세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조상신 신앙과 당신앙이 공통의 신앙 관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앙 갈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조상신 의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조상신 의례는 유동성을 기본 특성으로 한다. 특정 제차에 고착되지 않으며 특정 양식에 고정되지 않는다. 유동적이고 다양한 양식으로 드러나는 조상신 의례를 해석하기 위하여 제주굿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조상신 의례는 ‘거느리기’, ‘놀리기’, ‘풀이’, ‘맞이’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들이 유동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제주굿 의례 곳곳에서 조상신 의례를 구성한다.

‘거느리기’는 말[語]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례 양식이다. ‘놀리기’는 ‘거느리기’에 춤과 노래가 더해지는 의례 양식으로 ‘석살림’이 대표적이다. ‘풀이’는 ‘살기(殺氣)’나 ‘사기(邪氣)’를 풀어내는 의미로 ‘동이풀이’가 특별한 경우로 전승한다. ‘맞이’는 큰굿 제차 중 상위 신격에 대한 단독 의례 양식으로 큰굿 내에 여러 번에 걸쳐 벌이는 제차이다. 조상신에 조응하는 ‘맞이’ 의례는 ‘일월신(日月神)’에 대한 ‘일월맞이’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조상신 의례의 유형적 분석은 처음으로 제기된 만큼 이후 진전된 논의를 통하여 더욱 선명하고 정연해질 수 있

을 것이다.

이 논문은 조상신 신앙과 당 신앙을 동일한 기준으로 새롭게 조망하여 제주도 무속 신앙 전반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심적 논의 외에 조상신 신앙을 둘러싸고 아직 해명되지 못하였던 개별의 개념들을 함께 짚어 보았다. 일월, 군웅, 제석, 군웅본판 등이다. 이와 함께 신앙 전승의 주체에 대한 고민 속에 신앙민과 매인심방의 역할에 대하여 살폈다.

그간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신앙 관념에 대하여 특수성만을 강조하던 연구를 전환하면서 한민족 보편의 ‘조상 신앙’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연원으로 인하여 ‘조상신 신앙’의 특별함이 더욱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별의 갈래로 연구되어 왔던 ‘조상신 신앙’과 ‘당 신앙’이 공통의 ‘조상’ 관념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제주도 무속 신앙 형성에 대한 새로운 단서 하나를 얻었다. 무엇보다도 조상신 의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조상신 신앙에 대하여 ‘신앙’으로서의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일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 제주도, 조상신, 조상신본풀이, 조상신의례, 당신, 당신본풀이, 개인신앙, 가정신앙, 공동체신앙, 영혼관, 혈연조상, 맺은조상, 태운조상, 군웅본판, 생업 수호신, 원혼, 태우다, 자연신앙, 토착성, 거느리기, 놀리기, 풀이, 맞이, 연유담음, 신청의례, 석살림, 동이풀이, 맞이, 큰굿, 일월신, 일월맞이, 일월, 군웅, 제석, 불도일월, 흥보일월, 책불일월, 산신일월, 광청아기씨, 고전적따님아기씨, 원당할망, 칠성, 심방



## 제1장 서론

### 1. 문제제기

이 논문은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에 대하여 다룬다. 다루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방향은 제주도 조상신 신앙 내부로 향한다. 조상신 신앙을 둘러싼 여러 개념, 본풀이, 의례, 신앙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상신 신앙의 전모를 밝히고자 한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조상신 신앙을 매개하여 제주도 무속 신앙 전체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제주도 무속 신앙 안에서 갖는 조상신 신앙의 의미와 함께 제주도 무속 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이 제주도의 고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특별한 신앙 관념이며, 또한 제주도 무속 신앙의 근원점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조상신 신앙에 대하여 그간 이러한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짚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주도 조상신과 관련한 연구는 ‘한 집안 내지 한 씨족(氏族)의 수호신의 내력을 설명한 신화’로 정의된 조상신본풀이에 집중되어 왔다.<sup>1)</sup>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하여 조상신의 개념을 규정하며 본풀이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당신본풀이와의 교섭 양상을 부분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것이 과거 연구의 지향점이었으나 최근 들어 조상신 신앙 양상에 대한 연구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연구 영역의 확장에 앞서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상, 일월, 군웅 등 조상신 신앙을 둘러싸고 밝혀야 할 개념이 있다.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본풀이에 국한된 연구가 이어지면서 조상신 신앙을 ‘신앙’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사항해설」 중 ‘조상본풀이’, 신구문화사, 1980, 895~896쪽.

다.

본고는 제주도 조상신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 양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상신본풀이 중심의 연구에서 조상신 신앙 전반에 대한 연구로 연구 영역에 대한 확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을 위하여 가장 먼저 조상신 신앙의 시작점인 ‘조상’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본원적인 것에서부터 재론하고자 한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는 제주도 무속 신앙의 형성과 전승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관념이 존재한다. 조상신 신앙의 요체가 되는 ‘조상’에 대한 관념이다. 그간 제주도 무속 신앙에 대한 연구는 ‘조상’에 대한 신앙 관념에 깊이 있게 주목하지 않았으며,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 또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양상을 이어왔다. 이는 토착적 신앙 관념인 ‘조상’과 ‘조상신’에 대한 개념을 개인 혹은 가정 차원의 신앙 관념으로만 축소시켜 바라보았던 문제에서 기인할 것이다. 또한 당 신앙과 조상신 신앙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지 못하고, 그 결과 두 신앙 갈래의 관계성에 대한 확장적 관념을 정립하지 못하였던 연구 양상의 한계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간 제주도 무속 신앙에 대한 연구는 일반신본풀이에 대한 영역이 가장 중심을 차지해 왔다. 그 다음으로 당 신앙과 당신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만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가장 토착적인 신앙으로 인식되어 온 당 신앙에 대한 연구가 중심적인 경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연구 성과는 제주도 무속 신앙 연구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속에 그간 제주도 무속 신앙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형성하지 못하여 왔던 조상신 신앙 연구의 문을 열고자 한다. 먼저 조상신 신앙 전반을 두루 고찰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조상신 신앙에 대한 총체적 논의는 현재의 제주도 무속 신앙 연구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향이라 생각하며 제주도 무속 신앙 연구 방향의 새로운 기점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상신 신앙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당 신앙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무속 신앙 전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은 혈연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의미하는 보편적인 ‘조상신앙’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무속 신앙 안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한 ‘조상신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특별함은 신앙 대상의 확장성과 함께 본풀이를 통하여 신앙이 드러나는 신앙 양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점은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갖는 신앙 대상의 확장성이다. 이는 조상 관념의 다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 등 다양한 조상에 대한 관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조상’에 대한 확장적이고 다면적인 관념이 ‘본풀이’라는 서사성을 갖는 신화를 통하여 의례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점이 조상신 신앙을 특별하게 한다.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을 특별한 양상으로 만드는 조상신본풀이는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갖는 신앙 관념의 광역성과 함께 신앙 형성사의 적층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은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왔으며 지금도 새로운 ‘조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조상신 신앙이 대상으로 삼는 다양한 ‘조상신’은 ‘혈연 조상신’이 형성되기 이전인 자연신앙적 관념의 비인격신에서부터 역사적 실재성을 띠는 인격신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은 조상신 신앙이 켜켜이 다른 신앙 관념을 쌓아 올리며 오랜 시간 전승해 오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한다.

자연물에 대한 신앙 서사는 조상신본풀이 중 비인격신의 성격을 띠는 본풀이를 의미한다. 돌이나 솔 등이 이에 속하며, 뱀을 조상신으로 관념하는 다양한 본풀이 또한 이 유형에 속한다. 신앙 관념의 원시성 뿐 아니라, 서사 구성에 있어 설촌 세력, 입도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사 내용의 연관성을 통하여 이러한 유형의 형성 시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실재성을 띠는 서사의 경우 조선 중기에 200여 년간 제주도에 내려졌던 ‘출륙금지령’을 서사적 배경으로 삼는 유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유형은 인격신에 대한 서사이며,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의 서사가 모두 포함된다. 서사 배경을 근거로 하여 형성 시기를 조선 중기 이후로 추정하게 된다. 이는 조상신 신앙 형성의 역사가 갖는 장구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준다. 그 장구한 시간 동안 제주도에 인간이 쌓아 올려온 원문명의 상징은 조상신 신앙과 당 신앙 안에 그대로 녹아 있으며,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 역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상신 신앙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조상신 신앙에만 한정할 수 없다. 당 신앙과의 연관성을 통하지 않고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 대한 고찰은 가능하지 않으며, 두 신앙 갈래의 총체적 파악을 통해서만 제주도 무속 신앙 전반에 대

한 요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 조상신 신앙을 이루는 개념을 정립하고, 본풀이와 의례의 상관성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조상신 신앙은 1974년 장주근에 의하여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up>2)</sup>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상신 신앙과 관련한 개념 정립은 조상신 신앙의 양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한계가 있었다. 조상신 신앙에 대한 이론 정립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앙 양상에 대한 정리를 넘어서는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이 본풀이와 의례 형성에 어떠한 법칙으로 중핵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상신 신앙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중 ‘조상’, ‘일월’, ‘군웅’ 등은 신앙의 요체를 이루는 관념이다. 조상신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조상’, ‘일월’, ‘군웅’ 등의 개념을 정리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조상신’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조상’의 의례적 수용태인 ‘일월’과 ‘군웅’에 대한 논의가 조상신을 이루는 여러 개념들과 관계성을 가지며 논의될 것이다. 제주도 조상신 의례에 등장하는 ‘군웅’은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관념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과 한민족 공통의 ‘조상신앙’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양상이 ‘군웅’의 의미를 추적하는 데에 하나의 지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주도 조상신 신앙 내에 자리한 ‘군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현재까지의 인식으로는 그 둘 사이의 공통적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웅’에 대한 원론적 의미와 함께, 이 개념의 지역적 특수한 변용 관념에 대한 연구는 지역간 연구의 상관성을 확보할 때 가능할 것이다. ‘군웅’과 관련한 각 지역의 무속 의례에 대한 연구가 독자적으로 정리되고 그 후 여러 지역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그 실체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 또한 현재 상황에서 전국에 분포하는 ‘군웅’ 관념을 총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다만 몇 개의 단서를 제공하는 정도로 그치고 이후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풀어갈 다양한 논의는 조상신 의례에서 종합하고자 한다. 조상신 신앙을

2) 장주근, 「부락 및 가정신앙」,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4, 68~86쪽.

이루는 주요한 관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본풀이를 형성하였으며, 본풀이는 다시 어떠한 상관성을 맺으며 의례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상신 신앙 연구 중 조상신 의례에 대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한 영역이다. 이는 제주도 무속 신앙 연구에 있어서도 의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조상신 신앙 의례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정적이거나 정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큰굿 의례 중 조상신과 관련한 제차로 석살림이나 일월맞이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상신 의례의 특성은 이러한 제차에 고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동성이 조상신 의례의 가장 큰 특징이며, 조상신 신앙의 핵심 양상이다. 특정 제차나 형식에 고착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기회에서 가능한 모든 양식을 통하여 조상신에 대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집안의 수호신인 조상신을 즐겁게 하는 것, 이러한 점을 조상신 신앙의 가장 큰 특성으로 삼는다. 고정성과 비고정성이 서로 연관되면서 유동적인 조상신 의례를 구성하고 있다.

제주도 큰굿의 제장은 네 개의 당클로 양식화된 신화성을 구축한다. 그런데 조상신 신앙의 대상신은 네 개의 당클에 속하지 않는다. ‘젯드리’를 살펴보면 조상신으로서의 ‘일월’은 ‘삼천전제석궁과 시왕’, ‘문전·본향과 막을 영신’의 사이에 위치한 위계이다. 그렇지만 제주굿 제장에서 집안 조상신으로서의 ‘일월’은 위쪽의 당클에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제장의 중심에 위치한 탁상에 자리 잡는다. 제장의 중심에 위치하는 탁상은 ‘연양탁상’이라 칭하기도 하고, ‘군웅탁상’이라 칭하기도 한다. 탁상의 가장 가운데 진설되는 제물은 ‘군웅시리’로 부른다. ‘시리’는 떡을 찌는 기구인 시루, 혹은 시루떡의 방언으로, ‘군웅시리’는 일월조상인 군웅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이러한 양상은 ‘군웅-일월’이라 칭하는 ‘조상신’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는 상징성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문의 일월과 군웅의 개념이나 일월맞이 의례 해석 등에서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다. ‘군웅탁상’과 같은 하나 하나의 예를 통하여 조상신 신앙의 전모를 세밀히 정리하는 가운데 제주도 무속 신앙 내에서 갖는 조상신 신앙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것을 매개로 제주도 무속 신앙을 새롭게 조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또한 조상신에 대한 관념과 이러한 의례의 양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형성해 온 ‘신앙’의 근원을 성찰하고자 한다. 수복, 건강, 재력, 출세 등 직접적

이고 실제적인 기원이야말로 인간이 ‘신앙’을 형성하고 전승하는 것의 중핵이 될 것이다. ‘집안의 번성과 자손의 안녕’이라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기원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례를 바치는 것이 조상신 신앙의 핵심 관념이다. 조상신 신앙은 수호신인 ‘조상’을 위하여 자손이 바치는 정성의 결정체인 것이다. 이러한 조상신 신앙의 핵심 관념이야말로 인간이 ‘신앙’을 이루는 가장 순수한 이유가 될 것이다.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은 제주도 내 문명 형성의 흐름을 함께 하며 오랜 시간 형성되어 왔으며 지금도 끊임 없는 생성을 이어가고 있다. 인간 기원 활동의 순수성을 품으며 현재까지 전승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여 온 ‘신앙’과 ‘종교’의 근원을 탐색하는 여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는 1974년 장주근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로 시작되었다. 신앙 양상을 보고하며 시작된 조상신 신앙 연구는 지난 50여 년의 시간 동안 본풀이 채록, 조상신과 신앙 관념 정립, 당 신앙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연구로 성과를 축적해 가고 있다.

그간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조상신 신앙 사례가 보고되고 그에 대한 기본 관념이 정립되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초기와 그후 2006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시기이다. 두 시기의 간극은 거의 한 세대를 거치게 된다. 두 시기의 특성이 분명한 만큼 편의상 1기와 2기로 나누어 각 기간별 연구 경향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짚어보기로 한다.

### 1) 1기(1970년대~2000년대 초반)

초기 연구는 장주근, 진성기, 현용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미 1950년대에 시작된 세 연구자의 제주도 무속 신앙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장주근은 1974년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에 실린 「부락 및 가정신앙」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조상신 신앙 사례를 밝혔다.<sup>3)</sup> 위 자료 중 <個別 家庭信仰>에 대한 내용에서 ‘씨족조상신’이라는 명칭으로 다섯 개의 조상신 신앙 사례를 보고하였다.<sup>4)</sup> 보고된 사례는 옹포리의 진도할망, 신평리의 원당할망, 신평리의 절터왓당, 하천리의 솔할망, 화북동의 부군칠성 등이다.

장주근은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제주도 무속 신앙 내 본풀이 유형을 세 가지 구분으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의 제주도 본풀이의 二大分類를 三大分類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중대한 계기는 얻을 수 있고, … 만일 이상 5편과 같은 것들을 氏祖神本풀이라거나로 분류해서 명명한다면 이 씨조신본풀이 또는 특수신본풀이들은 그들 나름의 한 공통성과 범주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듯하다.”의 내용이다.<sup>5)</sup> 현재 제주도 본풀이의 구분으로 널리 알려진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의 구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 이후 장주근은 몇 편의 논문에서 조상신 신앙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으나,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 이상의 내용을 더 진전시킨 바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상 숭배에 대한 논문에서조차 조상신 신앙에 대한 언급이 없이 현용준의 논문을 인용하며 당신(堂神)의 ‘조령적 성격’에 대한 논의만을 진행한 아쉬움이 있다.<sup>6)</sup>

현용준은 위의 동일한 보고서 내 「무속」에 실린 ‘신령(神靈)의 종류와 직능’에 대

3) 조상신본풀이는 1974년에 처음 보고되지만, 장주근은 그보다 앞선 1958년 『국어국문학』에 ‘송당본풀이’, ‘토산당본풀이’와 그 외 무속 의례 설명을 보고하였다. 그 내용 중 <8.호강굿>의 신청귀 대목에서 일월조상에 대한 설명이 짧게 확인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지는 않다. 이 자료는 당시 구좌면 송당리 매희심방이던 고봉선 심방의 구연본으로 1957년 2월에 녹음된 자료라고 소개되어 있다. 총 8개의 자료가 보고되었다. 또한 도깨비 신앙에 대한 논문에서도 도깨비 신앙의 조상신 신앙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장주근, 「제주도(濟州島) 무가(巫歌)(一)」, 『국어국문학』19, 1958, 165쪽; 장주근, 「제주도무속의 도깨비 신앙에 대하여」, 『국어교육』 18권0호, 1972, 457~471쪽.

4) 장주근, <2.씨족조상신>,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4, 81~84쪽.

5) 장주근, <2.씨족조상신>,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4, 83~84쪽.

6) 장주근, 「무속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8권0호, 1986, 95~107쪽;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신화」, 『제주도연구』 제6권, 1989, 11~19쪽.

한 내용에서 조상신의 관념을 정리하였다.<sup>7)</sup> “<구농>, <군농>, <일월>, <구농 일월>, <조상>, <일월조상> 등이라 불리우는 신으로서, 어떤 씨족이나 씨족의 일부인 한 집안을 수호하여 주는 신이다.”라는 내용이다. 이 정의가 제주도 조상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정리된 개념이다. 현용준은 다시 ‘군웅’과 ‘조상’의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군웅’을 공통의 조상으로, ‘조상’은 개별 집안의 조상으로 정리하였다. 직업 수호신적인 혈연 조상과 ‘혈연 조상이 송양했던’ 비혈연조상으로 조상을 재구분하면서 전체 조상신 신격을 정리하였다. 1980년 발간된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은 제주도 큰굿 의례를 처음으로 밝힌 자료인 만큼, 조상신에 대한 의례도 제차와 말명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당굿·당본풀이> 분류의 하위 항목으로 <조상본풀이>를 소개하였다. 당시까지 채록된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1982년 조상신의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 조령(祖靈)적 성격, 생업(生業) 수호신(守護神)적 성격, 재앙신(災殃神)적 성격으로 정리한 바 있으나 현용준 역시 조상신에 대한 연구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sup>8)</sup> 2005년 발간된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의 세 번째 장으로 조상신신화에 대한 질문을 여섯 개 남겼다. 군웅본풀이의 원형, 조상과 조상신의 개념, 뱀신앙과 조상신 신앙의 관련성 등에 대한 내용이다. 현용준이 제기한 질문 중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이 혈연과 비혈연조상, 인격신과 비인격신을 모두 포괄하여 전승되고 있는 것에 대한 논의는 그간 이루어졌다. 조상과 조상신의 개념, 뱀신앙과 조상신 신앙의 관련성 등에 대한 질문 또한 그 해석에 관한 논의가 이미 여러 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현용준의 질문 중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남은 문제들에 대하여 2장에서 상세히 다루어 보려고 한다. 군웅본풀이의 원형에 대한 부분 또한 2장에서 다룰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성기는 개념 정립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료 소개를 주로 하였다. 1991년도에 발간된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군웅본판>과 <조상본>을 실고 있으며, 2003년 『한국무속학』에 게재한 「초감제 풀이」 채록 자료에서 <일월맞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sup>9)</sup> <일월맞이>에 대한 내용은 3장 의례 항목에서 다룬다.

7) 현용준, 「무속」 <5절 신령의 종류·6절 신령의 직능>,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4, 95~105쪽.

8) 현용준, 「濟州島 巫神의 形成」,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1~26쪽.

9)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이 책은 1968년 프린트판으로 출간되었던 것을

조상신 신앙 연구 초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성과는 자료 축적을 통하여 현재까지 이어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점이다. 현재 조상신본풀이 연구의 대상 자료는 대부분 이 시기에 채록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제주도 무속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신본풀이와 당 신앙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앞에서 짚어 보았듯이 장주근, 현용준, 진성기 모두 조상신에 대한 독자적 연구를 행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 근거에는 당시까지 독자적 연구를 위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상황이 놓여 있다. 장주근은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독자적 연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 차원의 무속 신앙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조상 숭배의 관념을 논의하며 제주도 조상신과 당신이 갖는 조령적 성격과의 연관성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9년 발표된 이수자의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에서 밝힌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무속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관점과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이수자는 이 논문에서 제주 큰굿의 의례와 신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어 제주도 큰굿의 전체적인 위상과 본질적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 조상신 신앙과 관련하여서는 ‘일월신, 군웅신, 조상신’ 등의 말명이 전승되는 양상을 확인하며 조상신 제의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현재 전승하는 조상신 의례의 변천 양상과 관련하여 짚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동일이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중 <제1장 제주도 5.남성영웅서사시>에서 <양이목사본>과 <고대장본>을 분석한 바 있으나, 이는 ‘영웅서사시’로서의 분석에 한정된 면이 있었다. ‘조상신’에 대한 인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이 시기까지 조사되고 채록된 자료를 보면,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에 ‘씨족조상신’으로 실린 5편,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에 ‘조상본풀이’를 갈래로 하는 17편,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제5부 기타> 편에 ‘조상본’ 갈래로 12편이 수록되었다. 이 시기 연구 성과는 이렇듯 다양한 사례 보고와 유형화, 조상신본풀이

재출간한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1991년 인쇄판을 참조하였다.: 진성기, 「초감제 풀이」, 『한국무속학』 6집, 2003, 291~292쪽.

10)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11) 조동일, <제1장 제주도 5.남성영웅서사시>,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93~96쪽. 이 책에서 조동일은 제주도의 서사무가인 본풀이를 ‘당본풀이’와 ‘일반본풀이’로만 구분하고 있다; 48~49쪽.

의 정의와 분류 등 조상신 신앙과 자료를 발견하고 남긴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2기(2006년~현재)

다음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분기점이 된 것은 2006년 김헌선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발간이다.<sup>12)</sup> 처음으로 조상신본풀이를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승격시킨 의의를 갖는다. 김헌선은 이 책에서 조상신본풀이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였고, 제주 무속 의례와의 상관성 속에서 조상신본풀이를 분석하며 이론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양한 굿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도 조상신 의례와 육지 굿거리와의 관련성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상신본풀이 분석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으며, 한국 무속 신앙 전반 속에서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이 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현재까지 숙제로 남아 있다. 육지굿의 조상거리와 일월맞이가 제주도 조상신 의례와 갖는 연관성, 골매키서낭과 제주도 조상신과의 연관성, ‘불도맞이 석살림’의 상대적 강조에 대한 재고, 조상신본풀이 구연의 음악적 방식에 대한 육지와 연관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서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이 시점 이후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조상신본풀이와 신앙 양상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정진희의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이 2009년 발표되면서 개별 연구들이 끊어지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sup>13)</sup> 이러한 개별 연구들은 <양이목사본>, <광청아기본>, <양씨아미본> 등 ‘실패 유형’의 인격신에 대한 본풀이 연구 중심의 흐름을 형성하였다.<sup>14)</sup> 다른 한편으로 조상

12) 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13) 정진희,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32, 2009, 205~228쪽.

14) ‘실패 유형’은 ‘원혼’을 주된 성격으로 삼는 조상신 유형이다. 주로 애정과 무업에 대한 실패로 원혼이 된 영혼을 위무하며 조상신으로 좌정케 하는 것이다. 조상신의 좌정 동인을 기준으로 하여 ‘실패 유형’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성취 유형’이 있다. ‘실패 유형’은 비극적 결말을 특징으로 하는 ‘전설’과 유사성을 갖는다. ‘성취 유형’은 혈연 조상이 중심을 이루며, ‘걸출한 조상’이나 ‘집안의 특별한 직업을 처음 시작한 조상’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34~54쪽; 조현설, 「말하는 영웅-제주 조상본풀이에 나타난 영웅의 죽음과 말을 중심으로」, 『동방문화비교연구』 7, 2017, 115~133쪽; 이경화, 「<양씨아미본풀이>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무속학』 36집, 2018, 311~329쪽; 김혜정,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양씨아미본풀이>의 유형별 특징과 의미」, 어문논집 88, 2020, 49~74쪽; 조현설, 「제주 본풀이에 표현된 집단기억과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고전문학연

신본풀이 <나주기민창본>과 일반신본풀이 <칠성본> 등 뱀신앙을 중심으로 갈래 교섭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5)</sup>

조상신 신앙에 대한 주제별 연구는 개별 본풀이에 대한 문학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다가, 2020년을 전후하여 신앙과 의례에 대한 연구로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앙 전승과 관련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상신 의례 영역으로의 확장은 아주 부분적인 차원으로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상신 의례에 있어 지금까지 주로 제기되었던 점은 석살림 제차의 <군웅본판>과 관련된 것으로 아직 이에 대한 해명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조상신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제기될 주제 중 하나로 보인다.<sup>17)</sup>

학위논문으로는 조상신 관련 의례인 <석살림> 제차 분석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과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다.<sup>18)</sup>

이 시기 연구 성과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뱀신앙, 서사문학적 접근, 입무담(入巫談) 등을 주제로 본풀이 각편에 대한 연구와 주제별 혹은 갈래 교섭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신앙과 의례에 대한 방향으로 조상신 신앙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주제별 연구 성과

그간의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를 유사성이 있는 주제로 모아보면 대략 네 가지

- 
- 구 58, 2020, 265~294쪽; 박주은, 「문학치료학적 가족상담을 위한 <광청아기본풀이> 서사분석과 가능성 탐색」, 구비문학연구 63, 2021, 263~292쪽.
- 15) 허남춘, 「칠성과 부군신앙, 뱀신앙」, 『비교민속학』 58집, 비교민속학회, 2015, 11~46쪽; 강소전,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연구 27, 2016, 195~224쪽; 이현정, 「제주도 나주출자 뱀신앙 연원 일고찰」, 국문학연구 45, 2022, 5~38쪽.
- 16) 류진옥, 「조상신본풀이 전승 양상-〈부대각본〉과 〈양이목사본〉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38집, 2019, 113~149쪽; 이현정, 「〈고전적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52, 2019, 93~137쪽; 강대훈, 「머느리 따라오는 무서운 조상신: 제주 도채비신앙과 혼인기피 관습에서 드러나는 유교이념과 실용논리의 충돌」, 한국문화인류학 54, 2021, 3~42쪽;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 '광청아기씨' 신앙의 형성 배경 고찰」, 한국무속학 42, 2021, 113~146쪽; 이현정, 「조천리 순흥 안씨댁 <나주기민창조상본>의 특수성과 전승 의미」, 한국무속학 44, 2022, 211~242쪽.
- 17)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 2016, 7~41쪽; 조현설, 「군웅신의 배치와 제주 무가의 지정학적 정체성: 박봉춘 본 <군웅본푸리> 재론」, 한국문학연구 68, 2022, 45~73쪽.
- 18) 송정희,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로 구분된다. 뱀신앙과의 연관성, 서사문학으로서의 접근, 입무담(入巫談), 조상신의례와 신앙에 대한 고찰 등이다. 다음에서 각각의 주제별로 발표되었던 연구의 논지를 간단히 짚어본다.

뱀신앙은 제주도 토속적인 신앙으로 제주도 무속 신앙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장주근은 삼성신화를 논하면서 뱀신앙의 갈래로 설명하기도 하였다.<sup>19)</sup> 이러한 상황은 조상신 신앙 연구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제일 먼저 현용준·현승환 공저의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가 있다.<sup>20)</sup> 이 논문은 제주도 뱀신앙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일반신, 당신, 조상신 각각의 본풀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피고, 다른 갈래의 신앙 사이에 공통되는 뱀신앙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조상신으로서의 사신(蛇神)의 성격과 특성, 신앙 양식 등을 다각도로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실제 뱀신앙 양상을 신앙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남긴 것이다. 조상신 신앙이 거의 중단된 현재 시점에서 귀한 자료로 남아 있다. 그런데 본풀이 형성에 대한 진화론적 입장을 뱀신앙 형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도(全島)적인 차원에서 토착적인 뱀신앙이 존재하였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일반신본풀이인 <칠성본풀이>가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 앞서서 형성되었다는 근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칠성본풀이>가 갖는 조상신본풀이 서사 구조와의 유사성이나 후대적 화소의 삽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조상신과 당신의 형성 또한 일방향이 아니며, 상호 영향 속에 상호 변환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허남춘은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에서 북두칠성 신앙과 제주도의 뱀신앙이 갖는 연관 관계, 뱀 신앙이 제주도의 조상신, 당신, 일반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내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점은 <나주기민창조상본> 분석을 통하여 제주도 무속 신앙이 변화한 지점에 대하여 진행한 것과 <칠성본풀이>가 조상신본풀이의 내력을 갖고 일반신본풀이로 전화하는 과정을 밝힌 것이다. 이 논문은 여러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부군신앙과 칠성본풀이, 성읍과 서귀포 등의 관청당이 갖는 특성, 제주도 북서부 지역의 송씨할망당과의 연관성 등이다.

19) 장주근, 「삼성(三姓) 신화(神話) 해석(解釋)의 한 시도(試圖)」, 『국어국문학』 22호, 국어국문학회, 1960, 65~70쪽.

20) 현용준·현승환,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1~74쪽.

칠성과 관련한 연구는 강소전의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으로 이어진다. 이 논문은 칠성신앙이 제주도에서 뱀신앙으로 전환된 것에 주목하였다. 칠성과 관련하여 일반신, 당신, 조상신 등 신앙 갈래를 두루 살폈다. 그 과정에서 조상신의 칠성은 온전히 ‘뱀’ 자체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비인격적인 조상신이 갖는 자연물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

이현정은 조상신본풀이에 집중하여 뱀신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주도 나주출자 뱀신앙 연원 일고찰」에서 <나주기민창조상본>과 <토산으드렛당>의 용신(龍神) 신앙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허남춘의 앞선 연구를 이어 좀더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어우야담(於于野談)』 등 야담류의 이야기를 근거로 <토산으드렛당>의 ‘바둑돌’을 해명한 점이나 신숙주와 연관되어 조상신앙적 특성을 갖는다는 논지를 펼친 점은 연구 방법의 확장뿐 아니라 내용 자체의 흥미로움이 충분하다. 이현정은 <나주기민창조상본>을 자료로 삼아 뱀신앙적 논의와 신앙 전승적 논의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사문학으로서의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심층 분석은 정진희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으로 시작되었다. 개별적인 조상신본풀이 연구로는 가장 이른 발표라 할 수 있다. 정진희는 탐라국과 고려 사이의 수탈 관계와 주권 상실 문제를 서사의 심층 구조로 설정한 기존의 연구를 수용하면서 <양이목사본>을 “단순한 신앙 담론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역사에 대한 본풀이 전승 집단의 인식이 내재되어 역사담론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포착”하였다.<sup>21)</sup> 조현설 또한 동일한 전제 속에 논의를 진행하였다. 조현설은 「말하는 영웅-제주 조상본풀이에 나타난 영웅의 죽음과 말을 중심으로」에서 ‘말하는’ 영웅으로서의 양이목사와 부대각을 제시하며, 조상신본풀이가 갖는 ‘집단 기억’의 기능을 설파하였다.

서사문학으로서의 본풀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정진희와 조현설의 연구는 공히 영웅서사시적 분석을 통하여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다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조상신본풀이가 갖는 기본 원리를 비껴간다. 이는 본풀이의 존재 의미에 대한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양이목사는 조상신 중 혈연 조상에 속한다. 부대각 또한 동일하다. 특별한 점이라면 혈연 조상이면서 남성신일 경우 대개 성취 서사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양이목

21) 정진희,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32, 2009, 219쪽.

사와 부대각은 남성 혈연조상이면서 실패 서사가 적용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양이목사가 광청아기씨와 같은 ‘감응 방식’이 아니고 직접 발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과도 관련이 있다.<sup>22)</sup> 양이목사는 혈연 조상이기 때문에 빙의하여 재앙을 내리는 방식의 좌정 경로를 갖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23)</sup> 양이목사와 부대각은 전형적인 실패한 영웅의 모습을 갖지만, 조상신본풀이 법칙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속 하며 본고는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양상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조현설은 조상신과 관련한 연구에서 ‘집단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제주 본풀이에 표현된 집단기억과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에서는 ‘내부 식민지적 정체성’으로 기억되는 ‘집단 기억’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경우, 논의에 앞서 연구 대상 자료에 대한 선정이 문제로 제기된다. <토산 으드렛당 본풀이>의 경우,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에 게재된 것과 그 이전 자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신격의 혼란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 선정에 대한 입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도 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제주4·3’이나 ‘오키나와전(-戰)’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내부 식민지적 정체성’ 담론과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실천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입무담에 대한 논의이다. <초공본풀이>는 심방들의 조상신본풀이로 논의되기도 한다. 실제 신청괘에서 당주일월을 거느리며 <초공본풀이>를 곡지로 푸는 경우가 있다.<sup>24)</sup> 서사의 요체를 들어서 축약 서사를 구성하는 경우이며, ‘맞이’ 등의 의례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뿐 아니라 심방 입무담이 조상신본풀이를 형성한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분 혈연 조상에 해당하며, 남성일 경우는 성취 유형으로, 여성일 경우는 실패 유형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강소전은 이른 시점에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에 대한 논의를

22) 조현설은 양이목사가 마지막 유언을 고동지에게 남기고 있는 대목에 의문을 제기한다. “형식적으로는 (양이목사가 자손에게 전하는) 계약을 전할 중개인이 고동지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감응방식’으로 명월과 후손들한테 강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주에 <광청아기본풀이>의 ‘망자가 입던 옷에 감응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혈연 조상과 비혈연 조상의 서로 다른 법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현설, 「말하는 영웅-제주 조상본풀이에 나타난 영웅의 죽음과 말을 중심으로」, 『동방문화비교연구』 7, 2017, 120쪽.

23) <광청아기본>에서 광청아기씨는 비혈연 조상의 존재로 자손을 맺을 집안의 후손에 빙의한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해원(解冤)을 이룬 광청아기씨는 ‘혈연조상’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한다. ‘혈연조상’의 지위를 획득하여 안정적인 제향을 받는 것이 ‘빙의와 흥험’의 목적인 것이다.

24) ‘곡지’는 노래나 이야기를 세는 단위를 칭하는 단어이다.

진행하였다.<sup>25)</sup> <고대장본풀이>,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원당할망본풀이>,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 등 6편의 자료를 선정하였는데, 입무담에 있어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를 주목하여 각각의 특성을 정리한 의미가 있다. 이경화는 「<양씨아미본풀이>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의미」에서 입무담 중 하나인 <양씨아미본풀이>를 자료로 삼아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교섭 양상을 정리하였다. ‘양씨아미’의 입무 훈련 공간인 한라산, 죽음의 이유인 개고기-고기 비린내, 사후의 공간으로 등장한 서천꽃밭 등 3개의 화소를 통하여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의 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조상신본풀이에서 당신본풀이로의 확장만이 아니라 당신본풀이의 화소가 조상신본풀이에 수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 둘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을 밝힌 점이 이 연구의 주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김혜정은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양씨아미본풀이>의 유형별 특징과 의미」에서 동일한 명칭의 이본으로 전승하는 <양씨아미본풀이>의 두 유형을 비교 논의하였다. 유교적인 제사에서 조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조상신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상신 의례와 신앙 전승에 대한 연구는 이제야 시작되고 있는 양상이다. 2019년 이후 류진옥, 이현정은 개별 조상신본풀이와 그에 대한 신앙 전승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대각본>, <양이목사본>, <고전적본풀이>, <광청아기본>, <나주기민 창조상본> 등에 대한 내용이다. 본풀이 전승과 실제 전승 집단 사이의 수용과 견인, 그 과정을 통한 본풀이와 신앙 양상의 변모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갖는 의미는 자료에 갇혀 있던 조상신본풀이를 들고 나와 신앙민들 사이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는 조상신 신앙 전승 공간으로 들어가는 연구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대훈의 「며느리 따라오는 무서운 조상신: 제주 도채비신앙과 혼인기피 관습에서 드러나는 유교이념과 실용논리의 충돌」 또한 참여 관찰에 의한 현지 조사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정 지역의 신앙민들과의 집중적인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논지를 펼쳤다. 이 연구는 “비양반 계층의 조상신이었던 도채비 신앙이 자본주의 경제 도입과 더불어 어떻게 추문(醜聞)이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25)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 2010, 147~184쪽.

제기하며 사양산업이 된 직업의 수호신을 고찰하는 새로운 관점이 눈에 띄는 성과이다.

의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의례와 연관된 ‘군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허남춘은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에서 제주도 해양교류로 형성된 용왕신앙에 대한 논의 중 <군웅본풀이>에 드러난 제주와 중국·일본과의 교류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조현설은 최근 「군웅신의 배치와 제주 무가의 지정학적 정체성: 박봉춘 본 <군웅본풀이> 재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그간 조현설 연구의 일관된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도 굿 공동체’의 ‘대타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군웅’은 조상신 신앙의 요해를 위한 주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논의 중 하나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2장에 ‘일월과 군웅’에 대한 항목을 두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조상신 신앙과 관련한 학위 논문은 현재까지 두 편이다. 송정희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조상신과 연관된 의례인 <석살림>을 다룬 연구를 제출하였다. 조상신 의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향 속에 이 논문은 <석살림> 제차가 갖는 여러 의미를 구명하였으며, 실제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 의례에서 각기 다르게 전승하는 <석살림>을 현장 사례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석살림의 음악적 전승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별함을 갖는다. 류진옥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조상신본풀이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를 제출하였다. 그간 채록되어 보고되었던 조상신본풀이를 최대한 포괄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조상신본풀이를 형성하고 있는 신앙 관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조상신 신앙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간략히 종합하면, ‘1. 조상신 신앙 자료 발견, 2. 조상신 개념 정립과 의의 검토, 3. 조상신 신앙을 둘러싼 논의의 정밀화’의 단계를 지나쳐 왔으며, ‘4. 조상신 신앙에 대한 체계적 정립’을 지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어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제로의 영역 확대와 양적 확대가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많은 본풀이 각편들이 존재하고, 신앙과 의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 당 신앙과의 연관성 속에서, 육지 다양한 지역의 ‘조상신앙’ 의례와의 연

관성 속에서 넓고 깊은 연구 성과의 활발한 교류가 제기되고 있다.

### 3. 연구방법

본고는 조상신 신앙의 핵심 개념과 조상신본풀이, 조상신 의례의 상관성을 통하여 조상신 신앙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연원을 밝히는 일, 조상신 신앙을 형성하는 기본적 관념인 ‘조상’, ‘일월’, ‘군웅’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정리하는 일, 현재 조상신 신앙의 양상을 파악하는 일 등을 거치며 조상신 신앙의 근원적 의미에 다가서고자 한다.

문헌 연구로 제주도 조상신 신앙을 형성하는 여러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1927년에 발표된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로부터 2019년 발간된 『제주도 동북 신굿』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다양한 연구서와 현장 자료 채록본 등에서 밝히고 있는 신앙 관념의 연원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sup>26)</sup> 제주굿 내에서 조상신 의례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위치하고 있는지 관련 제차를 통하여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의례와 관련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이후로도 이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조상신본풀이와 조상신 의례에 대한 내용은 문헌 연구과 제주굿 현장 조사 방법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조상신 신앙 관련 채록 자료들이 실제 굿 현장에서 채록된 것보다는 인위적인 조사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록 당시의 조건으로 인하여, 좀더 다양한 본풀이가 채록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의례로서의 본풀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사 내용만을 구하는 한계가 동시에 존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 연구에서 본풀이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에서 의례적 의미를 파악한다면 조상신 신앙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의례의 맥락 속에서 본풀이와 조상신 신앙이 갖는 의미와 변용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

26) 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창비, 2013; 국립무형유산원 편, 『제주도 동북신굿-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2019.

다.

신앙 양상에 대한 연구는 현장 조사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곳이 벌어지는 해당 현장 뿐 아니라 그 현장의 전후까지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를 위하여 심방과 신앙민에 대한 면담 조사를 최대한 시도하였다. 조상신과 관련하여 개인(집안)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 실제 벌이는 여러 의례 양상에 대한 심방과 신앙민의 각기 다른 인식을 파악하는 조사가 현재 전승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당곳과 같은 공동체 차원의 의례는 조상신 신앙 양상을 전체 제주도 무속 신앙 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현장이다. 다양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최대한 신앙 전승 양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본고는 위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조상신 신앙에 대한 본론을 크게 세 장으로 구성한다. 조상신 신앙의 요체에 대한 탐색, 조상신 의례 구조, 조상신 신앙의 전승 양상에 관한 것이다.

2장에서는 조상신 신앙을 이루는 요체인 ‘조상’과 ‘일월’, ‘군웅’의 개념을 한국 무속 신앙 전반의 맥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 전승이 갖는 특별함은 있으나, 한국 무속 신앙과의 상관성을 벗어나는 특별함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조상’에 대한 개념 정리는 본고의 연구 범위를 선명히 하는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특별한 ‘조상’ 관념을 근거로 삼아 조상신 신앙과 당 신앙을 함께 조망하는 시도를 한다. 이는 제주도 무속 신앙의 근원성에 대한 탐색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무속 신앙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상신 의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주곳 의례의 기본 요소를 통하여 의례의 양식적 측면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조상신 신앙 의례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조상신 의례에 대한 고찰뿐 아니라 제주곳 의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조상신 의례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간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동이풀이>나 <일월맞이>에 대해서도 아직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본고가 시작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이후 확장되고 심도 있는 연구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4장에서는 조상신 신앙의 전승 양상에 대하여 정리한다. 현재 조상신 신앙의 전

승 주체인 신앙민과 심방 집단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단골제도와 매인심방 제도가 대부분 해체된 현재적 상황과 전승 양상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한 시기에 끝날 일이 아니며,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한다. 제주도 무속 신앙의 전승이 약화되어가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조상신 신앙 전승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상신 신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한다. 동시에 조상신 신앙을 통하여 제주도 무속 신앙 전반을 새롭게 조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주도 무속 신앙 내 조상신 신앙이 갖는 위치와 의미를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조상신 신앙 연구의 영역을 본풀이 중심에서 확장하여 의례와 신앙 전승의 영역으로 넓혀 가려는 시도이다.

조상신은 오늘도 새로이 탄생한다. 조상신 신앙은 여전히 생성되는 살아 있는 신앙 관념으로 이에 맞는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고가 한국 무속 신앙 연구에서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 관한 연구 방향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쓰여지기를 바란다.

## 제2장 조상신 신앙의 요체

이 장에서는 조상신 신앙의 요체가 되는 신격, 본풀이, 신격과 의례의 상관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조상신 신앙의 신격이 되는 ‘조상’에 대한 관념과 이의 의례적 발현인 ‘일월’과 ‘군웅’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풀이에서는 ‘조상신’의 집단적 개념으로서의 ‘군웅본판’을 먼저 살피고 개별 집안의 조상신 내력인 조상신본풀이를 ‘조상’의 개념과 연관하여 정리해 본다. 또한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각기 구분하면서 이 둘의 상관성을 찾아본다. 이 작업을 통하여 제주도 무속 신앙 안에서 차지하는 조상신본풀이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신 유형에 따른 의례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정리한다. ‘조상’ 관념에 따라 구분되는 의례에 대한 정리가 될 것이다.

조상신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인 ‘조상’은 한민족 고유의 영혼관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만의 특별한 신앙 관념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를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면성이 본풀이와 의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전체 조상신 신앙을 형성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면적이고 확장적인 조상신 신앙 관념과 의례의 상관성이 주요한 논의 내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가 미약하였던 ‘일월’과 ‘군웅’에 대하여서도 논의를 위한 단서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정리를 시도한다. ‘일월’과 ‘군웅’은 제주굿 의례와 육지굿 의례를 함께 연관지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모를 밝히는데 있어 현재적인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제주굿 의례 내에서의 ‘일월’과 ‘군웅’의 의미에 집중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한국 무속 신앙 전반에 걸친 ‘군웅’의 개념은 이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조상신 신앙이 형성한 특별한 신앙 관념은 제주도가 갖는 특별한 세계관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원형적 사고라 할 수 있는 ‘태우다’라는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특정 존재가 갖는 고유한 본성에 대한 이해이다. 또한 존재와 존재 사이의 특별한 ‘관계 맺음’에 대한 철학이기도 하다. 조상신 신앙의 요체를 밝히는 과정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원형적 삶의 요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 1. 신격

### 1) 조상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은 조상을 신격으로 모시는 신앙 관념이다. 보편적으로 조상이란 혈연 조상을 의미하며,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 또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렇지만 혈연 조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관념하는 ‘조상’은 혈연 조상을 넘어서며 다면성을 갖는다. 이러한 확장성과 다면성이 제주도 조상신 신앙을 특별한 신앙 관념으로 존재하게 한다.

본고는 이러한 확장된 ‘조상’에 대한 관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이다. 세 가지의 조상 관념은 조상신 신앙의 대상 신격이 갖는 각기 다른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상 관념은 조상신본풀이의 유형과 조상신 의례의 유형에 모두 적용되어 각각의 갈래를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 (1) 혈연 조상

‘혈연 조상’은 일반적인 조상 관념이다. 부모와 조부모, 증조, 고조에 이르는 4대 봉사(奉祀)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다. 한민족 고유의 조상 의례 습속이 4대 봉사로 전승해 온 근거에는 고유의 영혼관이 존재한다. 사람이 죽으면 혼(魂)·백(魄)·귀(鬼)로 나뉘어 혼은 하늘로 오르고, 백은 땅으로, 귀는 인간의 공간에 함께 거한다. 백은 3년의 제사로 땅에서 흩어지고 귀는 4대 봉사 끝에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3년 상(喪)과 4대 봉사라는 조상 의례의 습속에 영향을 끼쳤다.<sup>27)</sup> ‘혈연

27) 최길성은 한국 조상숭배에 대한 연구를 총괄하면서 “유교 제사 전래 이전에 이미 민간신앙이나 불교신앙에 의해 조상 숭배와 같은 것이 존재했”고, “친자 관계에서 강조되는 유교적 혈연 원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던 재래신앙에서 혈연을 강조해 간 과정이 보이고, 조상에 대한 신앙적 가호(加護)나 탈이 난다는 관념이 유교에 의해 죽은 자에 대한 공적을 기리는 비신앙적인 경향으로 의례화하여” 간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본고는 한민족 고유의 조상 숭배가 토착적으로 전승되어 왔을 것이라는 점과 혈연을 강조하지 않는 자연신앙에서 혈연 신앙으로 변화되어 갔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 1993, 31쪽.

조상'을 특성으로 삼는 조상신은 후손을 두었으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사후에도 조상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살아 생전 집안을 빛냈던 걸출한 조상들이거나 특정한 직업의 시조로 위치하는 조상들이다. 유교 조상 의례의 불천위(不遷位) 중 사불천위(私不遷位)와 유사한 관념으로 볼 수 있다. 유교적인 개념의 4대 봉사는 17세기 이후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시기에 이르러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우리의 풍습을 재편성하여 규례의 규범을 잡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발간된 때는 1844년에 이르러서이다. 이 시기 이전까지는 우리 고유의 조상 의례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 초기 가례는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되었다. 당상관 이상은 4대 봉사, 하급 관원들은 3대 봉사, 일반 평민들은 2대 봉사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사회적인 배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부를 축적한 농민과 상인들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4대 봉사를 추진하면서 신분간 차등 규정이 없어지고 이를 일반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조상 의례에서 일반적으로 조상의 기제사는 4대까지만 모신다. 5대부터는 혼백을 무덤에 묻고 묘사(墓祀)의 대상으로만 모시는데,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에 해당하는 조상의 경우 계속하여 신위를 사당에 모신다. 이 조상은 기제사는 물론 묘사나 시제(時祭)를 지낸다는 점에서 제주도 조상신 의례와 유사점이 있다. 조상신으로 모시는 조상의 경우, 불천위와 유사하게 그 집안의 기제사와 명절제사에서 함께 모시는 의례를 행한다. 조상신 본풀이 중 혈연 조상에 대한 본풀이의 유형이 성취 경향을 띠는 것은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의 개념과 통하며 그 대상이 되는 혈연 조상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혈연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 조상 숭배 관념은 조상과 자손의 관계성을 전제로 형성된다. 여기서의 조상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자(死者)'이며, 이에 대하여 고유한 관계성을 갖는 자손들의 신앙 관념이 조상신 신앙의 가장 근본적 요소로 자리한다.<sup>29)</sup>

28) 조성윤, 「정치와 종교: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사회와역사』 53집, 1998; 현승환, 「제주도의 상례와 무속」, 제9회 한국전통상례문화 전승 및 세계화 방안 국제학술세미나 <도서(島嶼)의 상례(喪禮)>, (사)나라얼연구소, 2022.

29) '조상의 자격'은 최길성이 조상숭배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인용한 Meyer Fortes의 개념이기

## (2) 맺은 조상

‘맺은 조상’은 원혼(冤魂)과의 특별한 내력을 통하여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맺으면서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경우이다. 한민족의 영혼관에서 ‘후손’을 두었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원혼이 되느냐 아니냐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 이유는 제사에 대한 문제이다. 즉 제사를 올리는 ‘후손’이 있어 제사를 받는다면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으나, ‘후손’이 없거나 ‘후손’이 있어도 사정이 있어 정성스런 제사를 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의 백귀가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못하고 계속 인간의 주위를 맴돌기 때문이다. 즉 죽은 조상의 신체는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남아 자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한국 무속 신앙의 핵심적 관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 무속 신앙 또한 이러한 원혼 관념을 강하게 갖고 있다. ‘맺은 조상’의 대부분이 원혼의 내력담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영혼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맺은 조상’은 혈연 조상 중 후손 없이 미혼의 몸으로 죽은 경우도 있고, 혈연 조상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으나 끝내 조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원혼으로 남겨진 경우도 있다. 토착적 영혼관, 원혼 관념, 제사가 중시되는 관념 등으로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에 대하여 위해의 공포감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위해를 수호(守護)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맺은 조상’의 핵심적인 신앙 관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무속 신앙의 관념에서 원혼을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미혼의 죽음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죽음, 즉 여러 이유의 사고에 의한 죽음이 원혼을 형성한다. 제주곳에서는 하나의 제차가 끝날 때마다 이러한 영혼들을 거둬하여 위무(慰撫)한다. 한민족 고유의 영혼관이 제주곳에서 하나의 의례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맺은 조상’이 원혼을 중심으로 내력을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관념에 근거한다.

원혼이 갖는 여러 속성 중 신령성(神靈性)이 있다. 이는 원혼이 갖는 신성(神性)과

---

도 하다. “조상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의례에 의해 조상이 되며 자손이나 문중으로 인간 관계를 복귀한 것이라고 한정시켰다.”;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 1993, 75~76쪽.

신력(神力)을 말한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원혼은 잘 모시면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근거를 갖는다. ‘맺은 조상’은 그 내력담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자손과의 ‘조상 맺음’을 통하여 ‘조상의 자격을 획득’한다. 조상의 자격을 얻어 집안의 기제사와 명절 제사에 제향을 받는 존재가 되면서 원혼은 더 이상 위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고 조상의 번성을 약속하는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 (3) 태운 조상

제주도의 ‘태운 조상’은 제주도에서 두드러지는 ‘조상 맺음’의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좀더 자연적인 신앙 관념이라 할 수 있다. ‘태우다’는 “어떤 특별한 복(福)이나 기능 또는 재주를 타고 나다.”의 의미이다.<sup>30)</sup> ‘타고나다’와 동일한 어원을 갖는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 개념이 좀더 운명적이고 신앙적인 관념으로 작동하고 있다. 조상신 신앙에 있어서 ‘태운 조상’은 분명한 하나의 갈래를 형성한다. 넓은 의미로 보아 혈연 조상이 아닌 경우를 모두 칭할 수도 있으나, 좀더 선명한 의미는 비인격적 존재를 ‘조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애니미즘을 기원으로 하는 자연 신앙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운 조상’의 대상신은 자연물의 정령성(精靈性)과 현몽(現夢)을 통한 인격화(人格化)를 특성으로 갖는다.

<선을리 안판관 제주판관본>으로 보고된 조상신본풀이는 안동땅에서 입도한 삼형제의 내력담이다.<sup>31)</sup> 거처를 정하지 못한 삼형제 앞에 ‘귀는 작박이요, 몸은 머들인 부군’이 나타나고 삼형제 모두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자신에게 들겠는지를 묻는다.<sup>32)</sup> 그런데 ‘부군 조상’이 선택한 자손은 삼남(三男)이다. 다음은 처음으로 ‘부군 조상’과 삼남인 ‘족은 아시’가 조상과 자손으로 연을 맺는 장면이다.

족은 아시는 귀약통 남늘개를 벗으나 좁아서 당초(當初) 들어갈 수가 없더라.  
 상이(上衣) 입성을 벗어내여, “제에게 태운 조상이로고나. 이레 돕서.” 상이(上

30)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846쪽.

31)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51~853쪽.

32) 이 조상신본풀이는 사신에 대한 내력담이다. 현용준은 이 자료에 대한 각주에서 부군을 ‘富君’으로 표기하며, ‘뱀을 일컫는 말’로 설명하였다. ‘부군’은 ‘칠성 신앙’과의 연관성, ‘부군당 신앙’과의 연관성을 두고 아직 분명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재물 번성의 수호신이라는 의미에서 ‘(칠성)부군’으로 칭하고, ‘富君’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衣) 입성 안테레 살살 들어오니, 들를 적에는 식성제(三兄弟)가 여기여차 들렀  
주마는 업어진등 말아진등 한다.<sup>33)</sup>

위 장면에서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다. ‘태운 조상’의 유형에서 일종의 법칙처럼 드러나는 점이다.

가장 먼저, 인연 맺음의 선택권이 ‘조상’에게 있다는 점이다. 조상과 자손의 인연이 맺어질 때 늘 ‘조상’이 ‘자손’을 선택한다. ‘자손’이 ‘조상’을 찾아 나서거나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조상’이 ‘자손’에게 찾아오고, ‘조상’이 ‘자손’을 택한다. 안동에서 입도한 삼형제 모두 갑자기 나타난 ‘부군 조상’에게 자신의 옷이나 ‘약도리’ 같은 것을 내어 놓는다.<sup>34)</sup> 그렇지만 ‘부군 조상’이 선택한 것은 셋째 아들이다.

다음으로, ‘조상’의 선택에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태운 조상’의 선택은 인과 관계를 갖거나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다. 특정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손’은 ‘조상’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태운’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나주기민창조상>, <솔할망>, <선씨일월> 등 비인격신의 특성을 갖는 조상신은 모두 ‘태운 조상’으로 ‘자손’에게 오고, ‘현몽’이라는 방식으로 ‘자손’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이러한 ‘태운 조상’의 관념은 제주도에 특별히 전승하는 관념이다.

제주도에서 이 관념은 반드시 무속 신앙에만 연관되지 않는다. 현재 ‘제주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복신미륵 서자복(西資福)과 관련한 내력담에서도 ‘태운 조상’의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서자복 옆에 있는 ‘동자미륵’에 대한 내력이다. 1970년대 조사 당시 용담동에 살았던 한 신앙민이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였더니 꿈에 한 동자불(童子佛)이 나타나 “나를 위하면 자손을 이어주마.”고 한다. 다음날 받을 갈다 이 동자미륵을 주워 현재 위치에 놓고 정성을 드렸더니 아들을 낳

33)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52쪽. [막내동생은 화약통을 열어 조상을 받아 들이려 하였지만 좁아서 당초 들어갈 수가 없더라. 옷을 벗어 깔고 “저에게 태운 조상이로구나. 이쪽으로 드십시오.” 옷 안으로 살살 들어오니, 들어 올릴 때는 세 형제가 여기여차 힘을 들여 들었지만, 등에 짊어지고 나니 업은 듯 만 듯 한다.]

34) 약도리 : 노끈 따위로 그물같이 맺어 둘레에 고를 대고 긴 끈을 단 물건(제주).[출처: 표준국어대사전]

35) 현용준, 「불교민속」 <3절 信仰과 儀式>,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4, 171~172쪽.

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태운 조상’으로서의 서사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는 불교 연기 설화라 할 수 있다. 제주 불교가 갖는 민간신앙적 속성을 보여주기도 하며, 제주도 내에서 ‘태운 조상’이 갖는 보편적 수용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처럼 ‘태운 조상’은 제주도민에게 ‘원형적’ 사고와도 같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는 ‘태우다’라는 세계관이 신앙 관념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2) 일월과 균웅

### (1) 일월과 균웅의 개념

‘일월’과 ‘균웅’은 제주도 조상신 의례에서 쓰이는 조상신에 대한 호칭이다. ‘일월’, ‘일월조상’, ‘조상’, ‘초상’, ‘녁신몸주 제왕제석’, ‘구농’, ‘균농’, ‘구농’ 등 일정 영역 안에서 여러 다른 호칭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월’과 ‘균웅’에 대한 개념 정립은 지금까지 단독으로 제시된 바는 없으며, 연관된 사항에서 각주로 제시되는 정도이다. ‘일월’은 “한 집안의 수호신을 일컬음. … 조상본풀이 참조.”로 제시되어 있다.<sup>36)</sup> ‘균웅’은 <균웅만판>에 대한 항목 설명 중 용어 정리로 삽입되어 있다. “균웅은 균웅제석, 균웅일월, 일월, 일월제석 등 여러 가지로 부르며 가문(家門) 내지 씨족(氏族)의 수호신(守護神)을 말한다.”이다.<sup>37)</sup> <균웅본판>에 대한 항목 설명에서도 “집안 내지 씨족(氏族)의 수호신(守護神)인 균웅을 즐겁게 놀리는 제차(祭次). 석살림의 제차임.”이라는 내용으로 ‘균웅’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sup>38)</sup> 결국 두 용어는 ‘한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왔다.

이러한 서로 다른 단어의 같은 의미로의 혼용 양상은 심방 사회 뿐 아니라 신앙민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두 용어 모두 제주도 무속 신앙 사회에서 널리 공용되는 단어이며 용례는 분명하지만 단어 자체의 의미와 연원은 아직 분명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일월은 해와 달이라는 의미의 日月이다. 태양은 풍요와 영웅을 상징한다. 또한 매

36)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6쪽, 각주470.

37)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60쪽.

38)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60쪽.

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새로이 살아오는 죽은 자의 영혼으로 관념하여 조상 숭배와 연관된 상징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달은 재생과 성장을 상징한다. 땅과 연관되며 식물의 성장과도 관계하지만 물의 속성 또한 갖고 있는 달은 풍요와 순환, 무한한 생명을 상징한다. 태양 숭배와 달 숭배는 각기 독립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기호로 임혀져 왔다. 그런데 ‘일월’은 그 둘의 합일이다. 태양과 달, 하늘과 땅,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운을 합일하고, 둘 중 하나의 기운에 치우치지 않고 합일되는 의미를 강화하여 조상신앙과 수호신의 직능을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웅은 전쟁터에 나간 장수를 의미하는 軍雄으로 주로 표기된다. 한편으로는 수호신의 무리라는 의미로 群雄을 사용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표기를 사용하지만 모두 영웅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호신의 직능을 의미한다. 한국 여러 지역의 무속 신앙 의례에 청배되는 ‘군웅’ 성격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 의례의 ‘일월’과 ‘군웅’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외부에서 수용된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조상’의 개념이 ‘혈연 조상’을 넘어 확장된 개념으로 ‘조상신 신앙’ 관념을 형성하였듯이, ‘일월’과 ‘군웅’ 또한 원관념을 넘어 확장된 개념으로 제주도 ‘조상신 신앙’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제주도의 군웅을 ‘軍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월’과 ‘군웅’의 개념은 성격의 직능과 연관하여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수호신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두 단어가 단어 자체의 의미로는 서로 연관되지 않는 점이 개념 정립에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용례는 분명하나 개념의 소종래를 밝혀내는 데는 아직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여러 지역의 군웅신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군웅’이 갖는 의미도 선명히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간 ‘군웅’의 개념과 직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sup>39)</sup> 그러나 ‘군웅’이 갖는 다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의 차이를 넘어 포괄적인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의미와 개별 지역, 혹은 개별 의례에서만 수

39) 김형근, 「하나의 이름 다양한 얼굴, 한국무속신 군웅」, 『한국무속학』 제30집, 2015, 161~198쪽; 김형근, 「무가와 연행 맥락 해석을 통한 경기도 도당굿 ‘군웅’의 성격」, 『실천민속학연구』 제27호, 2016, 165~193쪽; 권선경, 「동해안굿에서 군웅의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25권0호, 2014, 217~246쪽; 권선경, 「서울굿에 나타난 군웅의 의미」, 『한국무속학』 제19집, 2009, 109~130쪽; 권선경, 「서울지역 마을굿에 나타난 군웅굿의 유형과 의미」, 『비교민속학』 제51집, 2013, 233~258쪽.

용 가능한 의미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좀더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간 이루어졌던 개별 지역의 군웅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하나로 모아내어 비교 분석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 (2) 젓드리의 일월과 군웅

‘일월’과 ‘군웅’은 제주곳에서 ‘신격’과 ‘하위 제차명’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제주 곳 청신(淸神) 의례 중 ‘일월’은 신격으로 칭해지지만 ‘군웅’은 신격으로 칭해지지 않는다.

제주곳에서 청신(淸神)은 신의 위계를 뜻하는 ‘젓드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청신 의례의 여러 방식 중 신격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청하는 방식으로 ‘젓드리 얹혀 살려움’이 있다. 이 제차에서 보았을 때 ‘일월’은 제주 무속 신앙의 신군(神群) 중에 세 번째 위계에 속한다. ‘1. 천지산해(天地山海), 2. 생노병사(生老病死)와 수복(壽福)’에 이어 ‘3. 멩감으로부터 세경, 일월조상’을 청하는 순서이다. 멩감에서 일월 조상까지의 영역은 생업 혹은 직업 수호의 직능을 담당한다. 그 뒤로는 문전, 본향, 영혼 영신, 가신(家神), 심방 영가들로 이어진다.

‘일월’이 칭해지는 세 번째 신군에 대한 말명을 살펴보면, ‘멩감-세경-일월’을 거치면서 생업과 관련하여 점차 세부적인 단계로 좁혀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명’은 심방이 곳을 하면서 하는 여러 사설을 의미한다. 모든 곳마다, 또한 곳을 말아 하는 심방마다, 혹은 지역에 따라 말명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젓드리’의 위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공통적이기 때문에 본고의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서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에 실린 말명을 예로 제시하며 논지를 전개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멩감’에서는 위에서 구분한 신군 중 첫번째인 ‘천지인’ 혹은 ‘산과 바다와 들’로 나뉘는 대영역, 즉 천지산해(天地山海)의 영역으로 생업군을 구분한다.<sup>40)</sup> ‘세경’에서는 땅을 원천으로 살아가는 농업과 목축에 대한 풍요의 영역으로 구분한다.<sup>41)</sup>

40)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5~66쪽. [초감제 ‘젓드리 얹혀 살려움’ 중 ‘멩감’]: “삼멩감(三冥官), 천왕멩감(天皇冥官) 지왕멩감(地皇冥官) 인왕멩감(人皇冥官) 동(東)의 청멩감(淸冥官) 서(西)의 백(白)멩감 낭귀(南에) 적멩감(赤冥官) 북(北)의 흑멩감(黑冥官) 중앙 황신멩감(中央黃神冥官) 농업농수(農業農事) 짓는 집 제석멩감(帝釋冥官), 산으로 산신멩감(山神冥官), 물로 요왕멩감(龍王冥官), 배(船)로 선왕멩감(船王冥官) 이른오덥 도멩감(七十八都冥官) 살려옵서.”

뒤에 이어오는 ‘일월’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직업군으로 나누어 말명이 이어진다.<sup>42)</sup> ‘일월’의 영역은 가리거나 막히는 곳이 없다. 계층과 생업을 모두 아우르는 수호신으로서의 일월이 인간 삶의 공간 어디에든 존재한다는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의 위계에 따라 신을 청하는 순서는 같으나 신을 청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의례 중 ‘일월’을 청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신청례 중 ‘석시로 군웅 청함’이라는 양식은 석살림의 형식으로 청신 의례를 행한다. ‘젯드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군웅’이 여기에서 제차의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다.

‘군웅’은 ‘맹감-세경-일월’의 신을 청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다가, 맹감으로부터 일월까지의 영역에 속한 모든 신을 ‘거느리며’ 청한 후에 비로소 등장한다.<sup>43)</sup> 이 시점에서 일월조상을 ‘놀리는’ 놀판이 시작되는데, ‘군웅’은 ‘놀판’의 하위 제차로 등장한다. 군웅‘신’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월조상을 놀리는 의례인 <군웅본판(풀이)>에서 군웅본풀이를 풀면서 거느려진다.

<군웅본판>으로 시작되는 이 제차를 ‘군웅놀림’이라 칭하기도 한다. 집안의 수호신인 ‘군웅’을 ‘놀리는’ 의례이다. ‘군웅’은 청신의 대상은 아니지만 ‘일월’과 동일

- 
- 41)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6쪽. [초감제 ‘젯드리 얹혀 살려움’ 중 ‘세경’]; “먹은 이 덕(德) 세경의 덕, 입은 이 덕도 세경의 덕, 행신발신(行身發身)의 이도 세경의 덕, 사름 죽어 엄토감장(掩土勘葬)하기도 세경땅에 엄토감장흡네다. 조부일월 상세경 … 상세경 문왕상 문도령(文昌星文道令) 중세경 조청비, 하세경 정이엇인 정수남이 살려옵서. 천양(天皇) 테우리 지왕테우리 인왕테우리 세경만국(-萬國) 저 테우리, … 양반의 집인 조부일월 상세경, 심방(神房)의 집인 직부일월 상세경 연당 알(下)로 살려옵서.”
- 42)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6~67쪽. [초감제 ‘젯드리 얹혀 살려움’ 중 ‘일월’]; “어느 임신흐옵거든 … 일월(日月)도 제석(帝釋)입고 제석도 일월입네다. 양반(兩班)의 집인 스당일월(祠堂日月), 중인(中人)의 집인 중당일월(中堂日月), 하인(下人)의 집인 하당일월(下堂日月), 배(船) 부리는 집인 선양일월(船王日月), 책(冊) 보는 집 책불일월, 삼승할망칩 불두일월(佛道日月), 심방칩(神房家) 당주일월, 일월제석(日月帝釋) 녁신몸주 제왕제석(帝王帝釋)님도 살려옵서. 강남 가민 천조군웅 일본은 조조군웅 우리나라 대홍대단허여 입던 황저군웅 이간주당 xx 일월(그 집안의 日月祖上)님도 살려옵서. 흑낙을 타며 살려옵서. 금바랑 소리로 살려옵서. … [놀판으로 넘어감.]”
- 43) 곳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거느리다’와 ‘놀리다’가 있다. ‘거느리다’는 말[語]이고, ‘놀리다’는 행동이다. ‘거느리다’는 어떤 대상을 짚어서 말하는 것이다. 즉 굿을 올리는 본주와 본주 가족들의 이름을 올릴 때, 청하는 신명(神名)을 하나하나 거론할 때 등의 경우에 ‘거느린다’고 한다. ‘놀리다’는 신을 대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굿판의 기운을 올리고, 그것을 통하여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이다. 석살림에서 조상신에 대한 본풀이를 풀고 덕담창, 서우제소리, 담불 등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 것, 무구의 하나인 ‘선양기[船王旗]’나 ‘선양드리[긴 천을 말한다. ‘선양드리’는 주로 색깔이 있는 물색천을 사용한다.]’를 ‘추끼면서[긴 천을 잡고 위 아래 혹은 좌우로 흔드는 행위]’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것 등이 전형적으로 신을 ‘놀리는’ 행위이다. 시왕맞이에서 ‘백시리[시루떡]’를 위로 던져 올리거나, 소미끼리 마주 서서 던지고 받고 등을 하며 신나게 놀아나는 ‘나까시리놀림’ 또한 대표적으로 신을 ‘놀리는’ 행위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거느리다’와 ‘놀리다’가 사용되어야 할 때 그 단어를 살려서 쓰는 방식을 택한다.

한 수호신의 직능으로 관념한다. ‘군웅놀림’은 집안의 수호신인 ‘군웅-일월’에 대하여 본풀이와 춤의 형식을 모두 빌어 최대한의 제향(祭享)을 바치는 의식이다. <군웅본판>은 여기서 ‘군웅-일월’에 대한 의례의 근거가 되는 본풀이의 역할이다. 이 제차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명인 ‘위(位)가 돌아갑네다. 자(座)가 돌아갑네다.’는 전형적인 제차 전환의 관용구이다. 즉, 본격적인 조상 의례, ‘조상 놀림’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일월’은 젓드리 위계에 속한 신격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생업의 수호신으로 청신되는 존재이다. ‘군웅’은 청신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아니며, 다양한 생업 수호신인 ‘일월’의 총체적 개념으로서 수호신의 직능을 의미한다. 또한 ‘일월’을 놀리는 의례의 근거가 되는 본풀이인 <군웅본판>으로 드러나면서 ‘일월’에 대한 오신(娛神)의 형식 중 ‘거느리고 풀어내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 (3) 일월-군웅과 제석

‘일월-군웅-제석’은 단어군(單語群)을 형성하면서 그 자체가 ‘수호신격’을 의미하는 하나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 ‘일월’을 청하는 말명은 “일월(日月)도 제석(帝釋)입고 제석도 일월입네다.”로 시작하여 “일월제석(日月帝釋) 녀신몸주 제왕제석(帝王帝釋)님도 살려옵서.”로 마무리된다. 이어지는 <군웅본판>에서 ‘제석’은 군웅의 계보를 풀어낼 때에도 제시된다.

‘제석’은 불교의 천신(天神)이 무속 신앙에 수용된 관념으로, 풍요와 수명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알려져 있다.<sup>44)</sup>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와 동류의 신화인 <제석본풀이>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서울곳에 ‘제석거리’로 이름을 남기고 있다. 제주도에서 ‘제석’은 ‘제석동산’이라는 지명을 통해서만 의례의 자취가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서귀포시 성산읍과 가파도 일대에서 행해왔던 ‘제석제’에 대한 것이다. 매년 조를 파종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마을에서 벌인 ‘풍농제’의 성격을 가진 의례였던 것으로 전한다.<sup>45)</sup> 이 제의의 대상신이 ‘제석신’인 것

44) 제석천(帝釋天)은 불법과 불법에 귀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격으로 불교 세계의 중앙 가장 높은 산인 수미산(須彌山) 정상 도리천(仞利天)에 머무른다고 알려져 있다. ‘제석’은 이러한 수호신격의 직능과 수미산 꼭대기로 상징되는 ‘하늘’에 대한 숭배가 복합되어 무속 신앙으로 수용된 신앙 관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45) 현용준, 『제주도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495~496쪽; 한국민속대백과사전>제주제석제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2784]

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석’은 조상신 의례 형성에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심방은 조상신 의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놀판’을 시작하기 전에 불교승의 복장을 차려 입는다. ‘바랑탐’으로 칭해지는 이 제차는 <석살림> 중 ‘신메움’의 하위 제차이다. 가사(袈裟)와 송낙, 바랑을 손에 들고 불교승의 차림새를 한 심방은 조상신에 대한 정성을 바치는 의미로 ‘수룩침’을 올린다. 이러한 의례 형식은 불도맞이와 일월맞이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바랑탐’ 의례의 근거가 ‘제석’으로부터 나온다. “군웅일월(軍雄日月) 삼제석 앞으로 훈침 질른 굴송낙, 두귀 누른 굴장삼(長衫) 금바랑 옥바랑 일곱자 걸렛배도 타레 들자.”의 말명에서 바랑탐의 대상이 삼제석으로 명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6)</sup> 이러한 의례 형식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앞의 말명에서도 나온 ‘훈 침 질른 굴 송낙, 두 침 질른 바랑 장삼(長衫)’은 불교승의 외형 묘사이다. 이 말명은 <초공본풀이> 등 여러 일반신본풀이에서 관용구로 쓰이고 있다.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이며 설정이다. 이러한 단서를 통하여 토착적 요소이기 보다는 외래적 요소로서 파악할 수 있으며, ‘군웅-제석’과 관련하여 불교 확장 시기와 역사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요소가 된다.

‘제석, 제석신, 제석거리, 제석본풀이, 삼진제석, 일월제석’ 등 ‘제석’이란 단어 하나와 연관된 신격, 의례, 본풀이 등이 다양한 의미와 갈래를 갖고 존재한다. 제주 곳곳에서 ‘일월’과 함께 쓰이는 ‘제석’을 둘러싼 의례와 신격의 연원 또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이어질 듯 하지만 아직 분명히 정리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시적(可視的)인 형상의 동일함이다. 즉 무복(巫服)의 동일함을 말한다.

『巫堂來歷』의 <帝釋巨里>를 보면 “흰 장삼을 입고 흰 고깔을 쓰고 한손에는 부채를 들고 한손에는 방울을 들고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의 무녀 그림이 그려져 있다.<sup>47)</sup> ‘삼진제석’에 대한 설명이 <제석거리>의 주된 내용이다. 육지곳의 <제석거리>와 제주곳의 <불도맞이>-<일월맞이>-<석살림> 등이 의례의 불교적 외

46)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9쪽.

47) 서울대학교 규장각·서대석 해제, 『巫堂來歷』, 민속원, 2005, 10쪽, 33쪽, 51쪽.

형성을 근거로 하여 서로 연관된 의례로 확인된다. 의례가 갖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천신불도’에서 ‘날궁전 돌궁전’으로, 거기에서 다시 ‘일월조상’에 이르는 신격과 의례의 연관성이 파악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곳에서의 일월조상에 대한 의례를 좀더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帝釋巨里> 뿐 아니라 <祖上巨里>·<구릉巨里>와의 연관성에 대하여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도의 현재적 조상신 의례는 고정적이지 않은 양상이지만, 고정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조상 관련 의례와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다. 육지곳과 제주곳이 원형과 변천의 양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3) 제주도의 ‘조상신’

제주도의 ‘조상신’은 다면적인 ‘조상’의 관념을 반영하여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신앙 형성의 적층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혈연과 비혈연, 비인격적인 자연신앙적 요소로부터 인격적인 실재 역사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관념을 한 층씩 쌓아올리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전승해 온 것이다.

‘태운 조상’이라는 관념이 제주도 조상신 신앙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원관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맺은 조상’을 이루는 ‘원혼’ 관념은 현재 전승하는 조상신 신앙의 중심적인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은 전형적인 ‘조상 맺음’을 보여주는 신앙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앙 관념은 한반도의 무속 신앙과 공유되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원혼’은 정상적으로 죽은 영혼보다 원한이 깊기 때문에 ‘해원(解冤)’이 쉽지 않은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은 귀신이 되어서 공중에 떠돌면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의 무속 신앙은 이 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원혼’의 위해를 막고자 조상이 원혼이 되지 않을 길을 택하였다. 자손이 없어 아무런 제향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조상 맺음’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속 신앙 관념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으며, 제주도 조상신 의례 양상과 유사성을 보이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장주근은 한국 민간신앙에서 전승하던 조상 숭배를 다룬 논문

에서 신라 김씨 왕가의 조상신인 김알지신화의 황금귀와 ‘조상단지’의 유사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sup>48)</sup> 여기서 장주근은 ‘안방’이라는 좌정처의 동일함으로 인한 신앙 관념의 혼란을 지적하면서, 가신신앙으로서의 산신(産神)신앙과 구별되는 조상신 신앙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제기하였다. 이 내용에 근거하면 좌정처의 유사성, 명칭-제석오가리, 조상단지, 시준단지 등-의 유사성, 직능의 동일함 등으로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의 근원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영남 골매이 동제신의 조령적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현용준이 당신의 조령성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하였던 성씨(姓氏)가 골매이신에게도 동일하게 붙어 있는 양상을 제시하면서 시조신적 성격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다.

현용준이 당신의 조령성에 대하여 밝혔던 것처럼 제주도 무속 신앙은 광범위한 조상 관념을 바탕으로 전승되어 왔다. 집안 조상에 대한 관념은 마을 공동체 신앙으로 확장된다. 이는 씨족 공동체로 형성되었던 자연마을 설촌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향당굿을 벌일 때 본향신을 청하는 제차인 ‘본향뒸’의 순서가 되면 당굿에 참석한 신앙민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본향신을 맞이하는 마을들이 있다. 본향신을 조상으로서 대우하는 관행 중 하나이다.

신도 인간과 같이 그 좌정처를 찾아서 산중을 헤매다가 맨 먼저 만난 인간에게 길을 묻고 음식을 요구하고는 그 인간을 상단골로 정하곤 한다. 전도적으로 많은 「당신본풀이」가 그 속에서 주민의 성까지 지명하면서 신이 상, 중, 하단골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심방들이 구송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을 「조상」이라 부르고, 민중들은 「자손」이라고 구송하고 있다. 이 성씨까지 규정된 씨족적인 신들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있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씨족 혈연공동체의 신이 마을 자연공동체의 신으로 이행해가고 있는 느낌이며, 지금은 그 양쪽을 겸하고 있는 느낌이다.<sup>49)</sup>

장주근이 당 신앙과 당신에 대한 관념을 ‘조상 맺음’, 혹은 ‘자손 맺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러한 설명은 제주도의 대표적 공동체 신앙인 본향당 신앙의

48) 장주근, 「한국 민간신앙의 조상숭배-유교 제례 이외의 전승자료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15권0호, 1983, 63~80쪽.

49)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6쪽.

기본적인 열개를 ‘조상신앙’으로 이해하게 한다. 정리하면 ‘신과 인간의 조우-상단골의 탄생-조상과 자손으로의 관계 설정’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조상신 신앙 구조와 많이 닮아 있다.

공동체 의례로서 제주도에 전승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것으로 마을마다 행해지는 ‘포제(酬祭)’가 있다. 마을의 ‘토신(土神)’이나 ‘용신(龍神)’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유교식 제례에 맞춰 제관과 제일, 제법을 구성한다. 제주도에는 현재 새해를 시작하는 공동체 의례로서 남성 의례의 의미를 갖는 유교식 포제와 여성 의례의 의미를 갖는 무속식 본향당굿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두 의례에 있어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본향당제가 ‘조상신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면, 포제에서는 그러한 관념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포제를 하기 앞서 유교식의 ‘본향당제’를 치르는 마을이 많다. 이는 마을의 큰 행사를 앞두고 마을의 조상인 ‘본향당신’에게 먼저 가서 고(告)하는 의미를 갖는다. ‘본향당굿’이 마을의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였던 전승이 남아 있는 흔적이기도 하지만, 좀더 근원적으로는 ‘조상’으로서의 ‘본향당신’에 대한 관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양상이다.

집안의 수호신으로 정의되고 있는 제주도 조상신 신앙은 비단 한 집안의 신앙으로 국한되는 협의의 개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 여러 신앙 갈래에 공유되고 있는 뿌리 깊은 ‘조상신앙’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 ‘조상신’이 갖는 다층성과 유동성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당 신앙이나 다른 종교와의 교섭 양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앙 전승에 있어서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갖는 확장성의 구조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상신 신앙은 끊임 없이 새로운 조상신을 탄생시킨다. 이는 조상 관념의 다면성에서 근원한다. 일반신과 당신은 신의 이름, 내력, 직능을 새로이 만들어낼 수 없는 고착적인 특성을 갖는다. 개별 신마다 그 신의 위계에 걸맞는 ‘젓드리’와 ‘굿드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별 신은 그 내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신앙 양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대한의 전승 과제가 된다. 최대한의 과제를 지켜내지 못하면 신앙은 축소되고 사멸되는 길을 가야 하는 본성을 갖는다. 그러나 조상신 신앙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조상신 신앙은 신앙민의 내력에 따라 스스로 새로움을 탄생시키는 구조로 형성되어 왔다. 특정 신앙민의

삶의 내력이 조상신 신앙 내력에 그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조상신과 새로운 신앙 내력을 형성한다. 전승 양상의 차원에서 볼 때 조상신 신앙은 제주도 무속 신앙의 심지와 같은 역할로 자리잡고 있다.

## 2. 본풀이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조상신본풀이를 개별 집안의 본풀이에 국한시켜 정리해 왔던 틀을 확장하고자 한다. 별개로 논의 되어 왔던 <군웅본판>과 당신본풀이를 조상신본풀이와 함께 논의하였을 때 조상신 신앙의 종합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풀이는 신앙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웅본판>이나 당신본풀이와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 없이 별개로 이루어졌던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서는 조상신 신앙의 전모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인하여 그간 조상신 신앙이 협소한 의미로 자리잡아 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상신 신앙의 본풀이로 정리되어 왔던 것은 개별 집안의 각기 다른 내력담이었다. 이에 비하여 <군웅본판>은 조상신 신앙의 총체적 개념의 본풀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정리한 다양한 생업 수호신으로서의 ‘일월’의 영역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여 풀어내면서 조상신의 직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개별 집안의 생업 조상신에 대한 내력을 다룬 교술무가 유형의 조상신본풀이와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면서 ‘혈연 조상’ 유형의 조상신에 대한 연원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제주도 무속 신앙 전반의 조상신앙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긴요한 내용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간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국한되어 평가되었던 조상신 신앙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군웅본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상신본풀이 중 교술무가 유형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앞서 정리한 조상 개념에 근거한 조상신본풀이 유형을 정리

한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가운데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1) 균옹본판

<균옹본판>은 ‘일월조상’을 청하고 신을 ‘놀리는’ 의례의 시작을 끌어내는 본풀이로 자리잡는다. 집안마다 모시는 개별적인 조상신본풀이를 구송하는데 앞서 어느 집안에서든 공통적인 개념의 조상신에 대한 내력이라 할 수 있다.

<균옹본판>의 의례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전승하는 <균옹본판(풀이)>의 내용을 짚어 본다. 하나는 서사무가의 형식을 갖춘 <군농본푸리(軍雄本解)>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균옹본판 제차에서 일반적으로 구송되는 교술무가 유형이다. 두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는 가운데 조상신 의례에서 <균옹본판>이 갖는 의미를 찾고, 한국 무속 신앙과 제주도 조상신 신앙과의 연관성에 대한 단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1) 균옹본판의 의례적 기능

<균옹본판>은 ‘거느리고 푸는’ 형식을 통하여 ‘일월 조상’을 놀리는 의례의 서문을 여는 역할로 조상신 신앙의 총체적 개념을 담아내는 본풀이이다. 집안의 개별적인 조상신본풀이에 앞서며, 집안의 개별성과 상관 없이 동일한 내용을 담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곳을 별일 때 개별의 특별한 서사를 갖춘 조상신을 모시지 않는 집안이라도 <균옹본판>은 반드시 풀게 되는 제차이다. 어느 집안에서나 동일하며, 모든 집안에서 행하는 의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균옹본판>의 전승 자료 중 유일하게 서사 구성을 갖춘 <군농본푸리(軍雄本解)>는 1937년 발간된 『조선무속의 연구(上)』에 실린 것이다.<sup>50)</sup> 이 책은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공편(共編)으로 총 16편의 제주 무가가 실려 있다. 이 중 <15.군농본푸리(軍雄本解)>는 균옹본판과 연관되어 가장 이른 시기에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 자료이면서 서사 구성을 갖춘 것으로는 유일한 자료이다.<sup>51)</sup>

50) 1937년에 발간된 자료가 국내에서는 1991년에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본고는 이 내용을 참조하였다; 赤松智城·秋葉隆 共編, 沈雨晙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채록 당시 서귀본향당의 매인심방으로 알려진 박봉춘 심방의 구연본이다. 이 한 편을 제외하고는 그간 확인된 바로는 대부분 교술무가 형식의 것만 남아 전한다.

교술무가 형식의 <군웅본판>은 덕담 창에 이어 구연되고, 대개 3장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1장 군웅 집안의 가계도, 2장 군웅 삼남(三男)의 불교승 차림, 3장 중국·일본·한국에서 달리 드러나는 군웅' 등의 내용이다.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짧게 풀어낸 후 개별 집안의 조상신본풀이로 이어간다.

『조선무속의 연구(上)』에 실린 박봉춘 심방 구연의 <군농본푸리>는 총 62행으로 구성된 서사무가이다. 단락의 특성에 따라 구연 내용을 구분하면 이 역시 크게 3장으로 나뉜다. '1장 군웅 가계도, 2장 군농아방의 내력담, 3장 군웅-일월의 직능'이다. 교술무가 형식의 <군웅본판>과 견주어 보면, '2장 내력담'이 불교승의 행색을 차리는 내용으로 축소되었고, '3장 군웅-일월이 갖는 다양한 생업 수호신의 영역'이 중국·일본·한국 등 국가적 차원의 군웅에 대한 내용으로만 축소되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의 중심이 되는 '2장 군농아방의 내력담'은 나무 장사 왕장군이 동해용왕을 도와 서해용왕을 죽이고 그 상으로 동해용왕 딸과 혼인하여 세 아들을 낳고 살다가 동해용왕의 딸이 용궁세상으로 돌아가면서 군농아방과 세 아들에게 군농의 직능을 준다는 내용이다. 현재 제주곳에 남아 전승하는 대부분은 본풀이의 중심을 이루는 2장 군농아방의 내력담이 소거되고 앞뒤의 '1장 군웅 가계도'와 '3장 군웅-일월의 직능'만 남아있다.

본격적인 조상신 의례인 <놀판>의 서문을 여는 <군웅본판>의 근거는 '3장 군웅-일월의 직능'에 담긴 조상신 신앙의 총체적 개념이다. 왕장군 부인인 동해용왕 딸이 다시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왕장군과 아들들에게 부여한 직능이 바로 '일월조상'과 동일하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하여 <군농본푸리(軍雄本解)> 후반부인 48행부터 이 자리에 옮긴다.<sup>51)</sup>

51) 赤松智城·秋葉隆 共編, 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329~331쪽.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왕장군의 서사 구성에 대한 내용이 『삼국유사』 권이券二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거타지설화>나 고려 시조 설화인 <작제건>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구성이라는 것은 장주근, 서대석, 김현선에 의해 해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을 갖는 본풀이가 이 자료 한 편 뿐이어서 전승 양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52)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上)』, 東文選, 1991, 330~331쪽.

- 1\_당신내는지금부터부하개살이라하고  
 [당신네는 지금부터 부하게 살리라하고]  
 나는인간이아니니 [나는 인간이(인간 세상의 존재가) 아니니]  
 지금부터용왕으로드러가리니 [지금부터 용왕으로 들어가리니]  
 당신들은군농을차지하여사읍소서 [당신들은 군농을 차지하여 사읍소서]
- 5\_강남은천자군농으로놓고 [강남은 천자군농으로 놓고]  
 일본은효자군농으로놓고 [일본은 효자군농으로 놓고]  
 조선은역신군농으로놓고 [조선은 역신군농으로 놓고]  
 금주자랑,병주자랑,호주자랑 [공조·병조·호조 좌랑(佐郎)]<sup>53)</sup>  
 어영대장,삼정신,육판사,팔도도감,십대신  
 [어영대장(御營大將),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 팔도도감(八道都監),  
 십대신(十大臣)]<sup>54)</sup>
- 10\_각읍수령양반인사당우판에놓고  
 [각읍 수령 양반은 사당(祠堂) 위패(位牌)에 놓고]  
 중인이집에는걸영수낙/ 영판척불일월에놓고  
 [중인의 집에는 걸룡썩 나경판 책불일월에 놓고]<sup>55)</sup>  
 무당집에는당주읍판고비살장에놓고  
 [무당집에는 당주 위패 고비 살장에 놓고]  
 배짓는집인선왕일월에놓고 [배 짓는 집에는 선왕일월에 놓고]
- 15\_산양하는집인산신일월에놓고 [사냥하는 집에는 산신일월에 놓고]  
 장사하는집인낙배일월에놓고 [장사하는 집에는 낙배일월에 놓고]  
 활하는집에는섯달사리혼보일월에  
 [활하는 집에는 석달살이 홍패(紅牌)일월에]  
 어수예비수예어인타인금인오인  
 [어사화(御賜花) 비수예[-賜花] 어인타인 금인옥인]

53) 좌랑 : 조선시대 6조에 설치하여 실무를 관장했던 정6품직.

54) 어영대장 : 조선시대 어영청(御營廳)의 최고 벼슬로 종2품직.

55) 내용의 오독으로 인한 행 나눔의 문제가 확인된다. 걸룡썩과 나경판은 모두 '책불일월'의 대표적 생업인 지관(地官)의 도구이다.

걸룡썩 : 나경(羅經), 패철(佩鐵).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009, 50쪽]

나경판 : 나침반.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009, 152쪽]

창보쌍지홍보쌍지모대각대에놓내다

[창보쌍지 홍보쌍지 모대각대(角帶)에 놓내다]<sup>56)</sup>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군농’과 ‘일월’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념이 동일하면서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면 그 이유는 영역의 차이, 즉 위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4행에서는 ‘군농을 차지하여 사읍소서’라 하고, 5, 6, 7 즉 국가에 대한 영역은 ‘군농’이라 칭하고 있다. 8행의 ‘공조 좌랑’부터 10행의 ‘각읍 수령’은 ‘사당 위패’로만 나와 있지만, 보통 ‘사당일월’로 칭해지는 ‘공무군(公務群)’의 영역이다. 당시 양반 계층이 담당하는 영역이므로 ‘사당(祠堂)’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1행 이후 각 생업군에 대해서는 ‘일월’로 칭하고 있다. 수호신이라는 동일한 의미의 신격이지만 국가적 차원 혹은 상위적 임무를 수행하는 위계에 대해서는 ‘군농’을, 개인적인 생업의 차원에서는 ‘일월’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57)</sup>

다음으로 직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행별 의미를 좀더 분석해 본다. 5~7행은 강남, 일본, 조선으로 이어지는 사설이다. 이 내용은 제주곳에서 관용구처럼 쓰여진다. 강남은 중국을 뜻하는 것이며, 일본은 ‘효자孝子’ 보다는 ‘소자小子’를 뜻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된다. 혹은 ‘주년국’으로 쓰인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은 ‘역신군웅’이라 칭해지고 있다. 먼저 역신이라면 천연두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천연두를 일으키는 ‘역신(疫神)’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역신’을 계속 일으켜서, 즉 병을 계속 일으켜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수호신격을 논하는 자리에 타당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으로 ‘역신(逆臣)’이라면 고려의 입장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에 삽입되는 서사적 요소가 고려 시조 설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웅본풀이는 고려와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맥락에서라면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56)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다듬은 것이다. 원편에 기입한 행의 숫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문의 행이 아니라 현재의 행 수를 표기한 것이다.

57) 수호신의 위계 중 국가 차원의 영역을 ‘군웅’이라는 말로 ‘일월’과 구분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군웅’이 제주 무속 젓드리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외부 유래적 관념이라는 것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제주도를 둘러싼 중세 시대 역사 연구와 무속 신앙 교류 양상을 연관시켜 고찰하는 새로운 시각의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있다.

8~10행은 문무신을 포함하는 공무직(公務職) 즉 벼슬아치들에 대한 내용이다. 11행 이하는 중인(中人) 이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내용이다. 책불일월, 당주일월, 선양일월, 산신일월, 홍보일월 등은 지금도 제주곳에서 그대로 거느려지는 이름들이다.

16행의 '장사하는 집'에서 청하던 '넉배일월'은 현재 제주곳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이름이다. '넉배'는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상징물이다. 풍선(風船)으로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며 장사를 해야 했던 시절에 풍파(風波) 없는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민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생업인 이유로 더이상 전승하지 않고, 선박의 수호신인 '선양일월'만 여전히 전승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17행의 '활 하는 집'에서 청하던 '홍보일월'은 '홍보일월[紅牌日月]'이다. '홍패(紅牌)'는 조선시대에 문·무과 공히 주어지던 급제증서인데, '활 하는 집'으로 관용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과' 급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제주도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 뒤에 이어지는 행은 어사화를 꽃고 행차하는 급제자의 화려한 환향(還鄉) 행사를 그린 관용구이다.

위에서 정리한 대로 <군농본푸리>의 후반은 '군옹-일월'의 직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삶의 가장 원천적인 터전이었던 '농업'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는 젓드리에서 '일월'의 상위인 '세경'의 영역이다. '군옹-일월'의 직능은 원천성을 갖는 생업인 농업 외에 특별히 형성된 직업 혹은 형성되기 시작한 직업에 대한 수호의 직능을 담당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정 집안의 생업을 처음 시작한 시조나 걸출한 조상에 대한 신앙으로서의 조상신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군옹본판>은 생업 전반에 대한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일월 조상'의 추상체에 대한 '풀이'로 '일월 조상'을 놀리는 의례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군옹본판>이라는 서문을 거쳐 개별 집안의 구체적 생업 조상에 대한 의례인 본론으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이다.

## (2) 군옹본판과 조상신본풀이

<군웅본판>의 후반부에는 다양한 생업의 영역에 대한 ‘일월조상’이 거느려진다. 이는 현재 전승하는 조상신본풀이 중 생업 영역을 다루고 있는 교술무가 유형과 동일한 내용이다.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에 실린 <홍부일월본>, <책불일월본>, <산신일월본>, <불도일월본> 등 4개의 각편과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에 실린 <선양노래>가 이와 동일한 유형이며, <피쟁이조상본-황정싱본>도 특정 직업군인 ‘백정’ 집안에 대한 본풀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경우이다.<sup>58)</sup>

<군웅본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상신본풀이는 ‘혈연 조상’ 유형이다. 즉 집안을 일으킨 중시조(中始祖) 격의 걸출한 조상이거나 그 집안의 특정 생업을 안착시킨 선조가 집안의 조상신으로 좌정한 경우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이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조상신앙’의 맥락에서 형성된 신앙 관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군웅본판>이 어느 집안에서나 동일하며, 모든 집안에서 행하는 의례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군웅본판>의 의미는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혈연 조상’을 근간으로 하여, 토착적인 ‘태운 조상’ 관념과 새로운 내력을 형성한 ‘맺은 조상’의 관념이 어우러져 생성된 것이라는 주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현재 제주곳에 전승하는 <군웅본판>은 ‘박봉춘 심방 구연의 <군농본푸리>’에서 중심 서사를 이루는 ‘군농아방의 내력담’이 소거된 형태이다. ‘군웅 가계도’와 ‘군웅의 차림새’, ‘군웅-일월의 직능’이 남아있다. 이러한 변모 양상의 한계에 <군웅본판>이 갖는 의례적 기능과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된다. <군웅본판>이 개별 집안의 구체적 생업 조상에 대한 의례로 넘어가게 하는 서문의 기능이라면 현재의 형태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살림에서의 <놀판>이 개별 집안의 본풀이를 풀어내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강화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개별 집안의 본풀이가 강화되는 구조 속에서 <군웅본판>이 한정된 의례 기능으로만 전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봉춘 심방 구연의 <군농본푸리>’ 유형은 현재까지 유일한 전승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제주곳에서 전승하는 교술 무가 유형의 조상신본풀이는 <군농본푸리>

58)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의 <피쟁이조상본-황정싱본>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삼달본향당> 본풀이의 변형본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내용이 당본풀이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생업조상신 본풀이로 갈래를 달리하여 전승한 경우이다.

의 후반과 유사성을 갖는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유사한 전승이라 할 수 있는 ‘군웅 가계도’에서 군웅 가계 구성원에 대한 호칭이 각기 상이한 점이다. 교술무가 형식의 전승은 그 내용에 있어 크게 이본을 형성하지 않는다.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전승하고 있는 교술 무가에서 거의 유일한 차별성이 가계 구성원에 대한 호칭의 상이성이 되는 것이다.<sup>59)</sup>

군웅의 조부모에 대한 호칭은 대부분 ‘천왕제석, 지왕제석’으로 동일하다. 위에서 ‘바랑탐’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던 ‘일월-군웅-제석’의 연관성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군웅의 부모에 대한 호칭인데 현재 양상을 보면 ‘아버지는 낙수계남, 어머니는 희수계남’이 가장 보편적인 전승으로 확인된다. ‘낙수계남, 희수계남’은 다른 말명들과의 대조를 통하여 ‘낙수관음[藥師觀音], 해수관음(海水觀音)’으로 정리되고 있는 경향이다.

호칭과 관련하여 ‘박봉춘 심방의 <군농본푸리(軍雄本解)>’ 내용을 확인하면, 먼저 조부모에 대한 호칭은 ‘천왕제석, 지왕제석’으로 다른 자료들과 동일하다. 부모에 대한 호칭은 ‘왕대조왕장군, 회속예낭’이고, 아들들은 ‘왕근, 왕빈, 왕사랑’이다. 고려 세보(世譜)와의 연관성이 눈에 띄는 점이다.

어머니 호칭인 ‘회속예낭’은 ‘희수계남’, ‘해수관음’ 등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와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들들에 대해서는 교술 무가 유형에서는 특별한 이름이 없이 전승하는 기록이 대부분이다. 다만 동해와 서해를 관장하는 의미, 혹은 동해와 서해에 바쳐지는 정성을 받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명칭이 전승하고 있다.

아직 가계도와 관련한 정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군웅본판>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자료가 보고된 상황이지만, ‘박봉춘 심방의 <군농본푸리(軍雄本解)>’와 유사성을 확보하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다만 기존 발간된 자료집 중 두 개의 교술무가 자료에서 ‘박봉춘 심방의 <군농본푸리(軍雄本解)>’와 유사한 ‘왕장군-왕장수’의 호칭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중문 이광언 심방’ 자료와 ‘하예동 김명선 심방’ 자료이다.<sup>60)</sup>

59) 현용준은 이에 대하여 “군웅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존 자료를 대상으로 비교 일람표를 만들어 제시한 바 있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228쪽.

60)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710~711쪽. <군웅만판>(이광언 심방) “군웅할으

박봉춘 심방, 이광언 심방, 김명선 심방 모두 서귀포시 지역을 무업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심방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지역적 전승’의 유사성을 하나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광언 심방이나 김명선 심방의 자료 또한 서사무가의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세 자료의 유사성을 근거로 <군농본푸리(軍雄本解)> 전승의 지역적 전승 양상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현재 <군옹본판>이 교술 무가 형식으로만 전승되는 양상의 이유를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두 가지의 단서는 확인하였다. 하나는 <군옹본판>이 개별 집안의 생업 조상에 대한 의례로 넘어가는 서문으로서의 기능으로만 한정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제주도 무속 신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제차의 통합이나 축소가 근본적으로 <군농본푸리(軍雄本解)> 전승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군옹본판>은 생업 수호신으로서의 ‘혈연 조상’ 본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면서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갖는 ‘조상신앙’의 원천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더 나아가 <군옹본판>과 이의 상위 제차인 <덕담>이 육지곳의 조상 의례와 일정한 연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 (3) 덕담과 지두서

제주곳의 의례 양식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육지 다양한 지역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군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군옹본판>이 개별 집안의 생업 조상에 대한 의례로 넘어가는 서문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때 『조선무속의 연구(上)』에 수록된 <지두서(指頭書)>와의 연관성을 주목하게 된다.<sup>61)</sup> 이 책에는 제주 무가 뿐 아니라 경성, 오산 지역의 무가를 함께 실고 있다. 그 중 <지두서>를 하나의 갈래로 삼아 ‘경성 지두서’와 ‘오산 지두서’ 두

방은 천왕보살/군옹할망은 지왕보살/군옹아방은 왕장수/군옹어명은 해수개남/큰아들은 왕쟁이/셋아들은 왕인이/말쫓아들은 왕스랑”; 국립무형유산원,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제주도 동북신굿』 무가편②, 2019, 126쪽. <보세감상>신매움>(김명선 심방) “일월이여 군옹이여 제석이여/어평 허여 군옹인고/어평 허여 일월인고/군농하르방 천양제석/군농할망 지양제석/군농아바님/왕장수요/군농어명 역수로다.”

61)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上)』, 東文選, 1991, 159~174쪽.

편의 자료를 싣고, 자료 앞쪽에 <지두서(指頭書)>에 대한 설명을 짧게 제시하였다. 내용을 보면, “지두서指頭書란 본래 지두指頭로서 쓸 수 있는 문자이지만, 여기에 채록된 것은 주로 조령초청祖靈招請의 무제巫祭에 있어서 최초로 창창하는 노래가 락(神歌)이다.”라고 되어 있다.<sup>62)</sup> 이 설명으로 본다면 앞서 정리한 <군웅본판>의 역할과 유사하다. 또한 자료를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확인하게 된다. 수록된 자료가 전체를 인용하기에는 다소 분량이 있어 <경성지두서(京城指頭書)> 중 군웅이 언급되는 부분만 짧게 인용한다.<sup>63)</sup>

그미쳐오시는임신네는대암데석,소암데석  
 [그 뒤에 오시는 임신네는 대암제석 소암제석]  
 제불대턴락산관음,석가여래,세인데석  
 [제불대천 낙산관음, 석가여래, 세인제석]  
 아들이불너주고,짜님이부려주고 [아들이 불너주고, 따님이 불너주고]  
 먹을전입을전불너주시든양위데석  
 [먹을 전(연) 입을 전(연) 불너주시던 양위제석]  
 질거이바드시고 [즐거이 받으시고]  
 그미쫓쳐오시는임은 [그 뒤에 오시는 임신은]  
 강남의흥씨군웅,우리나라리씨군웅 [강남의 흥씨군웅, 우리나라 이씨군웅]  
 열편은도한수라 [열편은 도한수라]  
 아차고시위찬군웅이들어오실제 [아차고 시위찬 군웅이 들어오실 때]  
 사대진을버리고오실제 [사대진을 버리고 오실 때]

인용한 대목의 앞뒤를 보면 ‘날과국섬김-연유-신메움-추물공연-조상청함-비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위에 인용한 대목은 신메움에 들어간다.

지두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군웅본판>에 한정되었다기보다 이 제차의 상위 제차인 <덕담>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덕담>은 ‘창(唱)’으로 이루어지며, ‘창’하는 형식으로 ‘베포도업침’부터 ‘연유담음’까지 풀어낸 후에 <군웅본판>으로 이어간다.

62)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上)』, 東文選, 1991, 160쪽.

63)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上)』, 東文選, 1991, 164쪽.

<덕담>의 핵심은 말명을 행하는 방식-‘창’-에 있으며, <지두서>와의 상관성 또한 말명의 내용만이 아니라 굿을 끌여가는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두서>의 제행(祭行)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의례 전반이 아니라 의례 내용에 한정된 유사성만을 확인할 수 있다.<sup>64)</sup>

육지곳에 속한 갈래의 하나인 <지두서>가 <군웅본판>의 상위 제차인 <덕담>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군웅’ 관념의 소종래를 밝히는 일에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상신 관련 의례에 대한 분석에 방향 하나를 얻었다. <군웅본판>이 제주도 조상신 신앙 중 ‘혈연 조상’의 유형과 연관성을 갖는다는 내용에 이어 한민족 무속 의례 중 ‘조상 청신 의례’와의 상관성 또한 확인하게 되는 점이다. 동일한 한민족의 ‘조상신앙’이 수용되었다는 점, 시간을 거치면서 한민족 보편의 ‘조상신앙’이 제주도 토착문화와 결합하여 제주도만의 고유한 ‘조상신 신앙’을 형성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추정 이상의 단서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 의례와 육지곳 조상 의례의 상관성에 대한 더욱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육지곳 의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연행 양식을 중심으로 한 <지두서>와 <덕담>의 상관성을 밝히는 일을 과제로 삼는다.

## 2) 조상신본풀이

제주도 조상신 신앙은 신격과 신앙 관념의 특성에 따라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조상’을 대상 신격으로 삼지만 혈연 조상을 넘어서며, 이러한 다면성을 통하여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제주도만의 특별한 조상신앙을 형성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 또한 이러한 관념이 반영되어 형성되어 왔다. 본고는 현재 전승하는 다양한 조상신본풀이 유형을 신앙 관념의 특성에 따라 새롭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sup>65)</sup> 이는 신앙 관념과 본풀이, 의례가 일정한

64) 김형근은 <지두서>를 소개하고 여러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지두서>의 유형을 정리하는 논의를 펼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김형근은 현재 서울곳 내에서 <지두서>로 특정할 수 있는 제차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였으며, 말명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주곳의 <초감제>와 관련있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본문에서도 밝혔지만, <지두서>의 내용보다는 형식과 제차적 위상을 밝히는 방향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김형근, 「지두서(指頭書) 유형무가의 비교 연구-교술 창세무가의 양상과 의미」, 『민속학연구 제33호』, 2013, 147~165쪽.

맥락 속에서 상관성을 가지고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조상신의 특성과 좌정 동인을 기준으로 하여 조상신본풀이 자료를 유형화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논문에 조상신 신앙을 형성한 관념으로 자연신앙, 무속 신앙, 역사적 사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유형과 신앙 관념을 연결하여 한 맥락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개별로 정리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본고의 새로운 유형화 작업은 당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조상신 신앙 전반을 일관된 맥락으로 재조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먼저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목록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목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료의 출처나 구송한 심방에 의한 화소의 차이는 기준을 두지 않는다. 본풀이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나, ‘조상’ 관념에 따른 유형화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목록화된 자료는 각각의 유형별로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다음은 대상이 되는 자료가 실린 출처 목록이다.

- 1) 장주근, 「부락 및 가정신앙」,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1974.
-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3)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4)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5)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6)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의 본풀이 채록 사업 자료집으로 총 4권이다.

---

65) 조상신본풀이 자료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정리되었다. 김현선은 2006년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에서 대표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남녀 이합·애정담, 강신·원사, 부군칠성, 영감(도채비)유형이다. 류진옥은 2018년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에서 조상신의 특성과 좌정 동인을 기준으로 비인격신·인격신, 성취·실패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강소전은 2022년 「조상신본풀이 자료 현황과 특징」에서 이 시점까지 채록된 현황과 과정을 정리하고 46개의 목록으로 구성하여 본풀이 내용을 정리하였다; 김현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강소전, 「조상신본풀이 자료 현황과 특징」,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학연구센터, 2022.

- ①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② 허남춘·한진오·강소전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③ 허남춘·송정희·강소전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④ 허남춘·정희종·강소전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7)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큰굿』, 제주특별자치도, 2010.

위의 책에 실린 자료들을 동일한 유형을 묶어 각편을 추리면 총 60개의 목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66)</sup> 정리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목록

(\*비인격/인격, \*\*남/여, \*\*\*성취/실패)

유형	대표 자료명	특징	지역	집안	* 비/인	** 남/여	*** 성/실
혈연조상	1 불도일월(佛道日月)본				인격신	남	성취
	2 산신일월(山神日月)본						
	3 산신일월(山神日月)본						
	4 책불일월본						
	5 홍부일월(紅牌日月)본						
	6 피쟁이조상본						
혈연조상	7 산신일월(山神日月)본		와산리	고씨	인격신	남	성취
	8 고도채비	산신일월, 신축항쟁	고매곶	고씨			
	9 하도 부대각하르방본	산신책불일월	하도리	부씨			
	10 이씨불도세별조상본	책불일월, 뱀, 은침서침, 딸전승		이씨			
	11 괴성 정지관본	책불일월	성산 고성	정씨			
	12 김대봉본풀이	홍보일월	신촌리	김씨			
	13 열룬이고정잇본	홍보일월	온평리	고씨			

66) 위에 출처로 제시한 자료들 중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실린 <고도채비본>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각편은 <조상본> 항목에 실린 '정씨 구연본'으로 신앙 전승 지역, 집안, 직능이 모두 드러나지 않아 <조상신본풀이>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출처의 <군웅막판> 항목에 수록된 '신여봉 심방 구연본'의 <고도채비군웅>은 목록에 포함시켰다.

	유형	대표 자료명	특 징	지역	집안	* 비/인	** 남/여	*** 성/실			
14	혈 연 조 상	철중장군	홍보일월	신촌리	김씨	인 격 신	남	성 취			
15		윤대장본	홍보일월	북촌리	윤씨						
16		윤칩 윤동지영감본	홍보일월	하도리	윤씨						
17		이만경본	홍보일월	북촌리	성주 이씨						
18		하도 고만호 본풀이	홍보일월	하도리	고씨						
19		한칩 한동지영감본풀이	160세, 선양	하도리	한씨	인	여	실			
20		하도 임칩하르바님본	선양, 임칩 큰딸아기	하도리	임씨						
21		눈미와산 양씨일월	입무담, 양씨큰할마님	와산리	고씨				인 격 신	여	실 패
22		눈미와산 양씨일월	입무담	와산리	양씨						
23		이씨 할마님	입무담, 불도일월, 조상책갑	와산리	고씨						
24		양씨일월본	입무담/예촌 본향	남원 예촌	양씨						
25		고훈장따님아기본	입무담, 김사갓하르바님	김녕리	김해 김씨	인	여	성 취			
26		우랭이 김씨조상본	입무담	외도1동	김해 김씨						
27		고군찬심방	무업담	와산리	고씨	인 격 신	여	성 취			
28		고대장본1	무업담, 이형상목사	삼도동	고만호댁						
29		고대장본2	무업담, 순흥안씨 부군칠성	삼도동	고만호댁						
30		고대장본3	무업담, 기우제	삼도동	고만호댁						
31		구실할망본		신촌리	나주 김씨	인 격 신	여	성 취			
32		구실할망본	김동지 수양딸	신촌리	김해 김씨						
33		삼청동변씨조상본	입도조	성읍리	변씨						
34	옷기 감목관본	김만일	의귀리	김씨							
35	토산 감목관본	김씨 성할머님 조상	신평리	오씨							
36	우랭이 신씨조상본	흥씨할망, 강당장따님아기	외도1동	신씨							
37	고전적따님아기본	동이풀이	명도암	고씨 김씨	인 격 신	여	실 패				
38	고전적따님아기본	동이풀이	명도암	김씨							
39	고전적따님아기본	일월, 본향, *고칩 동이풀이 안함	와산리	고씨							
40	양이목사본	양씨 명월파		양씨							
41	부대각본	아기장수, 부군칠성	평대리	부씨							
42	오설룡 따님아기본	대정 귀양, 산신일월		오씨							
1	맺 은 조 상	광청아기본	딸 전승	김녕리	송씨	인 격 신	여	실 패			
2		광청아기본	한사공, 송동지	김녕리	한씨						
3		광청아기본	김녕 원씨 집안	동복리	정씨						
4		송당 광산김씨 본풀이	자손 흥협, 백정(광대)놀이, 전물제	송당	광산 김씨						
5		원당할망	무업실패담	신평리	강씨						
6		이씨할망조상본	이주여성	하모리	이씨						
7		절터왓당	조상당, 불도군옹 책불일월	신평리	강씨						

	유형	대표 자료명	특징	지역	집안	* 비/인	** 남/여	*** 성/실
8		영아릿부씨조상본	산신일월, 본향당	상도리	부씨	비 인 격	남	성
9		선양일월	참봉일월					
1	태 운 조 상	나주기민창	蛇神, 새곶당/천구아구데맹이	선흘리	순흥 안씨	비 인 격	남	성 취
2		선흘리안판관	蛇神, 안씨-고대장본, 입도조	선흘리	안씨			
3		선흘리안판관	蛇神, 안칠성, 입도조	화북	순흥 안씨			
4		우렁이 신씨조상본	蛇神, 칠성	외도1동	신씨			
5		이치조상본	蛇神, 큰구렁이		이씨			
6		진도할망	蛇神, 구렁이, 조상당	웅포리	인동 장씨			
7		솔할망	딸 전승	하천리	송씨			
8		선씨일월본	은진미륵 용왕미륵 돌부처	화북	안씨			
9		이침 하르바님 본풀이	미륵, 오합상자	하도리	이씨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하여는 각 항목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그에 앞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하면 전체적인 양상에서 몇 가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혈연 조상’ 유형의 본풀이가 총 60개 중 42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혈연 조상 유형이 전체의 70퍼센트의 내용이다. <군웅본판>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특정 집안에 국한되지 않고 생업 영역을 교술무가 형식으로 담고 있는 본풀이가 6개 정도이며 그외 54개 정도가 서사성을 갖춘 ‘혈연 조상’ 유형의 본풀이이다. ‘맺은 조상’ 유형과 ‘태운 조상’ 유형은 각기 9개 정도의 각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혈연 조상’을 근거로 하여 발생한 신앙 관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다음으로는 ‘혈연 조상’ 유형과 ‘태운 조상’ 유형이 대부분 ‘성취’ 유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맺은 조상’ 유형의 대부분이 ‘실패’ 유형인 점과 상반되는 특징이다. ‘혈연 조상’은 생업 영역의 조상이 조상신으로 좌정한 경우가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성취’한 조상의 유형인 경우가 많다. ‘태운 조상’의 경우는 재물 번성을 직능으로 하는 신앙 관념이 중심을 이루는 경우로 ‘성취’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맺은 조상’의 경우는 주된 좌정의 동기가 ‘해원’이다. 한민족 고유의 원혼 관념이 ‘맺은 조상’ 유형의 중심을 이룬다. 원혼의 ‘위해’를 자손에 대한 ‘수호’로 바꾸기 위하여 발생한 관념인 것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유

형별 조상신의 좌정 동기가 유형별 ‘성취’와 ‘실패’의 양상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 또한 유효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조상신의 대부분은 ‘남성신’이다. 강한 성취 유형을 보이는 ‘혈연 조상’ 유형은 특히 ‘남성신’의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혈연 조상’ 중 아주 소수를 차지하는 ‘실패’ 유형만이 ‘여성신’을 대상으로 한다. 즉 ‘실패’ 유형을 강하게 드러내는 ‘맺은 조상’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신’의 유형을 보여준다. ‘혈연 조상’이면서 ‘성취’ 유형의 경향은 ‘남성신’, ‘맺은 조상’이면서 ‘실패’ 유형의 경향은 ‘여성신’으로 일반적인 조상신 유형의 법칙을 이룬다. 물론 이 가운데에도 특별한 경우로 예외성을 보이는 자료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각 항목에서 자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 (1) ‘혈연 조상’ 조상신본풀이

‘혈연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는 앞서 정리한 것처럼 조상신본풀이 중 중심을 차지한다. 목록에 올린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생업 수호신, 입무담과 무업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 목록은 육지와 연관되어 형성된 내력담이며, ‘맺은 조상’ 유형과 유사한 서사를 담고 있다.

생업 수호신 유형에서는 <불도일월>, <산신일월>, <책불일월>, <홍부일월>, <피쟁이조상본> 등 각 생업 영역의 보편적 내력을 담고 있는 교술무가 형식의 본풀이가 전승한다. 또한 이 보편적 형식이 각 집안의 구체적 내력과 만나서 형성되는 동일 유형의 본풀이들이 있다. 이러한 본풀이를 시작하는 관용구로 “잘살아나도 조상이 되고, 못살아나도 조상이 되고, 농사를 많이 지어나도 조상이 되고, 사농을 댕겨놔도 조상이 되고 모든 게 다 조상이 되는 법이우다.”라는 말명이 있다. 생업 영역의 조상에 대한 관념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이 유형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홍보일월’의 우세함이다.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제주 지역의 역사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드러나는 ‘홍보일월’은 ‘생업 수호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집안 혈연 조상의 내력담을 내세워 집안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도 내 여러 성씨 집안에서 집안에 전하는 가승(家乘)과

족보(族譜)만으로 입도조(入島祖)와 선대(先代) 조상의 기록을 미화하여 전승하고 있는 양상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sup>67)</sup>

입도조는 고, 양, 부 삼성(三姓) 이외의 성씨 집안으로 제주도 외 지역에서 처음 제주도에 정착하여 후손을 남긴 선조를 의미한다. 명도암 <고전적본>과 연관된 김진용(金晉鎔, 1605~1663)은 광산 김씨 입도조인 김운조(金胤祖)의 9세손이다. <옷기 감목관본>의 의귀리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은 경주 김씨 입도조인 김검룡(金儉龍)의 7세손이다. <삼청동 변씨 조상본>의 변씨 집안의 입도조는 변세청(邊世淸) 등으로 밝혀진 바 있다. ‘태운 조상’ 유형에 속하는 본풀이이지만, <선흘리 안판관>에 등장하는 순흥 안씨 삼형제의 내력은 실제 순흥 안씨 입도조인 안득경(安得敬)과 그 형제의 분거(分居) 내력과 유사한 점이 있다.

구비서사물인 본풀이와 실제의 역사 기록을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나, ‘혈연 조상’ 유형의 경우 본풀이 형성의 주된 관념에 역사적 실재성이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입도 이주 세력에게 있어 이주에 대한 서사를 중심으로 하여 가문의 성공을 드러내고 집안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혈연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와 조상신 신앙은 효과적이며 위력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 역사의 한 단면은 ‘혈연 조상’ 유형의 본풀이에서 ‘홍보일월’ 유형의 우세함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혈연 조상’ 유형 본풀이의 또다른 특징은 ‘입무담’과 ‘무업담’이 다수 확인되는 것이다. 둘의 양상은 달리 나타난다. ‘입무담’은 주로 ‘실패’ 유형이며, ‘무업담’은 주로 ‘성취’ 유형이다.

‘입무담’ 중에서 ‘성취’ 유형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심 인물이 남성인 경우이거나 ‘실패’한 여성을 남성이 구해준 결과로 획득하는 ‘성취’이다. <고훈장따님아기본>에서 ‘고훈장따님아기씨’는 ‘김스갓하르바님’이 짝 ‘무쇄설갑’에 담겨져 바다에 버려진다.<sup>68)</sup> 양반 가문의 딸로 ‘입무’하여 심방이 되는 일은 ‘죽음’과 바뀌야 할 만큼

67) 흥기표는 여말선초 제주도에 들어온 입도조 중 대략 16명 정도의 내력이 확인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숫자이다. 흥기표는 논문의 서두에서 논지의 근거로 들 수 있는 사료(史料)의 부족함으로 인한 연구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흥기표,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제주도연구』 제49집, 2018, 31~57쪽.

68) <자료 1> 참조. 2022년 1월 9일 오라동 소재 굿당에서 벌인 돛제 살려옵서에서 구연된 자료이다. 보통 돛제는 자택에서 하는 것이지만, 본주의 사정으로 굿당을 빌려 돛제를 올렸다. 이 집안

불가능한 일이라는 인식은 <눈미와산 양씨일월>에서도 드러나며, <고전적본풀이>에서는 치병(治病)을 위한 굿판에서조차 춤추는 일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두 본풀이의 ‘양씨일월’과 ‘고전적따님아기씨’는 모두 생명을 잃었다. ‘무쇄설갑’에 담겨져 바다에 버려진 ‘고훈장따님아기씨’ 또한 같은 운명이었다. 그런데 ‘남성’의 개입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고훈장아기씨’는 목숨을 건지고, 그 ‘남성’과 결혼을 하여, ‘무업’까지 허락받아 정명(定命)을 지켰다. 그러나 고훈장따님아기씨는 유언으로 이후의 집안 대대로 ‘심방 자손’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위의 ‘실패’ 유형 입무담과 동일하게 무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외형적으로 ‘성취’ 유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좀더 심층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고훈장따님아기씨> 역시 ‘실패’ 유형의 경향을 보이는 ‘여성 입무담’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업담’은 ‘입무담’과는 달리 성취 유형으로 드러난다. 이는 ‘혈연 조상’ 유형 중 ‘결출한 조상’의 유형이다. 김윤수 심방의 수양어머니인 <고군찬 심방>에 대한 조상신본풀이는 고군찬 심방의 본가 집안인 와산리 고씨 집안이나 와산리 양씨 집안, 김윤수 심방 집안에서 굿을 할 때 일월조상 본풀이로 푸는 내력이다. 고군찬 심방은 와산리 양씨 집안의 내력을 물려서 입무한 경우이다. 고군찬 심방의 할머니가 와산리 양씨 집안이고, 할머니의 무업을 물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와산리 양씨 집안에서 굿을 하는 경우 고군찬 심방에 대한 내력을 ‘일월조상’의 하나로 전승하고 있다. 본풀이 내용을 보면 고군찬 심방의 생전 부탁으로 와산리 고씨 집안의 굿에서 자신을 거느려 달라는 대목이 있다.<sup>69)</sup> 조상신본풀이의 생성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이다.

‘입무담’과 ‘무업담’이 분명 다른 경향의 내력을 갖는 각기 다른 본풀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모두 제주도 무속 사제자인 ‘심방’과 관련한 내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혈연 조상’ 유형 중 하나인 <당주일월>이 심방들의 ‘생업 조상신’으로 조상 의례에서 거느려지는 것과 함께, 서사성을 갖춘 심방 내력이 다수 전승하기도

은 모시는 조상신이 많은 경우이다. 대주인 김씨 집안으로 통정대부, 가산대부인 <홍패일월>, 대주 어머님 한씨 집안으로 <광청아기씨>, 본주의 친정어머님 집안으로 <책불일월 김스갓 할아버지>와 <고훈장따님아기씨> 등이다. <고훈장따님아기씨 본풀이>는 이미 채록되어 보고된 자료이지만 이번 자료는 현장에서 채록된 것의 의미가 있어 자료로 첨부한다.

69)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큰굿-1986년 신촌리 김윤수 심방집의 신굿』, 2010, 649쪽, 682쪽.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조상신본풀이 전승을 포함하여 제주도 무속 의례 전승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심방 집단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을 포괄하여 무속 신앙 전승의 주체 세력이 심방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단골·중단골·하단골’ 등 신앙민들의 구조인 ‘단골제도’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이다. 심방 집단의 구조인 ‘매인 심방’ 제도 또한 원래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 되었다. 매인심방은 특정 마을에 거주하면서 그 마을의 단골권을 확보하고 본향당 등 당 의례를 맡아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 동일 지역에 거주하면서 단골 집단과 관계를 이어가는 매인심방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많은 변화를 거치며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심방 집단이 현재의 무속 사회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입무담’과 ‘무업담’ 등 ‘심방’과 관련한 내력을 다수 전승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면으로는 지금까지의 조사 채록 자료들이 심방들의 협조로 인하여 대부분 축적되어 왔던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것이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혈연 조상’ 유형이 ‘성취’ 유형의 경향을 갖는 것과 달리 ‘실패’ 유형의 서사를 갖는 본풀이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본풀이들은 ‘맺은 조상’ 유형의 원혼 서사 구성을 공유하고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고전적본풀이>, <양이목사본>, <부대각본>, <오설롱따님아기본> 등이 있다. <오설롱따님아기본>의 경우 <여우누이> 설화 유형에 속한다. 또한 내용에 ‘평대본향당’과의 연관성이 실려 있어 이 본풀이의 연원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실할망본>의 경우도 ‘맺은 조상’ 유형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이주’, 즉 ‘제주 남성’을 따라 입도한 ‘이주 여성’의 내력담이 대부분 ‘원혼’과 ‘실패’의 경향성을 갖는다는 보통의 조상신본풀이가 갖는 규칙을 깨고 유일하게 ‘성취’ 서사를 전승한다. 그런데 이 본풀이는 ‘혈연 조상’ 유형이다. ‘맺은 조상’ 유형의 ‘이주 여성’들이 원혼이 된 후 그 원을 풀고나서야 ‘혈연 조상’으로 전환하여 조상신에 좌정하는 것과는 달리, ‘구실할망’은 ‘혈연 조상’으로 평생을 살고 정상적인 죽음을 맞는다. 즉 ‘혈연 조상’이기 때문에 유사한 이주 여성의 내력담이면서도 ‘성취’ 서사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전적본풀이>, <양이목사본>, <부대각본>은 반대로 ‘혈연 조상’의 ‘성취’ 서사

규칙을 깨뜨리고 있다. 그 이유에는 세 본풀이가 모두 토착 세력 집안의 내력이라는 공통점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 본풀이의 경우 토착 세력인 高·梁·夫 세 집안과 연관된 조상신본풀이이다. 앞에서 ‘입도조’와 함께 살폈던 ‘혈연 조상’의 일반적인 ‘성취’ 유형의 형성 근거가 이 경우에는 맞지 않는 양상이 되는 것이다. 토착 세력인 삼성 집안에서 전승하는 조상신의 경우 이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혈연 조상’ 조상신본풀이는 생업 수호신의 중심성을 드러내면서 입도조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상신 신앙과 입도 세력의 연관성은 토착세력과 연관한 ‘혈연 조상’ 유형의 본풀이가 일반적인 법칙을 깨고 ‘실패’ 유형으로 전승하고 있는 양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혈연 조상’ 조상신본풀이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입무담’과 ‘무업담’이 다수 전승하는 양상은 현재 제주도 무속 사회의 중심 세력인 심방 집단의 영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혈연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는 전체 조상신본풀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조상신앙’적 맥락을 입증하고 있다.

## (2) ‘맺은 조상’ 조상신본풀이

‘맺은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는 ‘맺은 조상’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경우이다. 목록에 올린 9개의 본풀이 중 <영아릿부씨조상본>은 ‘분향당신’을, <선양일월>은 ‘영감신’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맺은 조상’ 유형이 갖는 ‘원혼’ 서사와 ‘실패’ 유형 서사를 공유하지 못한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실패’ 유형의 서사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육지와 교류를 서사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혈연 조상’ 유형 중 ‘실패’ 유형의 특별한 양상을 보였던 <고전적본풀이>, <양이목사본>, <부대각본>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그간 조상신본풀이에 대하여 발표된 연구 성과의 대부분이 이 유형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다.

<광청아기본>, <이씨할망조상본>, <고전적본풀이>는 제주도 남성과 육지 여성 간의 애정담으로 시작되는 서사이다. <송당 광산 김씨본>의 경우는 두 개의 이본이 전승하는데, 그 중 하나는 ‘문희연(聞喜宴)’ 행렬을 따라 육지에서 들어온 광대 남성과 송당 광산 김씨 집안 딸의 애정담으로, 신분 차이로 인한 비극적 서사로 정

리된다. <원당할망>의 경우도 애정담의 서사로 시작하지만 ‘여성 무업 실패담’을 포함한다. <원당할망>은 ‘원혼’ 서사 유형의 주요한 의례 유형인 ‘기제사’를 거부한다. 이는 여성 무업 활동을 천시한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맺은 조상’ 관념에서 정리하였던 것처럼 <원당할망>을 제외한 다른 ‘맺은 조상’ 조상신본풀이의 경우, 자손 없이 죽은 경우이거나 혈연 조상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으나 끝내 원혼으로 남겨진 경우이다. 이러한 서사를 형성한 ‘원혼’의 신격들은 조상 의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로 거듭 나면서 조상신에 좌정한다. 이 유형의 경우 한국 무속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 관념인 ‘원혼’ 관념을 공유하며 이를 강력한 서사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맺은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 구조와 ‘원혼’ 관념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광청아기본>을 들 수 있다. ‘맺은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위하여 <광청아기본>을 사례로 들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본다.

<광청아기본>은 대표적으로 구좌읍 김녕리 지역의 송씨 집안을 수호하는 신격으로 전승하고 있다. 실제 전승 현장에서는 송동지 영감과 동행했던 한씨 전주 집안에서도 동일한 조상신을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p>70)</sup>

본고에서는 ‘안사인 심방 구연본’을 근거로 ‘맺은 조상’ 유형의 본풀이 구조 분석과 원혼 관념의 교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sup>71)</sup>

먼저 <광청아기씨> 신앙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정리된 내용은 실제 신앙 양상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은 ‘안사인본’에 근거한 신앙 개요임을 확인해 둔다. 신앙 개요에 있어서 안사인본이 다른 이본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신앙 대상인 ‘광청아기씨’의 성씨와 의례 양식이다. ‘광청아기씨’의 성씨 문제는 구연자에 따라 제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앙 주체 집안에 있어서도 송씨, 한씨, 손씨 등으로 다양한 전승을 보여주기도 한다.

70) 자료로 첨부한 <자료 1>에서도 한씨 집안에서 전승하는 <광청아기본>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71)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28쪽. 서사구조로 보아 현재 전승하는 <광청아기본>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전하는 여러 이본 중 채록 시기가 가장 이른 안사인심방 구연본이다. 채록 시기가 이른 가치가 있으나 실제 신앙의 전승 지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광청아기씨’ 신앙의 중심 지역인 김녕리를 포함하여 구좌읍 일대를 기반으로 무업을 이어온 이중춘 심방과 서순실 심방 등이 구연하는 본풀이이다. 포괄적으로 ‘김녕리본’이라 칭할 수 있다.

[표2] <광청아기씨> 신앙 개요

		<광청아기본> 안사인본
신앙발생지역		동김녕(現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배경 시기		출륙금지령 시기
신앙 대상		광청아기 광청일월(허정승 따님아기)
신앙 주체		동김녕 송씨 집안의 자손
신앙전승방식		동김녕 송씨 집안의 자손
의례	민간 신앙 (常時)	서대상지(대바구니) 안에 열두물색(명주 등 여러 가지 고운 천) 담아 상고팡(안창고)으로 우망(모신다)
	巫式 (굿)	스당클에 열두 석시 중당클에 으숯 석시 얏인제에 삼 석시, 철갈이
	儒式 (제사)	삼명일(명절), 기일제사
신앙의 기능		자손의 번성과 벼슬, 재물, 명과 복을 만대유전

‘안사인본’은 의례에 있어 특별함을 갖는다. 본풀이에 ‘광청아기씨’가 요청하는 의례가 드러나는데, 열두 물색을 담은 서대상자-오합상자를 상시(常時)로 상고팡(안창고)에 모시는 방식이다. 이 의례는 ‘월혼’에 대한 영혼관과 ‘말명 상자’에 대한 신앙 관념이 교류된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두 물색’은 ‘안사인본’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새각시놀이’에 근거한 것이다. 본풀이에서 ‘광청아기씨’는 송동지영감에게 ‘새각시 옷 바꿔 입기’를 제안한다. 혼례복으로 성장(盛裝)한 채 앉아 ‘새각시놀이’를 제안하는 ‘광청아기씨’는 전설 유형 중 ‘바스라짐’ 신부의 모습이다. 밤 늦게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마치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술상을 준비해놓고 있으며, 새각시놀이라는 이름으로 밤새 성적 유희를 할 것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은 제주도 다른 본풀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로,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전승하고 있는 월혼 설화 유형이 전래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물색을 보관하는 ‘상자’는 한민족 고유의 조상 의식 중 하나로 전승해 온 ‘말명 상자’와 신앙 관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육지와와의 교류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원혼형 조상신본풀이에서 ‘물색을 담은 상자’에 대한 화소는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김녕리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광청아기본>에서도 ‘광청아기씨’는 물에 빠져 목숨을 잃고 ‘오합상자’는 배에 남겨져 제주도로 들어와 송동지 영감의 세 딸에게 흥함을 주는 매개체로 역할한다. 이외에도 와산리 무업과 연관된 <이씨 할마님> 본풀이의 ‘조상 책갑’이나, 신격과 연관된 하도리 <이씨 하르바님> 본풀이의 ‘오합상자’ 등은 ‘말명’의 원 개념인 무업과 연관된 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맺은 조상’ 유형의 본풀이에서 한반도와와의 교류 양상이 서사로 드러나는 것을 넘어 조상신본풀이 형성에 있어 근원적 신앙 관념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사인본’에서는 송동지의 셋째 아들을 ‘광청아기씨’의 양자로 입양시켜 제사의 주체를 분명히 세운다. 유식 의례인 제사의 주체를 세우면서 ‘광청아기씨’는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맺은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유형 중 <절터왓당>의 내용 중에 ‘조상당’에 대한 언급이 있어 주목하게 된다. 신평리 강씨 집안 사람들이 ‘절터왓’ 앞의 당에 다니면서 수중고혼이 된 ‘미암절 육관대사’를 모시던 당이다. 이러한 조상당의 경우를 조상신본풀이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맺은 조상’의 경우는 ‘신평리 원당할망당’, ‘혈연 조상’의 경우는 <고전적 본풀이>와 연관된 명도암의 ‘도육남발당’, 신천리 ‘현씨일월당’ 등이 본풀이 내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태운 조상’의 ‘선씨일월’ 같은 경우도 안씨 집안에서 다니던 조상당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조상신 신앙과 당 신앙의 상관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근거가 된다. 이 논의는 이후 당신본풀이와의 상관성에 대한 항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맺은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 자손과 만나 ‘조상 맺음’하게 되는 내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 내력의 배경에 조선 중기 이후 제주도에 실재하였던 역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전승하는 조상신 신앙 중 ‘맺은 조상’ 관념의 조상신 신격이 가장 최근까지 새롭게 형성하면서 조상신 신앙의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조상신 신앙이 변모와 유동성을 갖고 끊임 없이 변화하고 확산해 가는 특성의 신앙 관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조상신 신앙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금까지도 새로운 신격을 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sup>72)</sup>

### (3) '태운 조상' 조상신본풀이

'태운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는 제주도에서 두드러지는 '조상 맺음'의 관념으로 조상신 신앙 관념 중 가장 근원적이고 토착적인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태운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는 뱀, 솔, 미륵 등의 자연신앙적 신격이 좌정한 내력을 담고 있다.

이 유형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본풀이 유형은 뱀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큰 맥락으로 뱀신앙이라 할 수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흘리 안판관> 본풀이의 신격과 <나주기민창본>, <진도할망> 등의 신격의 차이이다.

<선흘리 안판관>의 신격은 제주도 고유의 뱀신앙에서 전승해온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귀는 작박이요 몸은 머들인 부군"으로 토속적인 '귀달린 뱀'을 신격으로 모시는 경우이다. 이원진의 『탐라록』에도 "제주 땅에는 뱀·독사·지네가 많은데, 만약 회색(灰色)뱀을 보면 자귀[遮歸]의 신이라 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서술이 있다.<sup>72)</sup> 여기서 토속적인 '회색뱀'을 신격으로 거론하고 있다. <선흘리 안판관>에서의 신격은 이러한 토속적인 성격의 뱀을 신앙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자연신앙 신격이 취하는 '현몽(現夢)'을 통한 발화(發話) 양상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한 '태운 신앙' 유형인 <나주기민창조상본>과 <진도할망>의 경우는 육지에서 유입된 '뱀신앙'으로 상이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육지에서 들어오는 뱀들의 경우는 '천구아구 데멩이', 즉 큰구렁이의 형상으로 토속 신앙의 신격과는 다른 형상을 드러내면서 신앙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신은 '현몽(現夢)'을 통한 발화(發話)를 취하면서 신앙민과 '조상 맺음'을 하고 좌정한다. 이 신격은 입도의 과정 자체가 제주도민의 파선(破船)을 막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상 맺음'의 동기를 형성한다.

입도한 이후에는 토속적 뱀신앙과 다시금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 '들고 남'이라는 특성이다. 토속적 뱀신앙과 유입된 뱀신앙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

72) <자료2> 참조. 2022년 4월 19일 이용옥 심방 자택에서 진행한 면담 조사 중 새로운 조상신본풀이가 확인되어 현장 조사 자료로 첨부한다.

73) 이원진, 김찬흡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25쪽.

민족 고유의 ‘업신앙’과 동일한 신앙 관념이다. ‘혈연 조상’ 유형의 <고대장본> 중에도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본풀이가 있다. <선흘리 안판관> 집안의 ‘태운 조상’이 고대장 집안으로 옮겨가는 내용이다. ‘태운 조상’이 옮겨 간 집안은 집안의 번영과 자손의 번성을 얻는다. 이는 반대의 의미도 갖는다. 조상신의 ‘배타적 고유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태운 조상’의 성격은 대부분 보편적인 존재이다. ‘솔’이나 ‘뱀’, ‘미륵’은 모두 특정한 것으로 지칭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 존재들이지만, 특정한 자손과의 ‘조상 맺음’을 통하여 특정 자손에게만 ‘배타적인 고유성’을 갖는 ‘조상’이 되는 것이다.

‘태운 조상’ 유형의 본풀이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온 신앙 관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혈연 조상’이 가문의 수호신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기 이전부터 특정 가문의 수호신으로 좌정해 왔던 자연신앙의 성격들에 대한 신앙 관념으로부터 조선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담아내는 시기의 신앙 관념까지를 포함한다. <선흘리 안판관>에서 보이는 토속적 뱀의 형상, <이집 하르바님본>에서 보이는 ‘오합상자’라는 조상 의례 양식 등의 증거물을 통하여 이 신앙 관념의 고형성(古形性)과 적층성(積層性)을 확인하게 된다.

### 3)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본고는 앞에서 조상신본풀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조상신 신앙을 구성한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 등의 신앙 관념 구분과 동일한 기준이다. 구분한 결과로 보았을 때 ‘혈연 조상’ 유형의 우세성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갖는 특별함의 근거에 보편적 조상신앙 관념이 존재해 왔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상신앙의 맥락은 그간 제주도 무속 신앙 내 가장 토착적 신앙으로 인식되어 왔던 당 신앙에도 공히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장주근, 현용준 등 당 신앙을 조상신앙적 관점에서 서술했던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본고는 당 신앙과 조상신 신앙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신본풀이에 조상신본풀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구분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앞서 정리했던 조상 관념의 특성을 보았을 때 당신본풀이에서는 조상신본풀이와는 달리 ‘혈연

조상' 유형을 찾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맺은 조상'과 '태운 조상'의 유형의 당신본풀이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질적인 확인을 위하여 현재 전하는 당신본풀이의 종합적인 구분과 그 결과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 작업은 조상신 신앙과 당 신앙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초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당신본풀이는 '조상 맺음'의 내용이 본풀이에 드러나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신들의 이야기'와 '신과 인간의 이야기'로의 구분이다. '신과 인간의 조우'가 일어났는가의 여부이다. 조상신본풀이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신과 인간의 조우'에 있다. '특정한 조상신과 자손이 갖는 만남-맺음'이라는 구조가 조상신 신앙의 특성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며, 그 만남의 '태워진' 의미를 '조우'로 표현하고자 한다. 더욱 정확히 말한다면 '배타적 조우'이다. 배타적이기 때문에 특정 집안의 조상신으로서 고유한 특성을 형성한다.

당신본풀이에서도 이러한 '신과 인간의 조우'가 드러나는 유형이 있다. 물론 모든 당 신앙은 당신과 신앙민의 '관계 맺음'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본풀이가 이러한 양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영역이라 생각한다. 이는 신화 내적 구조에 신앙민이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신과 인간의 조우를 핵심 구조로 삼는 당신본풀이는 전도 차원에서 확인되는데,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구조에 대한 상호 공유 수준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구분은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상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 분석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서사 구조와 조상당의 성격을 모두 공유하는 지역이다. 공통적으로 사신(蛇神)의 성격을 갖는 당이 많다. 외도동 두리빌렛당, 고산리 당목잇당 등이다. 처녀당의 성격을 갖는 감산리 호근이무르여드렛당도 있다. 그외 괄지분향당, 금덕리(現 유수암리) 검은뎃잇당, 함덕리 서물당 등도 조상신의 성격까지 공유하는 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서사 구조만 공유하는 지역이다. '조우'의 화소만을 공유한다면 더 많은 당이 포함된다. 김녕리의 운동지당, 신촌리 일뤼당 등 미륵당의 대개가 조우의 화소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흥리, 삼달리, 신흥리, 가시리 등에서도 확인된다.

셋째, 조상당의 신직을 공유하지만 ‘조우’의 화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당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전적따님아기씨를 모시는 명도암 도육남발당이 속하고, 신천리 현씨 일월당, 신평리 원당할망당·절터왓당·서당팻당, 덕수리 광정당, 협재리 수덕당 등이다.

이 외에도 서사 구조나 신직을 공유하지는 않으나 여성 원혼을 신의 성격으로 갖는 처녀당 계열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계리의 오씨아미당이나 마라도의 애기씨당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신앙의 교류가 본풀이의 유사성으로 드러난 경우를 보면 조상신 신앙과 당 신앙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들의 이야기’와 ‘신과 인간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는 당신본풀이에서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후대적인 것인가는 좀더 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의미는 ‘인간의 이야기’가 구조 내에 구성되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는 ‘조상신본풀이’가 반드시 ‘당신본풀이’의 후대적 형성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선제적인 것으로 보이는 ‘조상당’에서 공동체인 ‘마을 본향당’으로 전화한 흔적이 보이는 본풀이는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신앙과 이를 반영하는 신화 형성이라는 입장에서 신화에 내재된 신과 신앙민의 구조를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또한 이 문제는 실재적인 차원에서 제주도 이주 세력과 자연 마을 형성의 역사적 관계성에 대한 논의와도 연관된다.

본고에서는 ‘신들의 이야기’와 ‘신과 인간의 이야기’로 구분되는 당신본풀이의 구체적 양상을 정리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신화학적 입장에서의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비교는 이후 논의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구분을 위한 자료는 다음의 두 책으로 제한한다. 지역을 총괄하며 당신본풀이를 수록된 자료가 두 책에 한정된다는 점과 함께, 이 자료만으로도 방대한 원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명과 당신명 등 기초적인 정보만 제시된 당은 제외하고 본풀이가 제시된 당에 한정하여 목록을 구성한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2)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은 각 지역별 당 목록을 통하여 발간 당시까지 확인된 제주도 전반의 신당을 정리한 의미를 갖는다. 목록에 수록한 신당 중 신당 내력과 제일 등 당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을 갖춘 본풀이를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대정읍, 한경면, 한림읍, 애월면 등의 경우는 거의 본풀이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 책에 실린 자료를 조사하던 1960~70년대부터 이미 서쪽 지역의 무속 신앙 전승의 약화가 두드러졌던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조사 작업이 이 자료를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이 폐당되는 상황 등의 발생으로 자료 목록이 축소되어가는 양상이다.

2)는 동일 지역의 다양한 이본을 모두 수록하여 다양한 전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1)에서 제외된 마을의 본풀이를 추가하여 제주도 전반의 전승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지만 이 자료 역시 1)과 같이 남원읍, 중문, 대정읍, 한경면 등의 자료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자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주도 서쪽 지역의 무속 전승 약화 양상을 확인하게 된다. 다음은 정리한 자료의 목록이다.

[표3] 조상 유형에 따른 당신본풀이 목록

(당명의 \*는 '조상당' 내력)

	유형	지역		당명	특징	원혼	출처
1	혈연조상	제주시	봉개동	명두암 도육남발당*	동이풀이	√	진
2		성산읍	신평리	서당팻당*	오침 조상당		진
3		안덕면	덕수리	새당*	참봉일월, 불미집 조상신		진
4		한림읍	협재리	수덕당, 흥칫당*	흥칫당		진
5			비양도	영감당	선양일월		진
1	맺은조상	제주시	삼도동	각시당	불도일월/현몽		현/진
2			이도동	미력당*	불도일월/ 현몽/ 포태		진
3			회천동	세밋당	산신일월		현
4			용강동	용강분향			진
5			월평동	다라곶분향당	산신일월/현몽		현/진
6			도두동	도두분향 오름허릿당			진
7		조천읍	신흥리	신흥분향당	원혼	√	진
8			함덕리	쫓나니므르할망산[墓]	불도일월/삼승할망		진
9			북촌리	가릿당			현
10			와흘리	노늘당	산신일월		현
11			와흘리	괴평동분향당	산신일월		현
12			와산리	눈미웃당(불뚝당)	불도일월/미력/현몽		현/진

유형	지역		당명	특징	원혼	출처	
13	맷 은 조 상	조천읍	교래리	드리본향당	산신일월		현
14		구좌읍	동북리	동북본향당	원혼/ 현몽	√	현/진
15			동북리	동북본향당	송씨하르바님		현
16			김녕리	괘네깃당			현/진
17			행원리	남당			현
18			세화리	세화본향당	김침지 큰딸 홍협		현/진
19		성산읍	온평 신산리	온평 신산본향당	물아래서 7일 살다 멧두 들고 나온 튼영감		현/진
20			삼달리	삼달본향당	홍보일월/책불일월		현/진
21			신천리	신천본향당*	현씨일월		진
22			신천리	토산당	가지가른당		진
23			신평리	신평하천본향당	오침, 강침, 양침		현/진
24			신평리	원당할망당*	원당할망/강침 김씨할망		진
25			신평리	절터왓당*	강침 오씨할망		진
26			수산리	진안할망	√		진
27		표선면	표선리	표선본향당	현씨 한집, 홍씨상단골		현
28			하천리	하천본향당	현씨 한집-표선가짓당/송씨 상단골		현
29			세화리	세화본향당	현씨 한집-표선가짓당/현씨 상단골/현씨 김씨 정씨 강씨		현/진
30			가시리	토산당	가지가른당	√	진
31			가시리	당나미 문씨아기당	산신일월/ 호근리 허포수		현/진
32			성읍리	토산당	가지가른당	√	진
33		서귀포시	서귀리-보 목리-신상 하효리-토 평리	예촌 보목 효돈 토평본향	밀양박씨-설촌조		현
34			서귀리 동흥리	서귀 동흥 본향당	김봉태		현/진
35			서호리	토산당	가지가른당	√	진
36			토평리	여드렛당	가지가른당	√	진
37			동흥리	홍로본향	김봉태		진
38		중문	색달리	색달리본향당	김형방 상단골		현
39		안덕면	상창 창천 감산리	상창하르방당	유포수-김포수-강포수 단골		현
40			감산 창천리	감산 창천 일렛당	최씨		현
41			감산리	호근이모르여드렛당	조천 이훈장따님아기 이씨할망/정의 오좌수	√	현
42			사계리	고느락당	신분차이로 이루지 못한 사랑의 원한으로 자살한 오씨아미	√	현
43			사계리	골르락당/오씨아미당	향교 술심부름 하던 원혼	√	진
44			덕수리	축일당	본향에서 자살한 할망 원혼	√	진
45		대정읍	마라도	애기씨당	원혼/ 애기업개	√	진
46		한림읍	수원리	수원본향/ 개당	배 부리는 단골/개와 함께 외로이 살다 죽어 동네에서 모신 당	√	진

	유형	지역		당명	특징	원혼	출처
47	맺은조상	애월면	고내리	셋치영감당	납세를 면하게 해준 고치할으방		진
48			금성리	알당	선양일월/ 김훈장네 상고팡/육지에서 온 조상신		진
49			수산리	수산분향	원혼/ 자손없이 죽은 김씨할으방	√	진
50			금덕리	금덕리분향*	현몽/홍좌수집안 조상신		진
51			금덕리	할망당, 유수암당	남대문 밖, 현씨영감/ 굴에서 죽고 당 설립/이성굴	√	진
52			금덕리	종신당, 유수암당	현몽/ 김장수, 녹대벗인 말(천마)/이형상		진
53			표선면	토산리	토산알당/여드렛당	나주금성산/토산리 강씨, 한씨, 오씨	√
54		중문	도순리	큰당	스님당, 나주 금성산 여리화주		진
1	태운조상	제주시	화북동	운동지영감당	미륵		진
2			외도동	두리빌렛당	큰구렁이-김동지/이형상		진
3		조천읍	신촌리	일렛당	미륵		현/진
4			함덕리	알가름 서물할망당*	미륵/현몽/김씨 조상당		현/진
5		구좌읍	월정리	월정 분향당*	대구렁이/김첨지/세딸에 홍합	√	현/진
6		성산읍	시흥리	시흥분향당	만주에미/물색웃	√	현
7		남원읍	신하예 보목리	예촌분향당	대맹이/허좌수 집안 멸족	√	현
8		안덕면	동공서광 리	동서광분향당*	행기/양종록/고씨부인/고씨 할망		현/진
9		한경면	고산리	당목잇당	황구렁이		진
10			고산리	차귀분향	황구렁이 한쌍 적구렁이 한쌍		진

‘혈연 조상’ 유형은 정리에 앞서 추정하였듯이 당신본풀이 구분 중 가장 작은 비중으로 5편이 확인된다. 이 중 4개 당이 ‘조상당’의 내력을 갖는다. 나머지 하나는 ‘영감당’으로 생업조상신의 의미이기 때문에 ‘혈연 조상’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조상당’은 ‘혈연 유형’의 당에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조상당’의 의미는 신앙민을 중심으로 특정 집안에서만 다니는 경우이며, 각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 유형은 모든 조상 관념이 고루 포함된다. ‘조상당’의 내력을 본풀이에서 드러내고 있는 경우는 12편 정도이다. 처음 당 설립이 ‘조상당’의 성격을 가졌으나 많은 경우 ‘공동체당’으로 확장되어 전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운 조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10편 정도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운 조상’ 유형은 당신본풀이에서도 조상신본풀이와 동일하게 ‘뱀신앙’의 본풀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조상신본풀이의 ‘태운 조상’ 성격인 ‘뱀, 미륵,

솔'이 당신본풀이에서도 동일하게 '뱀, 미륵, 행기(눅그릇)'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두 신앙 갈래 간 신앙 관념의 유사성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맺은 조상' 유형이 결국 당신본풀이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한다. 당 신앙은 신격과 인간의 '조상 맺음'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격신의 양태를 보이지만 인간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존재인 신격과 신앙민이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새로이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신본풀이의 '맺은 조상' 유형은 조상신본풀이의 '태운 조상' 유형과 유사하다. 상창하르방당의 자손들은 '조상'에게 "우리 태운 임신이건 좌기하시오."라고 한다.<sup>74)</sup> 당신에 대하여 갖는 신앙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당신본풀이는 좌정처를 찾기 위한 당신의 다양한 '노정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노정기'에 '자손'과 연관되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즉 '당신'은 좌정처를 찾기 위한 다양한 내력을 갖지만 그 내력은 '공간'에 대한 탐색이지 특정한 '자손'을 찾는 과정은 아닌 것이다. 당신과 신앙민의 맺음에는 특별한 내력이 담기지 않는다. 자손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찾아온 '조상'을 수용할 뿐이다. 앞서 조상신 신앙의 조상 유형을 구분하면서 '태운 조상' 유형이 갖는 일종의 법칙을 정리한 바 있다. 다시 짚어 보면 '인연 맺음'의 선택권이 '조상'에게 있다는 점, '조상'의 선택에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본풀이에서는 '맺은 조상' 유형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 당신이 좌정처를 정하고 의례의 모든 규칙을 자손들에게 전한다. 자손들은 그 결정에 따를 뿐이다.

당신의 '맺은 조상' 유형은 인격신적 양태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신격'이기 때문에 '현몽'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조상신의 '태운 조상' 유형과 유사하다. 반면 조상신의 '맺은 조상' 유형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조상 맺음'의 '내력담'은 대부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신격과 인간의 관계 맺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신격을 수용하는 데에 특별한 내력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조상신 신앙에서 '맺은 조상' 유형은 인간의 원혼이 신격으로 좌정하는 경우이다. 인간 세상의 존재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변화하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상신 신앙의 '맺은 조상'에게는 특별한 내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당신본풀이에서는 당

74)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64쪽.

신이 ‘처음 마주친’ 대상을 상단골의 위치 혹은 ‘그영신네’로 칭하는 매인심방의 역할을 하게 한다.

조상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당신본풀이를 구분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면 조상신본풀이의 구분 결과와 유사한 조상 관념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특성을 마무리짓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각 유형별 특성을 간략히 정리한다.

### (1) ‘혈연 조상’ 당신본풀이

‘혈연 조상’ 유형의 당신본풀이는 ‘조상당’이 기본을 이룬다. 특정 집안에서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으로 구분된 5편은 후사 없는 집안 조상, 생업 수호신격, 내력은 없이 조상당으로만 전승하는 경우로 나뉜다.

후사 없는 집안 조상을 모신 경우로 명도암의 <도욕남발당>과 협재리의 <홍치당(홍씨집안당)>이 있다. <도욕남발당>은 조상신본풀이인 <고전적본풀이>와 연관된 신격을 모신 당이고, <홍치당>의 경우는 홍씨 집안에서 무업 활동을 하던 조상을 함께 모시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성’이면서 ‘무업’과 연관된 내력으로 ‘후손’이 없는 경우는 조상신본풀이에서 ‘실패’ 유형의 경향을 띠고 있는데 <홍치당>에서는 자세한 내력이 전승하고 있지 않아 확인은 어렵다. 다만 두 당신본풀이 모두 후손 없이 죽은 조상을 마을의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시는 당으로 전해진다.

생업 수호신격으로는 덕수리의 <새당>과 비양도의 <영감당>이 있다. 두 당 모두 ‘참봉일월’ 즉 ‘도채비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당>에서는 대장장이 집안의 생업 수호신으로, <영감당>에서는 배 부리는 집안의 ‘선양일월’로 동일한 신격의 각기 다른 직능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앞서도 정리하였듯이 당신본풀이에 있어서 ‘혈연 조상’ 유형으로 전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양상이다. 그렇지만 ‘혈연 조상’ 유형의 당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공동체의 당으로 전환되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맺은 조상’ 유형에서 신격과 상단골의 성씨가 같은 경우를 보면 ‘혈연조상’ 유형의 당이 전승한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 ‘맺은 조상’ 당신본풀이

‘맺은 조상’ 유형의 당신본풀이는 조상신본풀이 구분 중 생업 영역의 ‘혈연 조상’ 유형, 원혼 내력담의 ‘맺은 조상’ 유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생업 영역의 신격은 직능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원혼 내력담의 경우는 좌정 동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또한 조상신본풀이에서 보이는 ‘결출한 조상’을 위하여 그 수호 아래에서 집안의 번성을 꾀하거나, 원혼을 위하여 그로 인한 위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신앙 관념과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혈연 조상’ 유형의 ‘생업 영역’과 유사한 내력을 다루고 있는 당신본풀이는 ‘불도일월’, ‘산신일월’, ‘홍보일월’ 등 조상신본풀이 중 교술무가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앞서도 제기하였듯이 이 유형의 경우 조상신본풀이의 ‘태운 조상’과 유사한 관계 맺음을 하며, ‘현몽’의 방식으로 자손 앞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원혼담’의 내력이 ‘맺은 조상’ 유형의 당신본풀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흥리의 <볼래낭당>, 신천리의 <현씨일월당>, 신흥리의 <원당할망당>, 수산리의 <진안할망당>, 토산리의 <토산 알당>, 감산리의 <호근이므르여드렛당>, 사계리의 <ㄱ느락당>, 마라도의 <아기업개당> 등은 모두 여성 원혼을 신격으로 모시는 대표적인 당이다. 미혼의 여성으로 후손이 없이 죽은 신격들이며, 공동체를 위하여 인신공희(人身供犧)로 바쳐진 존재들이기도 하다. <ㄱ느락당>의 경우는 신분 차이로 인하여 자살로 끝난 비극적 애정담을 담고 있다.

‘맺은 조상’ 유형 중 ‘원혼’은 대부분 인간이 당신으로 좌정한 경우이다. 좌정의 동기가 ‘원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상신의 ‘맺은 조상’ 유형 중 원한을 가진 미혼의 여성 신격과 동일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격의 경우 ‘금남(禁男)’ 등의 금기가 존재할 수 있어 마을민 모두를 수호해야 하는 본향신의 역할을 하기 어렵지만 마라도 <아기업개당>이나 신흥리 <볼래낭당> 등 본향신으로 좌정한 경우도 있다. 이는 본향당 전승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야 할 조건이다.

이 유형 중 신천리의 <현씨일월당>과 신흥리의 <원당할망당>은 조상신본풀이 <예촌 양씨일월>, <원당할망>과 관련이 있는 당신본풀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와 유사하게 조상신본풀이와 관련한 당신본풀이 전승 중 하나로 선흥리의 <탈남밭당>이 있다. <탈남밭당>은 일렛당으로 ‘일렛할망, 아미도령, 산신’을 함께 모시는 것으로 전승하고 있다. 이 중 ‘아미도령’에 대한 전승이 조상신본풀이의 구성을 갖는다. 서사 내용을 간략히 보면, 선흥리의 김동지 영감이 육지에 장사 갔다가 아기

씨를 몰래 데려와 방의 병풍 뒤에 숨겨 두었다. 밥 시중과 세숫물 시중을 드는 하인이 예전과 달라진 김동지 모습에 의심을 품고 김동지 영감의 큰부인에게 이르고, 들통이 난 아기씨는 놀라서 바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갔다. 선흘곶 깊은 숲으로 도망친 아기씨는 며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찢어진 물색만이 발견되었다. 그 후로 마을에서 그 아기씨의 원혼을 위로하고자 당에 모시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다.<sup>75)</sup> 목록 구성을 위하여 위에서 자료로 제시한 두 책 모두 <탈남밧당> 본풀이는 실고 있지 않다. 2014년 <제주학연구소>에서 발행한 『濟州學』에는 이 내용이 실려 있다.<sup>76)</sup> 필자가 이 자료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탈남밧당> 당맨 심방이었던 김순아 심방에게 문의하여 들은 답변은 “탈남밧당은 특별한 본풀이가 없다.”는 것이다. 신앙민 사이의 전승과 당맨 심방의 전승에 차이가 있다. 김순아 심방의 경우, 본인이 그 당을 매었을 당시는 이미 본풀이를 구연하는 규모의 당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액맥이 중심의 비념으로 당제를 했던 기간이 오래 되면서 이러한 전승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천읍과 구좌읍에 전승하는 조상신본풀이의 영향으로 이러한 당본풀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여러 당에서 보았듯이 원혼담을 당신본풀이로 삼는 대부분은 ‘여성 원혼’을 신격으로 모시고 있다. 그런데 전승하는 본풀이 중 유일하게 ‘남성 원혼’을 신격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다. 애월읍 수산리의 <수산본향당> ‘김씨하르방’이다. 특별한 내력은 없으며, 중심 서사가 ‘김씨하르방이 자손 없이 팽나무를 한 그루 심고 죽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로 가서 김씨하르방을 위하였다’는 내용이다. ‘자손 없이’ 죽은 원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경우를 통하여 확인한 것을 정리하면, ‘맺은 조상’ 유형의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 중 특히 원혼담의 경우는 신앙민의 영역이 ‘집안’과 ‘마을 공동체’로 구분되더라도 동일한 신앙 관념이나 좌정 동기를 갖는다는 점이다. 생업 수호신격의 경우, 당신본풀이에서는 ‘혈연 조상’ 유형과 좀더 유사한 경향을 갖는

75) 2022년 4월 19일 이용옥 심방 자택에서 이루어진 면담 조사 내용 중 하나이다.

76) 강정식, 「선흘리의 마을신앙」, 『濟州學』 제8호, 2014, 94~97쪽. 1994년 『백록어문』에 실린 내용을 오류를 바로 잡아 다시 게재한 자료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것과는 달리, 원혼담의 경우는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모두 ‘맺은 조상’ 유형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외 몇 가지 특이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당신본풀이 내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다.

먼저 북촌리 <가릿당>과 와흘리 <노늘당>의 경우이다. 이들 당은 <송당본향당> 계보에 속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송당본향당> 계보의 당신본풀이가 ‘신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달리 이 두 당은 신앙민과 조우하는 내용의 본풀이를 전승하는 경우이다. <송당본향당> 계보 중 당신이 반드시 신앙민과 조우하는 경우는 <괘네깃당>이다. 물론 이 경우도 대부분의 서사를 ‘신들의 이야기’로 이어 오다가 좌정 후인 후반부에 좌정처의 이동과 제물에 대한 ‘거래’를 위하여 신앙민과 만난다. 이러한 점에서 <가릿당>과 <노늘당>의 경우처럼 신앙민과의 조우가 주된 서사를 이루고 있는 점은 특별하다.

다음은 토산리 <토산 알당>에 대한 내용이다. <토산 알당> 본풀이의 후반부에 당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조상신본풀이에 등장하는 조상신에 대한 의례 방식의 내용이 보인다. “얼(魂)은 여리고 신(神)은 벋든 조손 가정(子孫家庭) 당하여 가민 큰곳에 열두석 노념 받고 앓인제 제삼석 노념 받던 한집입네다.”의 내용이다. 공동체 신앙 의례에서 개인 신앙 의례 양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예이다. 토산리 신앙민이나 이 지역과 인연이 있는 집안에서 굿을 할 경우, 토산 알당과 웃당의 당신을 함께 ‘놀리는’ ‘애기 놀림’과 ‘방울친’이라는 제차가 있다. 토산당의 영향은 인근 지역에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며, 통혼권의 확장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토산당과 관련한 의례가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신앙 환경적 배경으로 인하여 신앙 관념과 의례 양상의 넘나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평리와 신산리가 함께 모시는 본향당의 경우이다. 이 당신본풀이에는 이 당의 첫 매인심방인 ‘문씨영감’에 대한 내력이 함께 전승하고 있다. 문씨영감은 본향당신인 ‘멩호부인 멩호안전’의 흥험으로 인하여 일곱살 때까지 구덕에 누워만 있었다. 그러다가 바다에 들어가 ‘낮도 일뤼 밤도 일뤼’[7일간] 후에 ‘한 손엔 유리잔, 한 손엔 유리대 삼멩두’를 쥐고 살아서 돌아왔다. 그 후 문씨영감은 이 당의 매인심방을 맡았다가 죽어서는 부름웃도로 좌정하였다는 내력담이다.

무업을 걷기 전에 어릴 적부터 무병을 앓았던 것은 초공본의 ‘유씨대선생’과 같

다. 그렇지만 ‘삼맹두와 유리로 만든 삼주잔과 유리대’를 바다 속에서 손에 쥐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내력으로 이해하게 된다. 단순히 ‘봉근 맹두’[우연히 주운 맹두]로 보기에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력이 지나치게 소략한 관계로 현재 상황에서 논의를 진전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별한 지점으로 짚고, 이후 다른 전승이 확인되어지면 논의를 이어가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은 조상’ 유형의 당신본풀이는 생업 수호신격과 원혼 내력담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신격의 직능과 좌정 동기 등 본풀이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의 측면에서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혈연 조상’ 유형에 이어 ‘맺은 조상’ 유형에서도 두 신앙 갈래의 본풀이와 신앙 관념의 유사성을 파악하게 된다.

### (3) ‘태운 조상’ 당신본풀이

‘태운 조상’ 유형의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신격의 동일함에 있다. 조상신본풀이의 ‘태운 조상’ 유형의 신격은 ‘뱀, 미륵, 솔’이다. 당신본풀이의 ‘태운 조상’ 유형의 신격은 ‘뱀, 미륵, 행기(눅그릇)’이다. ‘솔’과 ‘행기’의 차이가 있지만, 식생활에 쓰이는 생활 도구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뱀’을 신격으로 삼은 본풀이가 ‘태운 조상’ 유형의 당신본풀이 중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조상신본풀이와 동일한 경우이다. 앞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양상은 제주도의 ‘뱀신앙’이 토착적인 신앙과 유입된 신앙을 모두 전승하면서 강한 영향력을 끼쳐 왔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태운 조상’ 유형의 당신본풀이가 조상신본풀이와 다른 점이라면 토착적 뱀신앙의 신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본풀이의 서사가 육지와 교류를 근거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외도동 <두리빌렛당>은 조천리 <새콧당>과 <나주기민창조상본>의 이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두리빌렛당>의 경우 전반부에 ‘이형상 목사’의 ‘골총[古塚] 순력’과 ‘김녕 사굴(蛇窟)’ 전설이 엮여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외에도 모두 유입된 뱀신앙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어, 현재 제주도에 확산된 뱀신앙의 연원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나주기민창조상본>과 <토산알당본>과의 상관성 속에서 해명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륵’을 신격으로 삼는 경우도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에 있어서 ‘태운 조상’ 유형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진성기가 보고한 화북의 <운동지영감당>은 조상신본풀이 <선씨일월본>과 ‘동일 지역’의 ‘동일 당’으로 추정되지만 전승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운동지영감당>은 ‘조상당’으로 지금까지도 인근 지역 윤씨 집안이 모시고 있다. 이 당에 갈 때는 창호지를 갖고 가서 ‘미륵’에는 송낙을 바치고, 미륵 옆에 있는 운동지 영감의 하인이었던 ‘신조룡이’ 상에는 수건처럼 목에 백지를 돌려주는 의례를 한다.<sup>77)</sup> 또한 <운동지영감당>의 ‘미륵’은 조상신본풀이 중 <절터왓당>의 ‘미양 한동절 부처님’이 파선 당시 깊은 물 속에 빠져 있다가 ‘운동지’에 의하여 건져져서 모신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제주시 화북동과 성산읍 신평리의 서로 다른 내력이 ‘미륵’이라는 요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본풀이 전승 집단인 심방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상신본풀이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구령이가 나타나 파선을 막고 태운 조상으로 들어서는데, 당신본풀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갈래의 서사를 구성하면서 변형되어진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행기’를 모신 <동·서광리 본향당>은 양씨 집안의 조상당으로 처음 당을 설립한 사람의 ‘양중록’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남아 전승하고 있다. 현용준이 보고한 이본의 경우 “엮어놔 보니 뒤에 「양가(梁哥) 태운 조상」이라 새겨졌더라.”라는 다소 의아한 내용이 담겨 있다.<sup>78)</sup> ‘글자’가 새겨진 것이라면 어느 시기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보통 ‘현몽’의 방식으로 신격을 드러내는 ‘태운 조상’의 규칙이 깨어진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승 과정에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보이지만, 생활 도구인 그릇을 ‘태운 조상’ 중의 하나로 관념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신앙 관념의 공유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광리 본향당>은 처음엔 조상당으로 설립하여 ‘양중록’에 의하여 모셔지다가 이후 마을 본향당으로 신앙민이 확장된 내력까지 본풀이가 담고 있다. ‘양중록’이라는 인물은 이 당을 조상당으로 모셔 왔던 ‘양씨 집안’의 ‘혈연 조상’ 유형의 조상

77) 2022년 4월 19일 이용옥 심방 자택 면담 조사 내용 중 하나이다.

78)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75쪽.

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에서 ‘솔할망’이 하천리에서만 보고 되었듯이, ‘행기’를 본향신으로 위하는 당신본풀이의 경우도 <동·서광리 본향당>으로 유일하다. 이렇듯 각기 하나씩의 본풀이만을 전승하는 점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동일한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솔’과 ‘행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과거 하천리와 동·서광리 지역의 지역적 특수 생업군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 4) 조상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는 ‘신과 인간의 조우’라는 특정적 화소를 일반신본풀이 일부와 공유한다. 그런데 일반신본풀이와 공유하는 화소는 배타성이 거세된 ‘조우’이다. 조상신의 특성을 이루는 것이 배타적 고유성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사라지고 나서야 일반신본풀이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배타적 고유성의 배타성이 거세되면서 특정적 고유성이라는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은 없어지고 일반신본풀이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한다.

앞에서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를 ‘조상’ 관념의 유형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의 관념이 두 갈래의 신앙 관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세 유형으로 구분되는 조상 관념은 일반신본풀이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생업 수호신’의 영역으로서 <초공본풀이>는 ‘혈연 조상’ 유형의 조상 관념과 연관된다. <칠성본풀이>는 ‘태운 조상’으로서의 ‘뱀신앙’ 관념과 ‘맺은 조상’으로서의 한반도 교류담을 함께 담고 있다. <스만이본풀이>는 전형적인 ‘태운 조상’의 구조를 드러낸다.

일반신본풀이 갈래에서 주목할 지점은 제주도 고유의 서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조상신본풀이와 유사성을 공유하는 일반신본풀이는 다른 일반신본풀이와 달리 제주도 고유의 서사를 담고 있다. 일반신본풀이의 대개는 육지부 전역에 광포된 설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중 조상신본풀이와 구조를 공유하는 일부의 일반신본풀이는 제주도만의 고유한 서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일반신본풀이 내 변별성을 확보한다.

<초공본풀이의 유씨 대선생>, <칠성본풀이>, <스만이본풀이> 등은 ‘배타적 고유

성’ 중 거세된 배타성이라는 특징을 갖지만, 일반신본풀이 영역 안에서는 다른 일반신본풀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신과 인간의 조우’라는 조상신본풀이의 핵심 구조를 공유한다. 일부 일반신본풀이가 조상신본풀이와 이러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혈연 조상’이 갖는 보편적인 ‘조상 숭배’ 관념은 육지부와 공유하며 수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신본풀이 중 조상신본풀이의 특성과 구조를 갖는 유형은 제주도만의 고유한 화소를 특징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이 육지부의 신앙 관념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토착적 조상 관념을 함께 총화하여 형성된 신앙 관념이라는 것을 밝히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한다.

다음에서는 일반신본풀이 중 <초공본풀이>, <칠성본풀이>, <스만이본풀이>를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의 기준으로 다시금 살펴 본다. 두 갈래 간의 공유의 접점이 적은 만큼 간략한 내용이 될 것이다.

#### (1) ‘혈연 조상’ 일반신본풀이

‘생업 수호신’의 영역으로서 <초공본풀이>는 혈연 조상 유형과 연관이 있다. ‘군웅본판’에 등장하는 다양한 생업 수호신 영역에 심방의 무업 수호신인 ‘당주일월’이 있다. 제주도 무조신의 내력을 풀어낸 <초공본풀이>는 심방의 직업 수호신인 ‘당주일월’의 내력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초공본풀이>는 제석본풀이 유형으로 육지부에서 유입된 신화로 제주도만의 고유한 신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른 일반신본풀이가 광역적 설화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맥락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것은 <초공본풀이> 전반부에 한정된 내용이다. 본풀이 후반부 내용인 최초의 심방이 세워지는 내력은 제주도에 서만 전승하는 고유성을 갖는다. 물론 오랜 전승의 과정 속에서 육지부에 잔존하지 못한 것을 제주도에서만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으로 제석본풀이 전승의 상대적 변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승하는 본풀이에 제한하여 논의를 진행한다면, <초공본풀이> 후반부에서 조상신본풀이와 유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심방 조상인 ‘유씨대선생’은 ‘즈지맹왕아기씨’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 ‘조우’한다. 부모·자식의 인연을

맺고서야 ‘유씨대선생’은 ‘즈지맹왕아기씨’에게 ‘일천기덕 삼만제기’를 받아 최초의 곳 자리에 나선다. 지금까지도 ‘맹두’를 물림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도 중 하나가 부모·자식의 연을 맺는 것으로, 최초의 맹두에 대한 역사가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초공본풀이>가 보여주는 것은 개별 집안의 내력은 아니지만 하나의 생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사 혈연 집단이 형성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내력에서 ‘유씨대선생’은 특정성을 확보한 심방 집단이라는 새로운 생업군을 처음 시작한 생업 시조신으로 좌정하게 되고 심방 집단의 조상으로 수호신의 직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초공본풀이> 후반에 삽입된 ‘유씨대선생’의 내력담은 ‘혈연 조상’ 유형이 갖는 조상신본풀이 구조와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 (2) ‘맺은 조상’ 일반신본풀이

<칠성본풀이>는 ‘태운 조상’의 특성을 갖는 신격이면서, ‘맺은 조상’의 서사적 특성을 함께 공유한다. ‘맺은 조상’ 유형의 특성 중 하나는 육지부와의 교류 양상이 본풀이의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송대장부인과 칠성아기씨들의 ‘조우’, 송대장 부인의 치마폭에 안겨지는 칠성아기씨들의 ‘수용’은 ‘태운 조상’ 갈래에서 살펴볼 <스만이본풀이>에 비하면 특정적이다. 그러나 본풀이 후반에 칠성아기씨가 각처로 흩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미약하던 특정성 조차 완전히 와해된다. 이는 <나주 기민창조상>이 안씨 전주 부인의 치마폭에 안겼다가 다시 조천리 새룻알에 좌정한 것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여기서 ‘조천리 새룻’ 알을 지나는 ‘삼천즙수와 일만어부’의 당신이면서, 안씨와 함께 나주기민창에 갔던 송씨, 박씨 집안의 조상신으로도 전승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본풀이 후반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안씨선조(安氏船主) 상단골(上丹骨) 무어 연양상고팡으로 삼명일(三名日) 기일제소(忌日祭祀) 메 훈 기(一器) 정성(精誠) 받고 즈손(子孫)덜 번성(蕃盛)시겨 동여국이 내 츠지헛던 나쥬ᄇ을 기민창(羅州濟民倉) 무곱섬(貿穀石)에 톨라오던 부군칠성(富君七星)이 뉘옵네다.”<sup>79)</sup> 좌정처와 신직으로 보면 당신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의례를 보면 개인 신앙으로서의 조상신 의례의 내용이다. <칠성본풀이>와 <나주기민창조상본> 모두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변형되는 구조를 보이지

7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96쪽.

만, <나주기민창조상본>의 경우 ‘안씨선조’ 집안의 ‘연양상고팡’에서 정성을 받는다  
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조상신본풀이로서 자리잡게 된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나주기민창조상본>은 함께 실린 다른 자료에 비하여 축원의 내용이 구체적이다.  
이러한 근거로 개인굿 현장에서 채록되었을 가능성이 보이며, 만약 실제 굿 현장이  
었다면 그러한 이유로 더욱 강하게 자손 집안의 특정성이 강조되었을 가능성도 고  
려할 수 있다.

### (3) ‘태운 조상’ 일반신본풀이

<스만이본풀이>는 ‘스만이’가 ‘태운 조상’인 ‘백년해골’을 조우하고 집안에 모셔와  
조상신으로 모시면서 부와 수명을 모두 이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조상신 신앙의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전형적인 ‘태운 조상’ 유형의 조상신본풀이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조상신본풀이가 갖는 기본 특성 중 하나인 자손에 대한 ‘특정성’을 확보하  
지 못하였다. 본풀이 어디에도 특정 집안을 유추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다. 사냥하는 생업을 갖는 중산간 마을의 사냥꾼이라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으로 자손의 집안을 특정할 수는 없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물의 특정  
성을 확인할 수 없다. 조상과 자손 간에 배타적 고유성의 관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신 신앙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해골 숭배 신앙이나 전형적인 수  
렵 생활상을 보이는 등 ‘태운 조상’ 유형의 조상 관념과 동일한 특성으로 자연신앙  
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3. 조상신본풀이와 의례의 상관성

조상신본풀이는 조상신 의례의 규범을 제시한다. 조상신 중 본풀이를 통하여 의례  
를 청하는 경우는 정기적인 조상 의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존재이며, 좌정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상신의 좌정처는 대부분 안고팡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안칠성과 동일한 공간이다. 좌정 공간으로 인한 신앙 관념의 혼성적 양상과 전승의  
변모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직접적 의례 양식의 경우는 기일제사와 같은 유교식

의례와 철같이, 굿 등 무속 의례가 동시에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조상신 의례 규범이 각기 다른 조상신 신앙 관념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조상신 의례에서 핵심이 되는 원칙은 유교식 제사와 같은 정기적인 조상 의례를 중심에 놓고, 이 의례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구분되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크고 작은 규모와 상관 없이 정기적인 의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핵심 원칙을 두고 조상신의 특성에 따라 제향받고자 청하는 의례 형식은 조금씩 달라진다. 전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유형과 서사의 조상신본풀이라도 의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무속 의례인 굿에서 제향 받는 방식은 대부분의 조상신본풀이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청하고 있다.

“풍악으로 나 간장을 풀려도라.”-<구실할망본><sup>80)</sup>

“울랑국 범천왕 궁전궁납 소리로 일천간장(一千肝臟) 풀리웁고”-<양씨아미본><sup>81)</sup>

“어야뒤야 살강깃소리 진바당 진소리로 어서 놀자.”-<광청야기본><sup>82)</sup>

“난산국과 원산국 본산국과 난산국은 과광성 신틈엿사오니 올뵙 올뵙 소리로나 신틈국 태추태로 일천간장(一千肝臟) 풀려놉서. … 스만스천(四萬四千) 저 용신(龍神) 놀아웁던 선왕(船王) 뒤에, 이물선왕(船頭船王)도 놀고 싶소, 고물선왕(船尾船王)도 놀고 싶소, 으든닷단 하(下)닷줄 이른닷단 중(中)닷줄 어야뒤야 살강기로 노래 풍악(風樂)으로 놀고 싶소.”-<나주 기민창 조상본><sup>83)</sup>

위의 내용은 조상신본풀이에서 조상신 스스로가 청하는 제향의 방식이다. 각기 다른 유형인 ‘혈연 조상’, ‘맺은 조상’, ‘태운 조상’이지만 ‘소리’와 ‘노래’와 ‘풍악’으

80)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04쪽.

81)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43쪽.

82)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33쪽.

83)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96~797쪽.

로 ‘간장을 풀어달라’는 내용은 동일하다.

다음은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조상 유형별 의례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조상신 의례는 조상 유형 간 유사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조상 유형에 따른 상이성은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본다. 조상신의 좌정처, 일상적인 의례, 비일상적인 의례, 정기적인 의례, 비정기적인 의례 등 의례 양상으로 제기되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풀이와 의례가 갖는 상관성을 정리한다.

### 1) ‘혈연 조상’ 유형의 의례

‘혈연 조상’ 유형의 의례는 본풀이의 구분에 따라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 의례를 밝히지 않거나, 무속 의례만을 청하거나, 무속 의례와 유교 의례까지 다양한 방식의 의례를 청하는 경우이다.

의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혈연 조상’ 유형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생업 수호신의 내력으로 교술 무가 형식이다. 교술무가 형식의 본풀이에서 거느리는 조상은 집안의 정기적인 조상 의례를 받아왔으며, 시제(時祭) 혹은 묘제(墓祭)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술무가 형식의 본풀이에는 의례에 대한 청이 없다. 조상의 내력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 경향의 ‘혈연 조상’ 유형 또한 유교 의례에 대한 청이 필요 없는 존재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유형의 본풀이에서는 무속 의례인 곳에 대한 청만 언급되고 있다. 다음은 <운대장본>의 의례에 대한 내용이다.

“어서 히히낙락(喜喜樂樂)이 큰곳엔 열두석 단독곳엔 요긋석 앓인제 삼석(三席)으로 놀던 조상(祖上)님네 히히낙낙이 어서 노옵소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로 어서 노옵소서. 풍류(風流)에 늙서. 장단(長短)으로 노옵소서.”<sup>84)</sup>

이렇게 곳을 통하여 ‘조상신을 놀리는’ 의례를 청하는 것은 대부분의 조상신이 청하는 방식으로 큰 차별점 없이 동일하다.

84)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47쪽.

‘혈연 조상’ 유형에서도 무속 의례와 유교 의례까지 다양한 방식의 의례를 청하는 경우는 ‘실패’ 유형이다. 이는 ‘맺은 조상’ 유형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혈연 조상’이지만 직접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은 경우는 유교 의례에 대한 청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성취 유형의 혈연 조상인 <구실할망>의 경우도 유교 의례에 대한 청을 남기고 있다. 이 경우는 유교 의례를 맡아줄 ‘아들’이 없는 경우이다. 딸만 아홉을 낳은 <구실할망>은 “삼명일(三名日) 기일제스(忌日祭祀) 때에도 연양상고팡(靈筵上庫房)으로 상(床) 훈 승을 바찌곡” 곳에서도 ‘간장을 풀어 달라’고 청하고 있다.<sup>85)</sup>

‘혈연 조상’ 유형 중 몇 가지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양이목사본>은 자신의 내력담인 본풀이를 풀어내는 것에 가장 방점을 찍은 청을 하기도 한다. <고전적본풀이>는 ‘동이풀이’라는 특별한 의례 법도를 세우기도 한다.

‘혈연 조상’ 유형의 경우 유교 의례보다는 무속 의례인 ‘굿’을 청하는 내용이 주되게 드러나며, ‘실패’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미 조상으로서의 의례를 충분히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굿’에 대한 의례를 청하는 의미는 집안의 어떠한 곳을 하더라도 자신을 함께 놀려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신을 위한 굿을 해달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 2) ‘맺은 조상’ 유형의 의례

‘맺은 조상’ 유형에서 핵심은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자격을 갖춰 ‘조상’으로서의 의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원혼’ 유형의 비중이 큰 ‘맺은 조상’ 유형은 그 원한을 풀기 위하여 다양한 의례의 동시적 제향을 택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맺은 조상’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로 <광청아기본>을 들 수 있다.

<광청아기본>에서 ‘송동지영감’은 원혼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하여 먼저 심방을 불러 바다에서 ‘광청아기’의 삼혼(三魂)을 건져낸다.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을 위한 의례인 ‘무흔굿(撫魂-)’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그 후에 ‘광청아기’를 위한 ‘원성귀제맞이’ 즉 굿을 벌인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셋째 아들을 ‘광청아기’에게 입양시켜

85)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04쪽.

그 아들을 통해 ‘축지방을 고하게’ 한다. 즉 ‘광청아기’에게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맺어주는 ‘조상 맺음’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광청아기’는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조상에 대한 정기 의례인 기제(忌祭)를 받게 된다. 비혈연 조상이었던 ‘광청아기’가 비로소 김녕 ‘송덕’에 만대유전하는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조상신으로 좌정한 ‘광청아기’는 자신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한 의례로 “신정국 태추태로 스당클에 열두석시 중당클에 읍숫석시 앓인제에 삼석시 헤(年) 넘는 철갈이로, 서대상지 안에 물멍지(-明紬) 강멍지(-明紬) 열두무색 출려 놓고 상고팡(上庫房)으로 우망(爲望)하여, 삼명일(三名日) 기일제스(忌日祭祀) 일처이(一切) 흐 오웁고”라는 청을 남긴다.<sup>86)</sup>

좌정처와 일상적으로 좌정처에 올리는 물색, 무속 의례와 유교식 의례까지 일상과 비일상, 무속과 유교식 등 자손이 할 수 있는 모든 의례를 청하고 있다. ‘서대상지 안에 물멍지(-明紬) 강멍지(-明紬) 열두무색’은 ‘광청아기’의 님이 실려온 신물(神物)이다. ‘광청아기’의 존재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청아기씨’를 모시는 집에서는 굿을 벌일 때 심방이 여러 물색으로 만든 선양기를 추기며 놀리고, 굿이 끝나면 본주는 그 선양기에 지를 싸서 바다에 바친다. <원당할망>은 후손이 없는 경우이지만,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조상으로서의 의례를 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이다. 자신을 죽게 한 양반과는 절대 한 상을 받지 않겠다며 유교 의례인 ‘제사’를 거부하였다. 무속을 억압한 유교적 관념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태운 조상’ 유형의 의례

‘태운 조상’ 유형에서 핵심은 ‘좌정처’이다. ‘태운 조상’은 육지의 ‘말명신앙’이나 ‘업신앙’, 제주도의 ‘안칠성’ 등과 유사하다. 조상신 의례 대부분이 집안의 특정 공

86)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34쪽; ‘열두 물색을 놓아두는 상고팡’과 같은 공간이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전집』 제2권에 실린 「老巫篇」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어 흥미롭다. [緣木爲龕僅五尺 信口自導天帝釋 釋皇本在六天上 肯入汝屋處荒僻], “나뭇조각 대고 작은 감실을 만든 뒤/ 스스로 이룸지어 제석이라 하느니/제석은 본디 하늘 위에 있거늘/어찌 그런 누추한 데 들어 있으랴.”, 집안 한켠에 이러한 감실을 만들어 ‘제석’이라 일컫는 신을 모셨다는 기록이다. 이는 집안 수호신으로서의 ‘제석신’에 대한 개념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고유의 신앙 관념으로 존재해 왔던 것을 보여준다.; 이규보 씀, 김상훈·류희정 옮김, 『동명왕의 노래』, 보리, 2005, 182~188쪽.

간에 ‘자신을 우망하는’ 공간을 두고자 청하며, 그 공간의 대부분이 ‘안칠성’의 공간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태운 조상’의 경우는 다른 조상신의 양상처럼 ‘상징물’을 두는 의미 이상으로 ‘조상신’ 자체가 좌정하는 자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은 그 집안만의 방식으로 좌정처를 마련한다. 대개 안방이나 안고팡 등 사적(私的)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자손이 외지에 드나드는 일이 있을 때 인사를 올린다. 돈이나 물건 등이 집안에 새로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조상 앞에 올리는 의례를 행한다. 삭망제(朔望祭)를 모시는 예법과 유사하다.

조상신 신앙의 전승 약화 양상에는 가옥 구조에 의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개량된 가옥 구조에는 조상신이 좌정할 만한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간의 소실로 인하여 이 공간에서 행해지던 일상 의례 또한 더 이상 전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외부의 경우는 아직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뱀신앙’의 조상신과 ‘뱃칠성’은 이제 거의 신앙 관념의 구분 없이 함께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산간 지역 마을 중 마당이 있는 집안의 경우, 뱃칠성을 모시는 집안을 발견하는 일이 아주 어렵지만은 않다. 뱃칠성을 계속 모셔오던 집안에서 그 터에 약간의 개량을 하는 방법 등 터 자체를 없애지는 않고 전승을 이어가는 경우이다. 이에 비하여 안칠성이나 조상신은 집안에 고정적으로 모실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기제나 명절제, 집안에서 벌이는 크고 작은 무속 의례에서만 위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1] 뱃칠성\_남원읍[2022.3.15.올레코시]



[사진2] 칠성비념\_남원읍[2022.3.15.올레코시]

### 제3장 조상신 신앙의 의례

제주도 조상신 신앙 의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조상신 의례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은 제주도 무속 의례에 제한한 질문이다. 앞서 조상신본풀이와 의례의 상관성에서 본풀이가 청하고 있는 다양한 의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일상적인 조상신의 좌정처와 그에 대한 의례, 정기적으로 벌이는 유교적 조상 의례, 무속 의례 등 다양한 방식이 청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상신 의례는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수시성(隨時性)을 지향한다. 이러한 특성은 조상신 신앙의 핵심 의례라 할 수 있는 무속 의례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조상신 신앙이 의례의 확장을 위하여 비고정성과 비고착성을 특성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초기적 조상신 신앙 의례 또한 현재와 같았을까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의 조상신 의례와는 달리 고정적 의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앞서 <균옹본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주도 조상신 의례와 한반도 무속 의례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전승하는 혈연 조상 유형의 교술무가와 유사성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혈연 조상을 근거로 하여 형성되고 ‘맺은 조상’과 ‘태운 조상’ 등이 총화되어 현재의 조상신 신앙을 형성하였던 것과 같은 변천이 의례의 측면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곳 열두 거리에 ‘본향-조상’거리가 있다. 집안의 관계 있는 모든 혈연 조상을 청하여 놀리는 제차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제차에 대한 설명인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과거와 현재의 신격을 구조화한다. 이 인격신의 양면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계된다. … 후손에 의해서 기억되는 조상으로서 이어지는 현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인격신의 복합신적 면모가 환기된다.”<sup>87)</sup>는 내용은 ‘조상’과 ‘자손’이 갖는 관계성의 본질을 통해 ‘조상신’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곳의 구조가 그렇듯이 다른 지역 또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본향-조상’거리를 바로 제주곳 의례에 일대일로 대응할 수는 없다. 다만 <불사

87) 김현선, 『서울곳, 거리거리 열두 거리 연구』, 민속원, 2011, 47쪽.

거리>, <산거리>에 이은 <조상거리>의 제차 순서라든가, 뒤에 이어지는 <별상거리>, <대감거리> 등의 의례 양식에서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따져볼 가능성에 주목할 뿐이다. 제주곳의 조상 의례가 고정적인 제차로 존재하였다가 변천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여러 다른 지역과의 의례적 유사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확장된 연구를 위해서라도 먼저 현재 제주곳 내에서의 조상신 의례에 대한 정리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제주곳 내 조상신 의례의 특징은 고정적이거나 정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조상신 의례는 어떤 특정 제차에 고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동성은 조상신 의례의 또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제차나 형식에 고착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기회에서 가능한 모든 양식을 통하여 조상신에 대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집안의 수호신인 조상신에게 정성을 바쳐 집안의 안녕과 번성으로 보답을 받는 것이 조상신 의례의 기본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상신에 대한 의례는 직접적이며 즉물적이다.

제주곳 의례에서 조상신의 좌정처가 상위(上位)의 제상(祭床)인 당클이 아니라 제장 가운데의 탁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이나, 탁상의 가장 중심에 진설하는 제물이 ‘균웅시리’[시루떡]인 것은 ‘기능신’으로서의 조상신에 대한 신앙 관념을 물질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sup>88)</sup> ‘균웅시리’의 ‘떡징’ 또한 열두 석 곳에는 열두 징, 여섯 석 곳에는 여섯 징, 세 석 곳에는 세 징으로, “큰곳 하면 큰밭 사고, 작은곳 하면 작은밭 사고”의 관념과 동일한 방식이다.<sup>89)</sup>

본고는 조상신 의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전제하고자 한다. 의례 기회에 있어서 고정적이거나 고착적이지 않으며, 의례의 방식에 있어 수시성과 반복성의 법칙을 최대화시키고, 제장 설연 등 의례의 물질성에 있어서 기원의 직접성을 보이고 있다

88) 아프리카, 말라카(Malaka/Melaka)반도 등의 여러 부족에서 보이는 ‘조상 숭배’를 ‘격절신’과 대비하여 정리한 엘리야데의 자료가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에도 적잖게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이 부족들 대부분이 천공신, 창조주, 지고신 등에 대하여 종교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령에 대한 숭배나 조상 숭배에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신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지만,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더이상 예배를 바쳐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위의 신들에 대하여 ‘격절신’이라 칭하고, 이에 대응하는 존재로 일상의 문제에 대한 보답을 주는 조상이나 죽은자의 정령에 더 많은 예배를 바치는 양상에 대하여 ‘기능신’에 대한 신앙 행위로 정리하였다; Mircea Eliade,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한길사, 2012, 105~110쪽.

89) ‘떡징’은 시루떡을 찢 때 생기는 ‘켜’를 의미한다.

는 점이다. 조상신 의례의 특성을 위와 같이 전제하고 본 장에서는 제주굿에 드러나는 조상신 의례의 실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제주굿 내에 조상신 의례가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 보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의례의 양상에서 제주굿의 기본 요소는 말명과 춤이라 할 수 있다. 말명으로 먼저 해당 제차에서 거느려야 할 내용을 말하고 그에 따른 춤으로 의례를 행위화한다. 이 두 요소의 다양한 구성과 확장을 통하여 중층적 양식과 광대한 제차를 형성하는 것이 제주굿의 형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말명과 춤이라는 기본 요소가 풀이와 맞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주를 보이는 조상신 의례의 특성을 정리하는데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말명과 춤의 기준점을 갖고 조상신 의례의 실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느리기’, ‘놀리기’, ‘풀이’, ‘맞이’의 단계를 밝아가고자 한다.

‘거느리기’는 말명을 말한다. 말[語]로 하는 의례 양식이다. 다양한 제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느리기’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례로 위치한다.

‘놀리기’는 말명에 춤과 노래가 더해지는 의례 양식을 말한다. 큰굿 제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석살림’을 들 수 있는데 ‘석살림’은 ‘놀리기’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풀이’는 큰굿 제차 중 신의 내력을 ‘풀어내어 바치는’ 의미의 ‘본풀이’로도 존재하지만, ‘족은굿’으로의 ‘풀이’는 ‘굿은 것을 풀어내는’ 단독 의례를 의미한다. ‘귀양풀이’, ‘성주풀이’ 모두 ‘풀이굿’으로서, ‘살기(殺氣)’나 ‘사기(邪氣)’를 풀어내는 의례이다. ‘귀양풀이’에서는 장례 기간의 모든 좋지 않은 기운을 풀어내고, ‘성주풀이’에서는 집을 지으면서 생긴 ‘살기(殺氣)’와 동티를 풀어내는 의례이다.<sup>90)</sup> 조상신 의례에서 ‘풀이’는 ‘동이풀이’가 있다. ‘동이풀이’ 또한 ‘고전적따님아기’가 죽어가며 생겼던 ‘살기’를 풀어내는 의례이다.

‘맞이’는 큰굿에서 여러 번 이어지는 제차 유형이다. 초감제에 이어지는 초신맞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궁과 시왕 당클에 모시는 상위의 신에 대한 단독 의례로, 신을 청하여 맞고 놀리고 보내는 의례라 할 수 있다. 청하는 신격에 따라 ‘놀리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조상신과 연관된 ‘맞이’는 ‘일월맞이’가 있다. ‘날궁·돌궁’인

90) 동티: 땅, 돌, 나무 따위를 잘못 건드려 지신(地神)을 화나게 하여 재앙을 받는 일. 또는 그 재앙. 능동토.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일월신(日月神)’에 대한 맞이 의례이다.

본고는 조상신 의례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거느리기’, ‘놀리기’, ‘풀이’, ‘맞이’의 구조를 적용하고자 한다. 위에서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각 항목에 대하여 개념과 사례를 함께 짚으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조상신 의례의 다양한 양상을 정리한다.

## 1. ‘거느리기’

### 1) 개념

‘거느리기’는 말[語]로 하는 의례 양식으로 제주굿을 구성하는 양식의 기본요소 중 하나이다. 조상신 의례에 있어서도 ‘거느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의례의 지위를 갖는다. 다양한 제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느리기’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례이다. ‘거느리기’로 행해지는 조상신 의례는 특정 제차에 한정되지 않으며 굿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모든 제차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갖는다. 그 양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은 없다. 조상신 의례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동성이나 비고정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가장 강화되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느리기’라 할 수 있다.

‘거느리기’ 형식의 조상신 의례 제차는 대표적으로 <연유 다텔>과 다양한 ‘신청 의례’이다. 두 제차 모두 각각의 상위 제차에 맞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거느려진다. 조상신의 이름만 거느려질 수도 있고, 본풀이를 ‘꼭지’로 풀어낼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본풀이 전체를 다 풀어낼 수도 있다.

굿에서 특정 제차의 진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굿 현장의 시간·공간적 환경, 경제적 환경, 소미 구성 조건 등 여러 여건 등을 종합한 수심방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차이를 낳는 기준은 수심방에 따른 것이 된다. 이렇게 다양하고 반복되는 조상신에 대한 ‘거느림’은 굿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 날 벌이는 규모에서는 당연히 반복하여 조상신에 대한 다양한 의례를 벌인다. 2008년 발간된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는 여러 자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조상신 의례의 수시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sup>91)</sup> 그렇지만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1~2시간 정도의 간단한 의례에서도 최대한 조상신을 거느린다. 다음의 사례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1시간이 채 안되는 시간의 의례이지만 제주굿 젓드리에 속하는 모든 신을 청한다. 조상신에 대해서도 집안에서 모시는 일월조상, 집안 구성원과 인연이 있는 일월조상을 모두 빠짐 없이 청하여 제향한다.

## 2) 사례- 「뚝제」 < 초감제>살려옴서 中 일월조상 청함 [2022. 1. 9. 서순실 심방]

부록으로 첨부한 <자료1>의 경우는 「뚝제」의 <살려옴서> 중 ‘일월조상’을 청하는 대목이다. 제물 진설과 기메 준비 등의 시간을 제하고 본 의례만 1시간 정도로 이루어졌다. 전체 의례 중에 <살려옴서>와 <괘네기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였고, 그 중 ‘조상신’에 대해서는 <살려옴서>에서 자세히 거느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은 ‘홍보일월(통정대부, 가산대부), 산신일월, 책불일월, 광청아기, 고훈장따님아기’ 등이다.

이 집안의 대주(大主)인 김씨 집안으로 ‘혈연 조상’ 유형의 ‘홍보일월(통정대부, 가산대부)’, 시어머니 집안인 한씨 집안으로 ‘광청아기’, 본주 집안으로 ‘산신일월’, 친정어머니 집안으로 ‘김스갓하르바지’인 ‘책불일월’, 본주와 친정어머니 집안으로 ‘고훈장따님아기’를 모시고 있다.

뚝제는 전체 의례를 앞인곳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례도 심방이 ‘요령’만으로 <살려옴서> 방식을 구연한다. 바닥에 쌀과 감주가 담긴 대접을 놓고 젓드리에 맞춰 신을 청하면서 숟가락으로 감주를 떠서 올리고 쌀알을 뿌리며 진행하는 방식이다. 심방은 이 제차에서 조상신을 청하면서, 본풀이가 없는 경우는 신명만 거느리고, 본풀이가 있는 경우는 짧게 혹은 곡지로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주가 고씨 집안으로 ‘고훈장따님아기’가 가장 주된 조상신으로 모셔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91)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이 자료는 본주의 친정어머니가 모시던 조상신을 ‘놀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청해진 시왕맞이이다. <광청아기본>이 총 8회에 걸쳐서 4명의 심방에 의하여 구연되었다. 구연된 제차는 <초감제>의 연유담음, 젓드리앉혀살려옴, <초상계>의 신청례, <석살림>의 신메움, 덕담, 연유담음, <군웅만판>의 덕담 등이다.

dot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의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유답음에서 조상신을 거느리는 내용은 없었으나, 연유답음에서 조상신을 거느리며 본풀이 전체를 풀어내는 방식도 많은 경우라 할 수 있다.

‘거느리기’, 즉 제주곳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말명’을 통하여 조상신을 제향하는 방식은 신명만을 짚어가는 방식에서부터 본풀이 전체를 풀어내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1시간 정도 규모의 의례에서부터 큰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의례에서 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느리기’는 ‘수시성’과 ‘유동성’을 특성으로 하는 조상신 의례의 특징이 가장 강화된 양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놀리기’

### 1) 개념

‘놀리기’는 ‘말명’에 ‘춤’과 ‘노래’가 더해지는 것으로 직접적인 오신(娛神)의 기능을 하는 의례 양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놀리기’의 대표적인 의례는 <석살림>이라 할 수 있다. <석살림>은 조상신에 대한 직접적인 제차만은 아니다. 청신한 모든 신을 놀리기 위한 제차이고, 그 중에서도 조상신을 놀리는 것이 제차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석살림>은 먼저 제청의 모든 신들을 ‘신메움’으로 청한다. 모든 신들에게 잔을 올리면서 ‘놀판’에 응감하기를 청하고, ‘군웅놀림’으로 신명나는 놀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난 후에야 ‘바랑탐’으로 ‘일월조상’을 본격적으로 ‘놀리기’ 위한 채비를 차린다.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관용구가 바로 ‘위가 돌아갑니다, 좌가 돌아갑니다.’이다. ‘군웅놀림’으로의 제차 전환을 공지하는 말명이다.

<석살림>은 핵심 소재차인 ‘놀판’을 통하여 ‘노래와 춤’으로 신을 ‘놀리는’ 특성을 갖는다. <석살림> 제차는 ‘말미-날과국섬김-연유답음-신메움-놀판(수작-덕담-담불

-서우제소리)-비념-산밭아 분부-주잔념김-제차념김'으로 정리된다. 이 중 '놀판'으로 정리된 대목이 이 제차의 핵심을 이룬다. 주된 내용으로 '균웅본판'과 '조상본풀이'를 하위제차로 삼는 '덕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곳에서 심방과 자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제향한다. 신명(神名)을 거느리고 본풀이를 풀어내고 온갖 제물을 모두 바치면서 정성을 올린다. 곳은 심방을 통하여 운영되는데, 석살림에서만큼은 자손들도 모두 신자리에 함께 나선다. 자손들만이 아니다. 곳을 구경 온 마을 주민들도 함께 신자리에 나선다. 신과 인간과 그 사이의 중재자인 심방,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춤과 노래로 '신명(神明)'을 살리고 '신을 내세우는' 자리, 즉 '신이 나는' 자리가 된다. 이것이 <석살림>의 특성으로, '신명'의 시·공간을 형성한다. '신명'은 신과 인간이 하나의 기운으로 모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인합일'의 구현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명'의 기운은 곳에서 탈춤으로, 사물놀이로 전승하여, 한민족의 전통적인 미학 원리로 자리잡고 있다.<sup>92)</sup>

추물공연에 이어지는 제차인 <석살림>은 <균웅만판>과 댕구를 이룬다. <균웅만판>은 대부분의 의례를 마치고 신을 돌려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을 '놀리는' 제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 거듭 연행되는 <석살림>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석살림>과 <균웅만판>이 제주곳 의례의 초반과 후반에 자리하여 조상신을 다루는 제차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조상신을 놀리는 <석살림> 방식의 제차는 곳의 규모에 따라 여러 번 거듭 연행된다. '큰곳 하면 큰밭 사고, 작은곳 하면 작은밭 사고'의 구분점이 것이 바로 '열두 석, 여섯 석, 세 석'으로 불리는 <석살림>의 연행 숫자가 된다.

<석살림> 방식의 제차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초감제>의 하위 제차인 '살려옵서'에서 별이는 '석시로 균웅청함'이 될 것이다. 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치면서 '젯드리'에 맞춰 '살려옵서'로 신을 청하다가 조상신을 청하는 대목이 되면 서서 하는 곳으로 바뀐다. <석살림>의 양식이 삽입되는 것이다. 덕담 창부터 서우제소리까지 <석살림>의 핵심 제차인 '놀판'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살려옵서'의 방식으로 돌아가 앉아서 장구를 치면서 다음의 젯드리로 넘어간다.

92) 조동일은 곳이나 탈춤 등의 한민족 고유의 미학적 원리인 '신명풀이'에 대하여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카타르시스', 인도의 '라사'등과 견주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조동일은 '신명풀이'의 연원이 '곳'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동일,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지식산업사, 2006.

조상신 의례가 <석살림>에 맞추어진 이유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석살림>이 갖는 의례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석살림은 노래와 춤, 즉 ‘놀판’이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는 제차이다. ‘놀판’이 핵심 제차로 구성된 <석살림>의 양식적 특성이 조상신 의례에 부응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상신을 놀리는 방식에 있어 그 어떤 제차보다도 적합하다. 반대로 조상신을 놀리기 위한 방식으로 <석살림>의 양식이 맞추어져 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한 모든 신격에 대한 ‘오신 의례’라는 <석살림>의 기본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석살림>의 의례적 특성이 앞서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상신의 의례로서 <석살림>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이해가 더욱 적절해 보인다.

<석살림>에서 심방은 본풀이에 의거하여 말로 ‘거느리고’ ‘난산국 본산국을 풀고’ 선양기와 선양드리를 ‘추끼고’ 자손들이 모두 나와 함께 춤을 추며 조상신을 놀린다. 큰굿 제차 중에 <석살림>과 같은 의례 양식은 없다. 시왕맞이에서 강림차사에게 바치는 ‘나까시리 놀림’이 ‘놀판’과 유사한 양식을 갖기는 하지만 거기엔 노래가 없다. 즉 조상신 의례로서 <석살림>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조상신본풀이가 제시하는 조상신 의례의 규범에 <석살림>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놀리기’는 ‘말명’과 ‘춤’, 그리고 ‘노래’를 더하여 직접적으로 오신의 기능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의례로 <석살림>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여러 유형의 조상신본풀이에서 공통으로 청하는 의례 양식이 ‘놀리기’이고, 이 양식에 조응하는 제차로 <석살림>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2) 사례- 「놀판」 < 석살림>놀판 > [2021. 5. 15. 양승건 심방]

부록으로 첨부한 <자료3>의 경우는 「일월맞이」의 <석살림> 중 ‘놀판’ 대목이다.

<자료5>의 <일월맞이>와 같은 현장이다. 현장에 대한 내력은 뒤의 <맞이>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정리하기로 한다. ‘덕담’에서 <군웅본판>과 조상신 말명이 덕담창 방식으로 구연되었다. 산신일월, 오설룡따님아기씨, 오현감 흥패일월 등에 대하여 본풀이는 풀지 않고 말명이 이어졌다. ‘덕담창’부터 ‘서우제소리’까지 <석살림> 제차를 끝낸 후 <수룩침>으로 넘어갔다.

### 3. ‘풀이’-<동이풀이>

#### 1) 개념

‘풀이’는 단독곳으로서 ‘살성’과 ‘사기’를 풀어내는 의례이다. ‘풀이’가 갖는 의례 기능은 ‘살성’과 ‘사기’를 ‘풀어내고’ 난 후 안정적으로 새로운 자리를 잡기 위한 것이다. ‘성주풀이’는 새로 지은 집에 집안 식구들이 아무 탈 없이 자리 잡기 위한 것이다. ‘귀양풀이’는 이승을 떠난 영가가 저승 세상에 평안히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조상신 의례에서 ‘풀이’는 <동이풀이>가 있다. <동이풀이>는 ‘고전적 따님아기’가 오롯이 홀로 죽어갔을 때의 처절한 원통함이 ‘살성’과 ‘사기’로 남지 않도록 ‘풀어내고’ 조상신으로의 새로운 안착을 기원하는 의례가 된다.

<동이풀이>도 조상신본풀이가 의례의 규범이 된다. <고전적본풀이>는 ‘한양일월’로 시작되는 내력담이다. ‘맺은 조상’ 유형의 전형적인 예로 ‘제주도 남성’과 ‘육지 여성’의 인연이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 인연이 ‘애정담’인지의 여부는 일관된 전승이 존재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인연의 성격은 특정할 수 없으나, ‘인연’과 ‘물색’으로 인한 빙의’가 법칙처럼 이어진다. 보통의 경우, 자손에 대한 흥힘이 보이면 ‘굿’으로 해원하고 ‘조상 맺음’으로 조상신을 좌정시키면서 이후의 지속적인 제향을 약속한다. 조상신본풀이의 원형적 구조를 보면 ‘고전적따님아기씨’는 살아나야 하는 법칙 안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고전적’의 유교적 세계관이 이 법칙을 깨뜨린다. ‘추는굿’을 통한 ‘한양일월’의 해원과 ‘조상 맺음’을 거부함으로써, ‘한양일월’의 재앙은 결국 집안을 멸족시키고, 그 곳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심방조차도 ‘한양일월’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게 된다. 부친의 인연으로 ‘흥힘’이 씌어진 ‘고전적따님아기씨’는 다시 ‘부친’의 교조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동이처럼 사려 죽은’ ‘고전적따님아기씨’의 마지막은 ‘원한’과 ‘살기’의 결정과도 같은 것이었다. 동이풀이는 본풀이의 형상화가 이루어진 유일한 경우이며, 육지곳의 의례 양식이 직접적으로 수용된 특별한 경우이다.

<동이풀이> 의례는 위의 본풀이 내용에 근거하여 두 가지 핵심적 구성 요소를 갖는다. 하나는 ‘동이’처럼 죽어간 ‘고전적따님아기씨’를 기억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금기’를 풀게 하는 일이다.

‘맺은 조상’을 조상신으로 좌정시키지 못하여 새로운 ‘혈연 조상’이 된 ‘고전적따님아기씨’의 죽음을 목도한 집안 자손들은 조상의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조상의 죽음을 그대로 제상에 올리는 법도를 마련하였다.



[사진 3] 동이풀이 진설\_아라동 김씨댁 [2022. 02. 12.]

위의 사진은 <동이풀이>를 위한 제물을 진설한 것이다. 군웅탁상 위에 ‘동이’에 고운 옷을 입힌 ‘고전적따님아기씨’의 신체가 있고, 그 왼편으로 ‘고전적’을 형상화한 신체가 함께 진설되어 있다.

<동이풀이>에는 조상의 죽음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법도로 지켜야 할 사항이 뒤따른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왕맞이’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동이풀이>는 시왕맞이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의례이다. 제물은 굿의 규모를 따라 여섯 징 얹힌 ‘군웅시리’와 ‘연주청 오물떡’이 오른다. ‘고전적따님아기씨’에 대한 기억은 당시를 최대한 재현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례의 법도는 <동이풀이>라는 의

례를 행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중당클곳 정도의 규모로 준비되는 곳이 아닌 이상 <동이풀이>가 갖춰야 할 여러 사항들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동이풀이>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금기의 해제이며 이는 의례 방식인 ‘나나난니’ 춤으로 드러난다. ‘한양일월’의 혼을 싣고 ‘고전적따님아기씨’가 추어야 했던 그 춤을 이제는 ‘고전적따님아기씨’의 혼으로 추게 하는 것이 의례의 정점으로 자리잡게 된다.

‘나나난니’ 춤은 ‘신을 받는 의미’를 갖는 춤이다. 제주도 신긔에서 처음 무업에 들어서는 심방이 처음 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에게마을긔’이 있는데 여기서도 같은 장단의 춤을 춘다. 처음으로 신을 받아 들이고 모시는 의미의 춤과 장단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나난니’ 혹은 ‘나나난니’라는 입 장단과 함께 이어지는 이 춤이 신긔에서는 ‘신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비창하다. 반면 <동이풀이>에서는 원혼의 신을 해원하고 풀어 드리는 의미로 빠른 가락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심방이 ‘신을 받아’ 무거운 동이를 입으로 들어야 하는 ‘신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이풀이>는 <고전적본풀이>를 풀면서 ‘고전적따님아기씨’의 죽음에 실린 ‘살기’를 풀어내는 ‘풀이’ 의례이다. 본풀이, 조상의 죽음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신체, 당시의 금기를 풀어내는 ‘이나난니’ 장단과 춤, 심방의 노래와 춤, 소미들의 연물과 소리 등 하나의 소재차 안에 다양한 요소를 복합시켜서 진행하는 의례이다.

‘늦동이’를 물고 실제적인 ‘신력’을 드러내는 양식은 제주긔 내에 유일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조상신 의례가 갖는 특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명과 춤으로 풀고 놀리는 <동이풀이>는 조상신 의례의 일관성을 유지한 특별함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사례- 「동이풀이」 <시왕맞이>상당숙임>동이풀이 > [2022. 2. 12. 김돌산 심방]

부록으로 첨부한 <자료4>의 경우는 「시왕맞이」의 <상당숙임> 중 <동이풀이> 대목이다. 2022년 2월 12일 대흘리 소재 굿당에서 벌어진 <동이풀이>를 정리한 내용이다. <동이풀이>는 제주도 광산 김씨 집안에서 시왕맞이 규모 이상의 굿을 벌

일 때 상당숙임 제차에서 벌이는 의례이다. 전승하는 <고전적본풀이>에 연원하는 의례이며, 제주도 광산 김씨 집안 중 명도암계로 전승하고 있다. 명도암 고씨 집안이나 송당리 광산 김씨 집안에서는 행하지 않는다. 이 곳의 본주 집안은 조천읍 중산간마을이 고향인 광산 김씨 집안으로 현재 70대인 본주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모셔왔던 의례이다.

<동이풀이>에서 심방이 ‘고전적따님아기씨’로 꾸민 동이를 들고 ‘이난니’ 춤을 추는 것은 의례의 후반부이다. 상당숙임을 하면서 일월조상 신갈림 때가 되면 시작한다. 먼저 <고전적본풀이>를 다시 한번 풀어 낸다. 그리고 바로 ‘이난니’ 장단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면, 소미들은 북과 장구로 가락을 맞추면서 후창을 이어간다. 소미들의 후창은 심방이 동이를 물고 춤을 추고 본주에게 ‘조상’을 온전히 넘길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齒]의 힘 만으로 쌀과 술병으로 채운 동이를 물고 제장을 돌며 춤을 추는 의례를 통하여 굿당의 공간은 순식간에 ‘신성(神聖)’이 최고화되는 공간으로 변한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소미들의 ‘이난니’의 장단과 소리가 제장에서 신성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위(保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맞이’-<일월맞이>

##### 1) 개념

‘맞이’는 큰굿 제차 중 어궁과 시왕 당클에 모시는 상위의 신에 대한 단독 의례로, 신을 청하여 맞고 놀리고 보내는 의례라 할 수 있다. 청하는 신격에 따라 ‘놀리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조상신과 연관된 ‘맞이’는 <일월맞이>이다. ‘날궁·돌궁’인 ‘일월신(日月神)’에 대한 의례로 ‘천신일월(天神日月)’로 청해지는 신격이다.

<일월맞이>는 <불도맞이>에 이어지는 제차이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을 보면 <일월맞이>의 하위제차인 ‘신청괘’에서 ‘이간주당 제왕제석 녁신몸주 군웅조상님도 일월맞이 오리정 신청괘로 살려옵서.’라는 말명이 보인다. 어궁 당클에 좌정하는

‘일월신’ 뿐 아니라 앞서 ‘집안 조상신’으로서의 ‘일월’을 <일월맞이> 안에서 함께 칭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장에서 ‘일월-군웅-제석’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제왕제석 녀신몸주 군웅조상’을 ‘집안 수호신’의 총합성으로 함께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일월맞이>의 경우 단독굿으로는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큰굿 내에서의 의례는 거의 전승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진다.

큰굿에서 조상을 대접하는 직접적인 의례는 <일월맞이>와 <시왕맞이>이다. <일월맞이>는 ‘날궁전 들궁전’인 일월신에 대한 의례이면서 ‘일월조상’으로 칭하는 집안 수호신에 대한 의례를 포함한다. <시왕맞이>는 명부(冥府)를 관할하는 시왕에 대한 의례이면서 집안의 조상 영가에 대한 의례를 포함한다. 두 제차는 공히 조상에 대한 의례이지만 동일한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월신은 해와 달이 세상을 널리 비추듯 인간을 널리 지키는 것으로 관념하며 이러한 신 관념이 집안의 수호신인 조상과 연결된다. <일월맞이>는 집안을 수호하는 존재로서의 조상에 대한 의례의 맥락 속에서 조상신을 칭하고 대접한다. 이는 큰굿 제차 내에서도 그렇고 단독굿으로 벌이는 <일월맞이>에서도 그렇다.

<시왕맞이>는 조상 영가의 명복을 비는 ‘영계 질침’의 제차가 내용적인 핵심을 이루는 제차이다. <시왕맞이>는 큰굿 내에서 의례의 주요한 구분점이 된다. 큰굿의 날짜를 정할 때 <시왕맞이>를 시작하는 날과 시간을 따로 잡는다. 만약 이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삼석울림’만이라도 하여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방식을 고수한다. <시왕맞이>가 시작되면 더 이상 관세우를 하지 않는다. 이렇듯 여러 측면에서 큰굿 내에서 시왕맞이가 갖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월맞이>와 비견되는 양상이다. <시왕맞이>는 맞이 내 맞이굿인 처서영맞이가 거듭되면서 대주를 중심으로 친가, 외가, 처가 등 모든 조상 영가들에 대한 질침이 중시되는 의례이다. ‘조상신’에 비하여 더욱 직접적인 조상에 대한 의례라는 이유가 큰굿 내에서 <시왕맞이>의 위상이 강화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큰굿에서 <일월맞이>를 별도의 제차로 운영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려우며, 그 이유로 <불도맞이>와 유사한 의례 양식이 제기되기도 한다. 의례 전승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으로 인하여 큰굿 내 <일월맞이>의 기능이 분명히 제시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

2003년 진성기가 보고한 김오생 심방 자료에 <일월맞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내용이 있다.<sup>93)</sup> 대략 1950년대 중반 정도에 채록된 자료로 소개되었다. 상당히 이른 시기의 자료인 점, 현용준, 진성기의 자료에 제보자로 이름을 많이 올렸던 ‘김오생 심방’의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자료는 「초감제 풀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지만, 내용은 큰곳의 전체 ‘굿드리’에 대한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축약되거나 소거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현재 전승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할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자료이다. 다음의 인용하는 내용은 그 중 <일월맞이>에 대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일월맞이>는 <불도맞이>에 이어서 소개되고 있으며, 뒤로는 <관세우>를 하고, <초공본>과 <초공맞이>로 이어진다.

일월 연마지 그 지비  
군웅 조상을 위하여  
일월 연마지를 흡네다  
해광 들을 위하기는  
“그 지반 즈녀 손들을  
잘 되게 하여 줍서” 하실 때에  
초감제할 때에 7치  
천지호납시 이 알로 연유를  
다 옥가,  
지반 조상들이 올라 다 연유를  
올려시민  
월일광에서 아라서 동축하도록키  
하여서  
부정광 도래를 감상하고  
감상하고 나민  
월일광님 오시는 문을 2라  
신청계를 하여다  
월일광님을 신 불러시니

93) 진성기, 「초감제 풀이」, 『한국무속학』 6집, 2003, 253~299쪽.

초하정을 올려나민  
 수록을 올리시고 소지를 스라  
 지장법이 잇습네다  
 안으러 메살이민  
 초상에게 수록을 올리민  
 초상에게 본산국을 풀민  
 그 지반 만스은덕을 주옵소서  
 된날 아척이 일어나민  
 천하궁 으라오든  
 관세우가 잇습네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월맞이>는 ‘군웅조상’, 즉 ‘조상신’을 대상으로 하여 집안  
 자손들의 번성을 위하여 하는 의례이다. 연유담음에 집안 조상의 내력을 다 풀어낸  
 다는 내용도 있다. 언급된 제차만을 추려 보면 ‘초감제-추물공연-수록침-메어들어  
 석살림’으로 현재 정리되고 있는 <일월맞이> 제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일월맞이>의 조상신 의례로서의 기능과 제차 운영이 현재 전승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재는 큰굿 내에서 <일월맞이>가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  
 지 않고, 의례 양식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불도맞이>와 얼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단독굿으로서의 <일월맞이>는 지금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례의 기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제차의 변형이 크게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전승하는 단독으로 벌이는 <일월맞이>는 대개 본  
 주의 형편이 큰굿이나 시왕맞이를 할 수 없을 때 대신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의례 명이 ‘옥항천신 불도일월연맞이’이다. 삼불도와 칠원성군을  
 송신(送神)한 후 마지막까지 일월신을 제장에 좌정하게 하여 그 앞으로 조상 영가  
 에 대한 질을 치는 경우이다. 수심방에 따라서는 어느 신도 송신하지 않은 상황  
 에서 ‘영계 질침’을 하고 그 후 상당숙임과 도진을 이어서 하기도 한다.

‘영계 질침’은 시왕맞이의 하위 제차로 시왕 앞으로 조상 영가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는다. 그런데 일월맞이에서 ‘영계 질침’을 하는 경우에는 ‘일월신 앞으로  
 조상 영가의 명복을 기원하게 된다. 앞에서 <일월맞이>와 <시왕맞이>가 큰굿 내에

서 ‘조상’에 대한 직접적인 의례인 것은 맞으나 다른 갈래인 것을 정리한 바 있다. ‘조상신’, 즉 신격으로 좌정한 조상과 ‘영가 조상’의 차이이며, ‘조상신’은 <일월맞이>에서 ‘영가 조상’은 <시왕맞이>에서 의례를 행하는 내용이다. 큰 맥락에서 의례의 변모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월맞이>는 조상신 의례 중 하나의 독립된 단독굿으로 별이는 경우이다. 초감제부터 석살림까지 시작과 끝을 이루는 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조상신에 대한 단독굿으로서 유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차에서 조상신을 놀린다. 주로 신청귀와 석살림에서 조상신본풀이를 구연하고, 매 제차를 시작하는 말미에서 조상신을 거느리는 식으로 조상신을 위한다.

<일월맞이>의 핵심 제차는 일월신, 삼불도, 칠원성군, 조상신, 혈연 조상에 대한 수록을 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일월맞이>는 무속 신앙에서 ‘수복’을 관장하는 신들을 청하여 ‘명 제길 잔, 복 제길 잔’을 올리며 살아 있는 자손들의 명과 복을 지키고자 하는 의례로 해석할 수 있다. 자손 번성이라는 기원을 위하여 다층적인 신격, 다양한 방식의 제향으로 ‘조상신’을 중심으로 한 ‘수복과 번성’을 관장하는 신격을 청하여 대접하는 의례로 <일월맞이>를 정의할 수 있다.

## 2) 사례- 「석시로 군웅 청함」 < 일월맞이>초감제>젓드리앉혀살려옴>석시로 군웅 청함>덕담 [2021. 5. 15. 이용순 심방]

부록으로 첨부한 <자료5>의 경우는 2021년 5월 15일 와흘리 소재 굿당에서 벌인 굿으로 일월맞이에 처서영맞이 질침을 붙여서 연행하였다. 전체 제차는 <초감제-추물공연-석살림-수록침-처서영맞이-\*푸다시<sup>94)</sup>-상당숙임-도진>으로 구성되었다. 본주 집안과 수심방은 23년째 단골을 맺고 있다. 이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은 ‘산신일월, 현감 벼슬한 흥패일월, 오설룡따님아기씨’이다.

<오설룡따님아기본풀이>가 현재까지 한 편만 보고되었던 상황에서 현장 자료를 추가한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sup>95)</sup> 특히 이 자료는 <오설룡따님아기본풀이>를 단

94) 푸다시는 제차 순서에 의하여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본 제차를 이어가기 전에 삽입된 것이다.

편적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입도한 군위 오씨 집안의 삼형제에 대한 내력부터 풀어내고 있어 더욱 의미있는 자료가 되었다. 군위 오씨 집안 중에 옛 제주 목안과 정의현의 지경까지만 산신일월을 모시고, 대정 지역의 경우는 산신일월을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에 채록한 본풀이에서 제주도에 입도한 삼형제 중 ‘정의를 차지한 큰 가지, 선흘리를 차지한 셋가지’ 집안만 산신일월을 모시고, ‘명월리를 차지한 작은가지’ 집안은 산신일월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풀이에서도 명월리로 간 작은가지 집안에 대해서는 내력이 소개되지 않는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오설룡아기씨>가 일월과 본향으로 함께 상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본풀이 내용 중 손발이 잘린 오설룡아기씨가 ‘명동소천국’에 버려지는데 이는 구좌읍 평대리 신당과 관련된 명칭이다.

---

95) 지금까지 보고된 한 편의 이본은 고순안 심방 본풀이 채록본에 실려 있다. 허남춘·송정희·강소전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pp.386~389.

## 제4장 조상신 신앙의 전승

### 1. 조상신 신앙 전승의 주체

현재 조상신 신앙 전승의 주도 세력은 심방 집단이다. 조상신 신앙이 집안의 수호신에 대한 신앙 관념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상신 신앙의 신앙 주체는 개별 집안의 신앙민(단골)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신앙 주체 세력의 전승이 약화되고 변화된 것은 근래의 일이 아니다. 개별 집안의 신앙 의례로 가장 중요하게 전승해야 하는 것은 단골에 의해 이어지는 일상 의례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 의례 전승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고, 심방에 의해 이어지는 비밀상 의례 중심으로 전승이 이어지고 있다.

전승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 조상신 의례 전승을 이어가는 중심은 신년 철갈이, 문전제, 올레코시 등의 세시의례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반적인 전승 약화의 상황에서 조상신 신앙은 의례의 규모나 신앙처의 갈래와 상관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천하면서 전승하고 있다. 조상신 신앙의 특성인 유동성이 작동하여 다양한 방식의 변용이 생성되고 내적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조상신 신앙 전승에 대하여 주체 세력인 신앙민과 현재의 주도 세력인 심방 집단의 전승 양상을 각기 하나의 사례를 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신앙민으로서 현씨일월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집안의 경우와, 심방 집단으로서는 조상신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중춘 심방의 잡기장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현재 조상신 신앙 전승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신앙민-서귀포시 남원읍 연주(延州) 현씨 집안의 사례<sup>96)</sup>

서귀포시 남원읍 연주(延州) 현씨 집안은 ‘현씨일월’을 모시는 집안이다. 지금까지

96) 2022년 3월 14일 ○○리 본향당 신과세에서 만난 이후 추가 조사를 종합한 상단골 고○○님 (1938년생, 여) 집안의 사례이다.

조상신 신앙의 일상 의례를 이어가는 아주 귀한 사례이다.

‘현씨일월’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본향신으로, 당신이면서 조상신인 특별한 경우 중 하나이다. 신천리를 포함하여 그 일대의 현씨 집안에서 널리 모시던 조상신이었으나 이제 이 지역의 전승 또한 약화되어 개인 의례로 전승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들 내외에게 ‘현씨일월’ 신앙을 물림한 본주 또한 근방에서 ‘현씨일월’을 지금까지 모시는 집안은 없으며, 본인이 유일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현씨 집안에서 아직 신천리 본향당을 조상당으로 모시는 경우가 확인된다. 특히 배와 관련된 생업을 가진 집안의 경우 정기적으로 당에 제를 올린다는 제보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다만 조상당의 특성상 신앙민들이 개별적으로 당을 찾는 상황이므로, 서로 다른 신앙민들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앙 주체인 개별 집안의 단골 중에서 집안의 조상신을 인식하고 전승을 이어가는 세대는 대략 현재 연령 기준 80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정도 세대의 경우 결혼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제물 준비 등 의례 방법이나 조상신에 대한 간략한 호칭 정도를 익혔고 습속의 하나로 신앙을 전승하고 있다. 그보다 아래 세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도의 인식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무속 신앙 전승의 일반적 양상과 같이 제주도 무속 신앙의 전승 또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전승하는 것이 기본이다. 조상신 신앙도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사례로 삼은 현씨 집안의 경우도 현재 본주가 시어머니에게 물려 받고 며느리에게 물림하고 있는 중이다. 며느리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씨일월’ 신앙 내용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물 준비와 진설, 의례 순서 등에 대해서는 체득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안 제사의 법도를 익히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고, 독자적인 집안 신앙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집안은 거주 지역 본향당의 상단골이기도 하다. 이 집안이 상단골로 있는 본향당은 그 일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단골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상단골이 현씨 집안, 중단골 고씨 집안, 하단골 오씨 집안으로, 아직도 본향당곳의 제물 진설을 세 집안의 종손 며느리가 맡아서 하는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집안 신앙 전승과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체 신앙 전승에 있어서도 집안의 며느리들을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기제’나 ‘명절제’는 그 집안의 수호신적 존재가 모두 함께 하는 시공간이다. 상방(마루)에는 혈연 조상을 위한 제사상이 차려진다. 문전(현관)에는 문전신을 위한 문전상이 차려진다. 조왕(부엌)에는 조상신 상과 안칠성을 위한 안네상이 차려진다. 본향신을 제외하고 그 집안을 수호하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정성을 올리는 시간과 공간이 형성된다.

부엌에 차려지는 조상신을 위한 상은 조상신본풀이에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명의 의례적 현실태라 할 수 있다. “연양 상고팡으로 삼명일(三名日) 기일제스(忌日祭祀) 메 훈 기(一器) 정성 받고”의 내용이다. 신화와 의례의 상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1990년대 보고된 조사 자료에 조상신 의례를 집안의 기제사와 함께 지내는 사례가 있다. <나주기민창조상>을 모신 집안의 사례이다. 시집 온 며느리가 조상신 신앙을 처음 접한 상황에 대한 보고이다.

시집 와서 보니 제사 명절 때에는 이 조상을 위하여 작은 상에 제물을 차려 젓상 옆에 놓아 위하고, 제사가 끝난 다음 <잡식>한 것은 뒤꼍 장독 옆 정결한 곳에 붓고 있었다.<sup>97)</sup>

위 조사 내용을 보면 작은 상이지만 별도의 상을 차렸던 것으로 보인다. 상을 놓은 위치도 제사상 옆이었던 것으로 보아 집안 의례에서 조상신 신앙에 대한 관념이 지금에 비하여 상당히 중심성을 차지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조상신을 모시는 대부분의 집안에서 안칠성과 조상신을 위한 제물을 함께 진설하였다. 대개 상이 아니라 쟁반에 차리며, 술과 제물(돌래떡) 정도를 올리는 소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소박하게나마 기제사에서 안칠성과 조상신을 위한 제물을 올리는 경우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며 대부분 중단된 전승으로 확인된다.

문전제 전승과 비견되는 경우이다. 문전제와 문전상을 독자적으로 전승하는 집안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문전제는 그 집안의 대주-남성 중심으로 의례가 전승하였기 때문이다. 문전제를 전승하는 집안의 경우, 기제사 의례 안에 공식 제

97) 현용준·현승환,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7쪽; 1994.5.15.제주시 용담2동 대양밭며느리(62세) 면담조사 내용.

례 중 하나로 문전제를 삼는다. 반면, 안찰성과 조상신의 경우 제사를 지내는 이면에 비공식적으로 본주-여성 중심으로 의례가 전승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두 의례 제행 방식의 차이가 전승 양상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상신 의례 전승은 많이 중단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로 삼은 집안 또한 일상 의례로 모시고 있다는 관념은 있지만, 의례의 중심은 집안 제사나 절의 정기적인 기도회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사진 4] 문전제-남원읍 [2022.10.31.]

[사진 5] 안네상-남원읍 [2022.10.31.]

위 사진은 사례로 삼은 현씨 집안의 2022년도 기제사 모습이다. 지금까지 집안의 조상 의례에서 ‘현씨일월’에 대한 의례를 전승하고 있다. [사진 3]은 문전제, [사진 4]는 안네상 차림이다. 안네상은 안찰성과 함께 집안 조상신인 ‘현씨일월’을 위한 상이다.<sup>98)</sup> 안네상은 집안 주방의 식탁 위에 차려졌다. 왼편의 가운데 물사발과 함께 있는 메 2기가 ‘현씨일월’과 현씨일월의 오빠 ‘현씨열이’를 위한 것이다. 오른편 위쪽으로 진설된 메와 탕은 이 집안의 안찰성을 위한 것이다.

이 집안은 거주 지역 본향당의 상단골이면서, 신천리 <현씨일월당>에는 조상당의 개념으로 다니고 있다. <현씨일월당>의 조상당적 신앙 양상이 현재까지 전승하는 경우이다. 일년에 한 번씩 새해를 맞아 두 오누이에게 설빔을 장만하여 올린다.

제사에서 ‘현씨일월’을 위한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신천리 <현씨일월당>에 해마다 설빔을 마련하여 바치는 등 이 집안은 단골이 집안의 조상신을 분명히 인식하는 경우이다. 최근까지 <구실할망>을 조상신으로 모시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다.

98) 2022년 10월 31일 서귀포시 남원읍 고○○님(1938년생, 여)댁 기제사.

제주시 조천읍 김해 김씨 집안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구실할망>을 모셔오다 3년여 전에 신앙을 정리하였다. 이 집안은 <구실할망>을 오랜 기간 모셔왔지만 현재 90대에 접어든 단골의 나이가 많고, 그 신앙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어려워 결국 최근에 정리한 것이다. 신앙을 정리하면서 <구실할망>에 고하고 마지막으로 그간 집안에 모셔 왔던 구슬 상자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의례를 올리며 정리하였다고 전한다. 아직 <구실할망>을 모실 때에는 집안의 안고팡에 있는 항아리 위에 구슬을 넣은 상자를 놓고 술잔과 쌀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일상 의례를 지켰고, 굿을 할 때는 보통 굿에서 진설하는 일월상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구실할망상’을 개별적으로 따로 차리는 방식이었다. 그 ‘구실할망상’에 항아리 위에 놓았던 구슬 상자와 물색천을 놓아 굿에서 물색천을 놀리는 방식으로 <구실할망>을 놀렸다고 하였다. <광청아기> 의례에 있어 ‘물색천’을 계속 놀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99)</sup> 이제 집안의 신앙을 알고 전승하는 세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사례로 삼은 집안의 경우처럼 신앙민이 집안의 조상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례를 전승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한다.



[사진6] 현씨일월당 [2022. 3. 16.]

99) 2021년 5월1일 김영철 심방(1965년생, 남) 자택에서 진행했던 김영철 심방 면담 조사와, 2021년 6월 14일 김순아 심방(1942년생, 여) 자택에서 진행했던 김순아 심방 면담 조사를 종합한 내용이다.

위 사진은 신천리 본향당이다. 앞의 사례로 삼은 집안에서 2022년 정월을 맞아 ‘현씨일월’과 ‘현씨열이’에게 바친 설빔이다. 해마다 개인적으로 신과세를 가면서 새옷을 마련하여 갈아 입히고 묵은 해의 옷은 태워서 올리는 의례를 행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정월에만 행하는 것은 아니고, 집안에 큰 일이 있을 경우 새옷을 바치면서 정성을 올리고, 묵은 옷은 태워서 당에 묻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조상당으로 전승하는 경우는 김녕리 <운동지당>에서도 확인된다. <운동지당>은 김녕리 윤씨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당이다. 이번 조사에서 해마다 개인적으로 신과세제를 올리는 단골의 의례를 확인하였다. 신과세 의례에서 김녕 지역과의 연관성으로 ‘운동지하르방’뿐 아니라, <광청아기본>와 연관된 ‘광청아기씨’, ‘송동지’, ‘한동지’도 함께 청하고 바다에 ‘요왕지’를 바치면서 함께 위하는 양상이다. 이당은 ‘미륵돌’을 모신 당으로 윤씨 집안이 아닌 인근 신앙민들에게는 ‘기자(祈子) 의례’를 바치는 ‘불도미륵’으로 관념하기도 한다. 와산리 불돛당에서도 확인되듯 ‘미륵신앙’과 ‘기자신앙’의 연관성을 추정케 하는 양상이다.



[사진기 김녕리 윤씨조상당 신과세제 [2022.02.14.]

조상신 신앙 전승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신앙민의 신앙 전승 경우를 찾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되었다. 사례로 삼은 현씨 집안이나 윤씨 집안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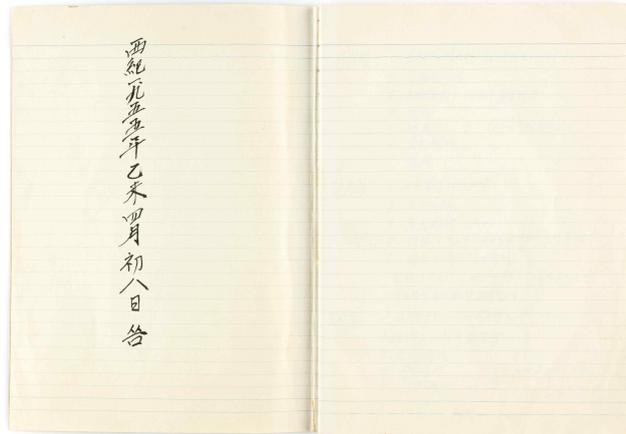
신앙민이 주체가 되어 의례를 전승하는 방식은 기제사, 명절제사, 무속 세시의례, 비정기적 무속 의례, 불교 사찰의 정기의례 등이다. 과거에는 조상신 의례도 문전제와 같이 일상 의례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전승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조상신 신앙 전승에 있어서 집안 단골의 주체성은 극히 미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 심방-이중춘 심방 잡기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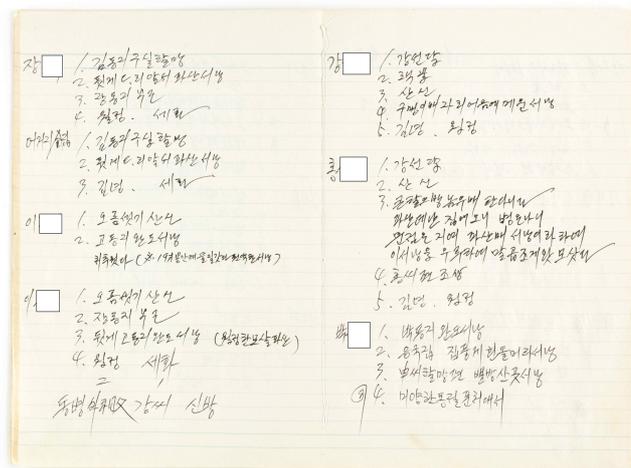
조상신 신앙은 단골 집안의 조상신을 기억하는 심방 집단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전승하고 있는 양상이다. 심방이 특정 집안의 조상신을 기억하고 전승할 수 있는 근거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단골 집안과의 인연이다. 오래된 인연을 통하여 집안 내 전승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단골 집안인 경우에는 그 집안의 성씨 등을 근거로 곳에서 조상신을 대우한다. 이러한 전승의 근거에 매인심방 제도가 있다.

조상신 신앙 전승의 주도 세력으로 심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다. 지난 2011년 작고한 이중춘 심방의 ‘잡기장’이다.<sup>100)</sup> 기록은 1955년 4월 초파일부터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속표지와 속지 중 한 장을 소개한다. 속지의 경우는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장에 걸쳐 단골 집안의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그외 조상신본풀이 몇 편과 굿 의례 방식과 관련한 메모를 정리한 기록이다. 출간된 자료에 기록 내용은 소개되었으나 수첩 실물은 소개된 적이 없어 그 중 몇 장을 여기에 실는다.

100) 이 잡기장은 지난 2013년 출간된 이중춘 심방에 대한 연구서에 <이중춘 심방 1955년 정리 노트-단골조상내력, 조상신본, 굿법절차>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소장품번호 067481); 김현선·신연우·강정식·강소전,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175~216쪽.



[사진 8] 이중춘 심방 잡기장 속표지



[사진 9] 이중춘 심방 잡기장 속지

기록을 보면 주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단골들에 대한 기록이며, 몇몇 행원리를 벗어난 제주도 내·외부 지역, 멀리는 서울, 일본의 단골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기도 한다. 집안의 가장인 ‘대주(大主)’의 이름으로 목록을 구성하였고, 대주를 중심으로 하여 부계(父系)의 기록 뿐 아니라 처가, 외가, 진외가 등까지 그 집안과 연결되어 전승하는 내력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조상신 뿐 아니라 그 집안에서 굿을 할 때 함께 언급해야 하는 연관된 본향신에 대한 기록까지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

한 기록은 심방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의 의미도 있지만, '알아야 할' 내용을 기록한 의미도 갖는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무업 활동을 위한 것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무업 활동의 전승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세심한 내력의 기록이 가능한 것은 매인심방 제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 사회의 기본 구조인 매인심방 제도를 통하여 그간 약화된 조상신 신앙의 전승이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매인심방 제도가 거의 무너진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조상신 신앙과 같이 집안마다 내용을 달리 하는 전승의 지속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심방 집단은 단골을 맺고 있는 집안의 조상신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주체로 현재 조상신 신앙 전승 양상에서 가장 주도적인 집단이다.

## 2. 조상신 신앙의 전승 양상

조상신 신앙은 무속 신앙 전승의 약화 양상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제주도 무속 사회를 지탱하는 두 골간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단골제도와 매인심방 제도가 모두 해체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듯 약화되어 가는 전승은 의례 양식의 변모 양상이나 타 종교와의 결합을 통하여 내적 전승력의 확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의 변모 양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지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신앙 전승 양상은 지속적인 관찰 속에서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 없이 변화하는 조상신 신앙의 전승 양상을 따라 이후 지속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 1) 조상신 신앙의 불교 의례 수용

제주도 조상신은 무속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신이지만 다양한 종교 관념을 넘나들며 전승한다. 유·무식(儒·巫式)을 넘나들고, 최근에 있어서는 불교를 통한 의례 양상도 확인되고 있다. 불교 정기 의례에 무속적 성격을 갖는 의례가 함께 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사실상 4월 초파일이나 백중기도 정도를 제외한 다른 의례의 경우 대부분 무속 신앙적 성격을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월 칠성제, 2월 용왕제, 3월 산신제, 7월 칠석제 등이 그러하다. 제주도에서는 많은 경우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절을 기도처의 하나로 관념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01)</sup> 이러한 관념이 집안의 조상신에 대한 의례를 절의 정기 기도회로 가져가게 하였다.

불교에서 조상신을 위하는 방식은 축원 열명에서 거느리는 것이다. 초파일이나 49재 등 불교 정통 의례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용왕제, 산신제, 신중기도 등 무속 신앙적 성격을 갖는 의례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도가 지전(紙錢)에 ‘신칩 일월’이라고 써서 가져 오면 함께 축원문에 올려서 거느리는 방식이다. 서귀포시, 표선읍, 남원읍 일대에서 여러 신앙민들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제주도 출신으로 현재 주지를 맡고 있는 스님과의 면담 조사에서도 중복 확인하였다. 상당수의 신도들이 현씨일월, 박씨일월 등 ‘일월조상’을 축원문에 올린다고 한다. 다음은 면담 조사에 응한 스님이 생각하는 일월조상에 대한 설명이다. “일월 조상은, 그 집에서 옛날에 조상 중에서 애기가 아프면 녀들임하던 할머니가 있든가, 침을 잘 놓는 할머니가 있든가, 신이면서도 신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모셔서, 그 집에만 가면 다 낫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걸 일월조상이라고 해. 안팎 칠성하곤 달라.” 불도일월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신신앙과 다르며, 조상 중에 신이한 행적을 보이는 경우에 조상신으로 모신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출신이라 신도들의 조상신 신앙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축원문에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었다.<sup>102)</sup>

무속 의례로 벌이던 크고 작은 의례를 불교승이 맡아 하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제주도의 경향 중 하나이다. 공동체 신앙이 법사나 보살굿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개인 신앙의 경우는 불교승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귀양 풀이와 같은 천도재, 철갈이와 같은 신년제가 대표적이다. 의례에 걸리는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불교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신성 혹은 신앙 관념을 갖는 조상신까지 이제 불교 의례에 견인되어 전체 조상신 신앙의 혼성적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101) “절에 몇 십년을 다니신 신도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대부분이 신앙심은 깊지만 불심(佛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심을 불심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2022년 8월 2일 서귀포시 소재 ○○사 주지 스님 면담 조사.

102) 2022년 7월 18일 서귀포시 소재 ○○사 주지 스님 면담 조사.

## 2) 조상신 신앙의 혼종성

조상신 신앙 전승에 있어 현재 주도 세력은 심방 집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앞에서 논의하였다. 신앙민들이 집안의 조상신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기억을 이어가고 있는 집단이 심방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심방 집단의 조직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조상신 신앙 전승은 그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래 인용한 글은 과거 현용준이 직접 경험한 심방 활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이다.

조상신 신앙의 전승 주체가 신앙민에서 매인심방으로 변모된 양상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상신 신앙뿐 아니라 제주도 무속 신앙의 전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심방 집단이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용준의 연구 논문에 언급된 1950년대 후반의 심방 활동 양상을 보면 매인심방의 활동에 대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필자가 본 바, 濟州市 龍潭1洞 男巫 安仕仁의 경우 舊正이 되자 新年祭인 <철갈이>를 하러 단골(信仰民家) 집에 나가지 않은 날이 2개월간에 불과 10일도 안 되었다. 이 한 사람뿐이 아니라, 조금 이름 있는 심방은 거의 이 정도다.<sup>103)</sup>

<철갈이>는 본향당의 신과세가 끝난 후부터 각 단골 집안과 매인심방의 조정을 통하여 일정이 정해지고 의례가 행해진다. 정월 중반 정도부터 시작되는 철갈이는 늦어지면 3월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는 현재도 비슷하다 특히 자신이 맡은 본향당과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심방들의 경우, 즉 전통적인 개념의 매인심방들의 경우는 현용준이 설명한 1950년대 상황과 거의 동일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필자는 2022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철갈이를 총 13회 조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중 한 곳은 코로나 전파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계

103) 현용준, 「濟州島 堂神話考」,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1992, 71쪽.

속 연기되다가 5월에 진행한 곳도 있다. 조사 지역은 조천읍 선흘리·함덕리, 구좌읍 김녕리·행원리, 성산읍 고성리, 남원읍 의귀리·신흥리, 한림읍 월령리 등이다. 의례를 행한 심방은 총 7명이었다. 대부분 문전제와 철갈이를 함께 하는 의례였으나, 칠성제, 토신제 등과 엮어서 철갈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 2명 정도의 심방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매인심방의 체계를 유지하며 무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세시적 성격을 갖는 무속 의례 활동에서 매인심방 체계를 유지하는 심방과 아닌 경우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매인심방으로 활동하는 심방이 있는 마을의 경우, 본향당에 오는 신앙민들 대부분이 당연히 신년제를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 대부분의 신앙민들의 일정을 심방과 단골들이 함께 조정하면서 개별 집안의 신년제를 하나하나 치뤄 나가는 양상이다. 오랜 세월 한 지역에서 함께 생활해온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인심방으로 활동하지 않는 심방의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으로, 신년제를 하는 횟수에 있어서도 더 적은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무속 신앙 전승의 기본 구조 중 하나인 매인심방 조직도 붕괴된 지 오래되었다. 특정 당에 매인심방을 맡은 심방의 경우도 그 당 신앙권과 동일한 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필자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20명의 심방 개별 조사에서 거주 지역과 당 맨 지역이 동일한 심방은 3명뿐이었다. 좀더 느슨한 기준으로 심방의 출신지나 인근 지역 거주지까지를 포함했을 때 5명이 더해져 총 8명 정도가 전통적 의미의 매인심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04)</sup> 필자가 개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심방들이 대부분 현재 본향당제나 어촌계 의례 등을 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조사 대상을 늘린다고 하여도 현재 정리한 매인심방의 비중이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매인심방이 없는 마을의 경우, 개인 의례를 당연히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매인심방에게 의뢰하였던 습속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곳을 하지 않는 무속인이나, 불교승이 이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 토신제나 조왕제의 이름으로, 독경을 읽어가며 의례를 올리는 방식으로 양식 또한 변화되고 있다.

104) 심방의 거주지와 당 맨 지역이 동일한 경우는 구좌읍 김녕리, 평대리, 남원읍 의귀리이다. 심방의 출생지나 인근 거주 지역으로 확장하였을 경우는 구좌읍 월정리, 하도리, 남원읍 신흥리, 한남리, 표선면 가시리, 토산리 등이 포함된다.

개별 집안의 단골이 더 이상 집안의 조상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현 상황에서 조상신 신앙 전승에 대한 심방 집단이 갖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앞에서 조상신 의례에 대한 논의 중 <뚝제>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그 자료 내용 중, 심방이 조상신을 거느려 가다가 본주의 시어머니 성씨를 묻는 대목이 나온다. 본주의 시어머니 또한 동일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역과 성씨를 확인하면서 ‘떨어지는’ 조상신이 없도록 확인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sup>105)</sup>

이제 거의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매킨심방 제도는 조상신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별 집안의 조상신이 갖는 특정성에 대한 혼란 양상이다. 각 성씨별로 대표적인 조상신본풀이가 있다. 예를 들어 순흥 안씨 집안의 ‘안판관’, 군위 오씨 집안의 ‘오설룡아기씨’, 평대리 부씨 집안의 ‘부대각’, 와산리 양씨 집안의 ‘양씨 일월’ 등이 그렇다. 그런데 특정 성씨라고 해서 그 성씨 집안을 대표하는 조상신을 모두 모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동이풀이>의 경우는 광산 김씨 집안에 전승하는 조상신 의례이다. 그런데 광산 김씨 집안 중 송당계와 명도암계가 다르다. 또한 ‘고전적’의 자손인 ‘고씨 집안’에서는 본풀이는 동일한 본풀이를 전승하고 있지만 의례로서 <동이풀이>는 전승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상신 내력의 세세한 차이를 아는 심방은 본주 집안의 성씨 내력을 좀더 세분화하여 파악해서 굿의 구조를 세워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상신 전승의 혼성적 양상을 일으키게 된다.

무속 신앙 전승의 근간인 단골 제도 약화와 매킨심방 제도 붕괴 등은 신앙 양상을 축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혼성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성성은 무속 신앙 내에서 조상신 신앙의 배타적 고유성을 해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무속 신앙을 넘어서는 혼성성으로 확산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05) 떨어지는: 청해야 할 신을 청하지 않는 경우.

## 제5장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이 제주도의 ‘태우다’라는 고유한 가치관을 근저로 하여 형성된 특별한 신앙 갈래임을 밝혔다. 또한 그간 토착적 신앙이라 인식되어 왔던 당 신앙과 조상신 신앙이 제주도의 고유한 ‘조상’에 대한 관념을 공유하며 발생한 것으로 유사한 신앙 발생 경로를 밝힌 것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는 본풀이에 드러난 ‘조상’ 관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본풀이 서사 구조, 신앙민의 신앙 관념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살피는 과정이었다.

본고가 가장 주목한 점은 제주도 무속 신앙에 있어서 ‘조상신 신앙’이 갖는 근원성이다. ‘태운 조상’, ‘혈연 조상’, ‘맺은 조상’으로 구분한 조상 관념의 유형이 조상신 신앙의 본풀이나 조상신 신앙 관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제주도 무속 신앙의 전체를 다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방향의 시작점을 제안하는 일이 본고가 가장 목적하는 바였으며, 이 연구가 그 방향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그간 제주도 무속 신앙에 대한 연구는 일반신본풀이 중심의 성과를 가장 먼저 축적해 왔으며, 이제 당 신앙으로 연구의 축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가 제주도 무속 신앙을 개별의 영역으로 분절시켜 영역별 연구로 이루어져 왔던 한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성을 확인하고 조상신 신앙에 대한 관점을 세우면서 대한 조상신 신앙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논의가 당 신앙과 제주도 무속 신앙 전체의 근원적 논의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의 요체가 되는 ‘조상’에 대한 관념은 개인 혹은 가정 차원의 신앙 관념으로 축소될 것이 아니며, 당 신앙과 당 본풀이에 대한 연구에서 공동의 논의 과제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를 새로운 관점으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조상신 신앙과 당 신앙 사이에 공통의 ‘조상’ 관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었다. 본고에서 시도하였던 당 본풀이에 대한 새로

은 구분은 좀더 다듬고 내적 연결성을 더욱 확보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주도 무속 신앙을 조망하는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가 ‘일월’, ‘군웅’ 등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조상’ 관념과 이 개념들의 맥락을 밝혀야 신앙 관념과 의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최대한 그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군웅본판’과 개별 집안의 조상신본풀이가 갖는 연결성을 해석하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가 조상신본풀이 중심의 연구에서 의례와 신앙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일월’, ‘군웅’, ‘군웅본판’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조상신 신앙이 ‘혈연 조상’에 대한 조상 신앙 관념으로 시작된 관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도의 특별한 신앙 관념을 형성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근원이 한민족이 공유하는 보편적 조상 신앙 관념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또한 이 과정은 이후의 연구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를 남기기도 하였다. 제주도 조상신 의례에서 대표적인 석살림의 <덕담>과 <지두셔>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조상 신앙과 연관된 고유 제차와 제주도 조상 의례가 갖는 연관성에 대한 논의도 과제로 남겨졌다. 이 논의는 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겠지만 결국은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이 갖는 보편적인 ‘조상신앙’의 연결성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주도 조상신 의례의 기본적인 특성은 고정적 제차가 없다는 점이다. 조상신 의례의 확장을 위하여 수시성과 유동성을 보장 받고자 하는 의례 형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군웅본판’에서 보여지는 ‘혈연 조상’ 유형의 조상 관념과 특별한 조상 내력담을 갖지 않아도 모든 집안에서 거느려지는 ‘교술 무가’ 형식의 조상신본풀이를 보았을 때 조상신 의례의 고정적 제차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 이 또한 다른 지역의 조상 신앙 제차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본고에서 조상신 의례와 관련하여 정리할 수 있는 성과는 조상신 의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본고는 조상신 의례를 제주굿 의례가 갖는 기본 요소를 적용하여 풀어보고자 하였다. 말로 이루어지는 ‘말명’이 중심이 되는 ‘거

느리기'와 행위로 이루어지는 '춤'과 노래가 중심이 되는 '놀이'가 조상신 의례에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의례의 기본 요소가 중첩되고 확장되면서 '풀이'와 '맞이'의 단독적인 의례가 형성된다. 본고는 이러한 기본 개념을 근거로 하여 <동이풀이>와 <일월맞이>를 살펴 보았다. 아직 채워야 할 구석이 많은 채 마무리 되었다. 이 주제들은 개별적이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풀이와의 연관성, 의례 전승의 차원에서 더 밝혀야 할 논의가 남았다.

제주도의 조상신 신앙은 가장 초기적 신앙 관념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새로운 '조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장구하면서 동시에 새롭다. 인간 세상의 존재가 신격으로 좌정해야 하므로 그 내력이 절절하고 생동감이 흐른다. 이러한 신앙 관념을 드러내야 하니 의례 또한 확장적이며 또한 포용적이다. 제주굿 의례에서 심방의 주도성을 벗어나는 몇몇의 의례 중 대표적이다.

제주도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 또한 신앙의 이러한 특성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현장 중심으로 이어져 가길 바란다. 조상신 신앙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채록되어 보고된 자료만을 보았을 때는 대부분 중단된 신앙으로 여겨질 만큼 변화되었다. 조상신의 일상 의례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무속 의례 틈새에 여전히 조상신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여전히 조상신 신앙이 전승해 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양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상신 신앙 양상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제주도 무속 신앙의 근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조상신 신앙의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조상신 신앙과 당 신앙과의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위에서 짚었던 미진한 내용을 이후의 과제로 남기며 하나의 단락을 정리하고자 한다. 조상신 신앙의 의례가 거느리고 놀리면서 신을 내세우는 '신이 나는' 자리가 되듯이 조상신 신앙에 대한 연구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후의 진전을 기약한다.

## [참고 문헌]

### <연구 자료>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국립무형유산원 편, 『제주도 동북신굿-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2019.
- 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큰굿-1986년 신촌리 김윤수 심방집의 신굿』, 제주특별자치도, 2010.
- 장주근, 「부락 및 가정신앙」,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1974.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허남춘·한진오·강소전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허남춘·송정희·강소전 외, 『고순안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허남춘·정희종·강소전 외, 『서순실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단행본>

- 고광민·강정식, 『제주도 추는굿-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국립무형유산원 편, 2006.
- 김헌선, 『한국고전문학전집 18. 일반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 『서울굿, 거리거리 열두 거리 연구』, 민속원, 2011.
- 김헌선·신연우·강정식·강소전,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 서울대학교 규장각·서대석 해제, 『巫堂來歷』, 민속원, 2005.
- 이규보 씌, 김상훈·류희정 옮김, 『동명왕의 노래』, 보리, 2005.
- 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창비, 2013.

- 이원진, 김찬흡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이형상 지음, 김새미오·이진영 역주, 『남환박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22.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조동일,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지식산업사, 2006.
-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 1993.
- 현용준, 『제주도 전설』, 1976.
- ,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 , 『제주도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赤松智城·秋葉隆 共編, 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 Mircea Eliade,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한길사, 2012.

#### <논문>

- 강대훈, 「며느리 따라오는 무서운 조상신:제주 도채비신앙과 혼인기피 관습에서 드러나는 유교이념과 실용논리의 충돌」, 한국문화인류학 54, 2021.
-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 2010.
- ,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연구 27, 2016.
- , 「조상신본풀이 자료 현황과 특징」,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학연구센터, 2022.
- 강정식, 「선흘리의 마을신앙」, 『濟州學』 제8호, 2014.
- 권선경, 「서울곳에 나타난 군웅의 의미」, 『한국무속학』 제19집, 2009.
- , 「서울지역 마을곳에 나타난 군웅곳의 유형과 의미」, 『비교민속학』 제51집, 2013.
- , 「동해안곳에서 군웅의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25권 0호, 2014.

- 김형근, 「지두서(指頭書) 유형 무가의 비교 연구-교술 창세무가의 양상과 의미」, 『민속학연구 제33호』, 2013.
- , 「하나의 이름 다양한 얼굴, 한국무속신 균웅」, 『한국무속학』 제30집, 2015.
- , 「무가와 연행 맥락 해석을 통한 경기도 도당굿 ‘균웅’의 성격」, 『실천민속학연구』 제27호, 2016.
- 김혜정,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양씨아미본풀이>의 유형별 특징과 의미」, 어문논집 88, 2020.
-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 「조상신본풀이 전승 양상-<부대각본>과 <양이목사본>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38집, 2019.
- , 「제주도 조상신 '광청아기씨' 신앙의 형성 배경 고찰」, 한국무속학 42, 2021.
- 박주은, 「문학치료학적 가족상담을 위한 <광청아기본풀이> 서사분석과 가능성 탐색」, 구비문학연구 63, 2021.
- 송정희,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경화, 「<양씨아미본풀이>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무속학』 36집, 2018.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현정, 「<고전적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52, 2019.
- , 「제주도 나주출자 뱀신앙 연원 일고찰」, 국문학연구 45, 2022.
- , 「조천리 순흥 안씨댁 <나주기민창조상본>의 특수성과 전승 의미」, 한국무속학 44, 2022.
- 장주근, 「제주도(濟州島) 무가(巫歌)(一)」, 『국어국문학』19, 1958.
- , 「삼성(三姓) 신화(神話) 해석(解釋)의 한 시도(試圖)」, 『국어국문학』 22호, 국어국문학회, 1960.
- , 「제주도무속의 도깨비 신앙에 대하여」, 『국어교육』 18권0호, 1972.

- , 「부락 및 가정신앙」,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 <2.씨족조상신>,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 「한국 민간신앙의 조상숭배-유교 제례 이외의 전승자료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15권0호, 1983.
- , 「무속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8권0호, 1986.
- , 「제주도 무속과 신화」, 『제주도연구』 제6권, 1989.
- 정진희,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32, 2009.
- 조성윤, 「정치와 종교: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사회와역사』 53집, 1998.
- 조현설, 「말하는 영웅-제주 조상본풀이에 나타난 영웅의 죽음과 말을 중심으로」, 『동방문학비교연구』 7, 2017.
- , 「제주 본풀이에 표현된 집단기억과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고전문학연구 58, 2020.
- , 「군웅신의 배치와 제주 무가의 지정학적 정체성:박봉춘 본 <군농본푸리> 재론」, 한국문학연구 68, 2022.
- 진성기, 「초감제 풀이」, 『한국무속학』 6집, 2003.
- 허남춘, 「칠성과 부군신앙, 뱀신앙」, 『비교민속학』 58집, 비교민속학회, 2015.
- ,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 2016.
- 현승환, 「제주도의 상례와 무속」, 제9회 한국전통상례문화 전승 및 세계화 방안 국제학술세미나 <도서(島嶼)의 상례(喪禮)>, (사)나라얼연구소, 2022.
- 현용준, 「무속」,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 「불교민속」,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1974.
- , 「濟州島 巫神의 形成」,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 현용준·현승환,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홍기표,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제주도연구』 제49집, 2018.

홍태한, 「서울곳의 유흥성을 바라보는 시각」, 남도민속연구, 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 A Study on the Ancestral God Faith in Jeju Island

Jin-Ok Ryu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Ancestral God Faith' in Jeju Island, focusing on the correlation between *Josangsin Bonpuri* [Ancestral God Faith Myths] and rituals. In addition, through the process of newly establishing the connection with '*Dang*' Faith [the community guardian faith], it was intended to newly define the meaning of 'Ancestral God Faith' within Jeju-do shamanic faith. It is based on reflection on 'Ancestral God Faith' Research, which has so far focused only on analysis of *Josangsin Bonpuri*.

A new concept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ancestor' which is the fundamental faith concept of 'Ancestral God Faith'. The 'Ancestral God Faith' in Jeju Island also share the universality of 'ancestor worship' passed down in various regions based on the unique view of the soul of the Korean people. However, it is not limited to this, and as the concept of 'ancestor' expands, it acquires multifaceted characteristics.

This special notion of 'ancestors' constitutes the deity of the 'Ancestral God Faith' in Jeju Island, and the aspect of being divided into 'blood ancestors', 'related-ancestors' and 'innated-ancestors' was clarified. The concept of 'ancestors', which is divided into three types, is consistently

applied to *Josangsin Bonpuri* and rituals, and this content was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 *Josangsin Bonpuri* belonging to individual types.

'Blood ancestors' are the ancestors of the family that are served through the four generations ancestral rituals, which are universal ancestor rituals. The ancestral god of the 'blood ancestor' type basically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a livelihood guardian deity in *Josangsin Bonpuri*.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Gunungbonpan[the origin edition of Gunung]', which had not been explained so far, it was explained that 'Gunungbonpan' was unraveling various livelihood guardian deity of the type of 'blood ancestor'. While revealing the same identity of the ancestral rituals of Jeju Island and the 'Gunungbonpan', which share various ancestral rituals, the origin of the 'Ancestral God Faith' in Jeju Island, which was formed while accepting ancestor worship of the mainland, was confirmed.

The ancestral god of the 'related-ancestors' type are 'related' ancestor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with 'blood ancestors'. This type was formed based on the notion of 'vengeful spirit' among the unique view of the soul of the Korean people. It is common for a being became 'vengeful spirit' for various reasons, who is 'unqualified' as an ancestor to become a soul of an ancestor who has 'qualified' through a special history and sits as an ancestral god. This type forms *Josangsin Bonpuri* that reflects the aspect of exchange with the mainland.

The ancestral god of the type of 'innated-ancestors' is an ancestor god who sits in a seat based on the special philosophy of 'Taewooda[innated]' in Jeju Island. It reflects the concept of natural faith and reveals the aboriginality of Jeju Island. By applying the concepts of 'blood ancestors', 'related-ancestors' and 'innated-ancestors', which divided the deity of 'Ancestral God Faith', to the division of *Dangsin Bonpuri*, an attempt was made to reveal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Ancestral God Faith' and

the 'Dangsin Faith'.

Until now, studies on shamanic faith in Jeju Island have not paid close attention to the notion of faith in 'ancestors'. For this reason, the notion of 'ancestors' and 'ancestor gods', which are the aboriginality faith, was reduced to the notion of faith at the individual or family level.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limitation in not being able to establish an extended concep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cestral God Faith' and 'Dang' Faith. Th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new types of 'Dang' Faith and *Dangsin Bonpuri* provide an opportunity for new exploration in looking at the entire shamanic faith in Jeju Island.

*Dangsin Bonpuri*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story of the gods' and 'the story of gods and humans'. *Dangsin Bonpuri* which is the 'encounter of gods and humans' took place, can be equally divided into the three types of *the Josangsin Bonpuri*. Through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Ancestral God Faith' and the 'Dangsin' Faith were a branch of faith formed based on a same notion of faith. This direction of analysis raises a new discussion on the entire shamanic faith in Jeju Island.

Through this thesis, an intensive discussion on the rituals of 'Ancestral God Faith' wa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The rituals of 'Ancestral God Faith' have fluidity as their basic characteristic. It is not fixed to a specific ceremony and is not fixed to a specific style. Regarding the rituals of 'Ancestral God Faith', which are revealed in fluidity and diverse styles, typification was attempted based on the components of Jeju-Gut(the rituals of shamanic faith in Jeju Island).

The rituals of 'Ancestral God Faith' are divided into the types of 'geonelligi[worship by oral way]', 'nolligi[worship by song and dance]', 'pul-i[exorcism]', 'maj-i[individual complete ritual]' and these types are performed in various order in Jeju-Gut in a flexible way.

This thesis attempted to examine the shamanic faith of Jeju Island holistically in a single system by taking a new view of the 'Ancestral God Faith' and the 'Dangsin' Faith with the same standard. In addition to these central discussions, individual concepts surrounding the 'Ancestral God Faith' that have not yet been clarified were pointed out together. Ilwol, Gunung, Jeseok, Gunungbonpan, etc. In addition, while contemplating the subject of the transmission of faith, the role of the believer and the master 'Simbang' was examined together.

By revealing that the origin of the 'Ancestral God Faith' in Jeju Island, which has been studied with a special concept of faith, is derived from the universal 'ancestral worship' of the Korean people, it was possible to further reveal the specialness of the 'Ancestral God Faith' in Jeju Island.

In addition, a new clue to the formation of shamanic faith in Jeju Island was obtained by revealing that the 'Ancestral God Faith' and the 'Dangsin' Faith, which had been studied as separate branches, were formed from a same notion of 'ancestor'.

Above all, by starting a discussion on the rituals of the 'Ancestral God Faith',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the 'Ancestral God Faith' as 'faith'.

## [부록]

### <자료 1> 뜻제 : 살려옵서 中 [2022 .1. 9. 서순실 심방]

일월입네다. 이 김칩이 옛날 통경대부 가산대부 놀던 [요령] 일월조상님도 살려옵서. 예순 아홉 나준 어머니 펜으로 [요령] 일월조상님네덜토 다들 살려들 [어명 성이 뭐지? 시어머니 성.][본주 : 한씨.][한씨, 서김녕 한칩이야.] [요령] 한동지 하르바님 [요령] 동지베슬 허던 일월조상 송동지영감 이물 받은 선양 고물 받은 선양 [요령] 마카이 토시연분 지장님 용도머리 놀앙 읍던 [요령] 신중선양님 충청도 여산고을 네동지떡님아기 [요령] 신오월 열사흘날 이구십팔 [요령] 열으둑 술 허나 죽일 목숨 둘이 [요령] 죽어 원역 뒤텍 읍던 광청[요령] 할마님 진바당 진소리 즈른 바당 서우제 [요령] 닷강기로 히밀라기 줄풍레 신정국에 [요령] 대축대로 낮도 영청 밤도 영청 놀던 광청할마님네덜토 이 즈순덜 오래간만이 조상 좃안 오랏수다 오리정 하멧잔 받으멍 제칭드레 [요령] 다 살령 읍서. 고칩이도 [요령] 옛날 묵고 묶은 산신 [요령] 일월조상 책불 스당백관임네 [요령] 신중선양님 누립서 나주던 어머니 [요령] 김씨어머니 펜으로는 김스갓하르바님 나경판 지남석 [요령] 놀던 책불일월이로구나. 벨방 [요령] 고훈장떡님아기 좋은 몸천 전싱 그리치젠 허난 양반잇집 스당 [요령] 공쟁이 낫덴 혜영 심방질 못헤게 허난 굴미굴산 올라간 어욱폐기 [요령] 끊영 감상기 만들앙 굿 혜영 가난 이거 아니 웰로구나 김스갓하르바지 [요령] 데려다근 무쇄설갑 짱 그 속에 담앙 [요령] 벨방 상콧들로 던지난 들물고개 [요령] 썰물고개 물로이도 [요령] 연삼년이로구나 물아래도 [요령] 연삼년 한개에 [요령] 축항으로 이 무쇄설갑 [요령] 올라시난 누게 손메가 뒤킷느냐 김스갓하르바지 손메네완 니네 집이 테운조상이연 [요령] 가정 가렌 혜연 열언 보안 고훈장떡님아기 남대 육대 즈죽대 [요령] 저적몰락 혜영구냥 밧거리 방에 녹전 모인좁 쓸 죽을 쭈언 보리찌끼기로 [요령] 맥이멍 고훈장떡님애기 살아나난 [요령] 마흔으둑 상단골 서른으둑 중단골 [요령] 스물으둑 하단골에 췌동냥 혜연 삼천기덕 일만지기 [요령] 멩도 멩천 거느리영 낮인 [요령] 네난가이 밤엔 불췌가이 마련혜연 삼시왕에 [요령] 종명혈 적에나 이 김칩이 심방 즈순은 [요령] 아니 네와주마. 할망상으로 메 헛 기 올려주고 기일제스 때도 [요령] 메 헛 기 올려주고 바당으론 지 헛 장 [요령] 바껴주렌 영 혜연 친정어머니 펜으로 줄이 벌던 고훈장떡님아기 어서 몸을 받은 조상님도 살려옵서. 오리정 하멧잔입네다.

### <자료 2> 삼양 장동지본풀이 [2022. 4. 19. 이용옥 심방]

삼양, 장칩이 그디도 장동지영감. 그디는 아들 일곱 성젠가, 일곱 성제를 낳는다 하르방이 고기 낚으레 갓인디, 태풍이 불어분 거라, 계난, 바람이 불러 가분 것이 유리안란국을 가분

거라.<sup>106)</sup> 겐 가부난 하르방은 막 배멀미하고 뭐시기 정신 차려 보난 섬에 가졌거든, 게난 배 고프고 막 시장허난 손으로 판 감저 판 먹언, 경 헨 먹어넌 이젠 어땡어땡 이젠 막 엇물런 말 통 외국 나라라, 게난 말 통변헨 보난 유리안란국이라. 경 이제 집에서는, 집에서는 이제 아들들은 이젠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던 막 태풍 막 불어불곡 연락도 엇곡, 게난 돌아가셨던 헤연 막 헤신디, 예 소상날, 소상날은 게난 가물개라 가물개, 가물개 장칩이, 게난 감수동이, 소상날은 막 두건들 이젠 허고 경 헤연 소상허렌 허난 하르방은 게난, 태풍에 배가 부서져부난 배 쪽판 허나 으지허연 그 유리안란국 섬엘 올랐덴, 경 허연 이제 거서 어땡어땡헨 이젠 제주도로 온 거라. 게난 아무 것도 안 들런 담뱃대 하나만 들런, 하르방이 그 먼머리동산, 가물개 먼머리동산 그 동산이로 이젠 집드레 오는 거 아니, 와가난 이제 그 하르방 오늘 거를 본 사람이, 소상허는 집에 가네 그 얘기를 했거든, “저기 느네 아버지 살안 왔덴.” 허난 이제 막 두건 쓴 양 상복 입은 양 다 놀아간 거지. 가 보난 진짜 아버지가 이젠 온 거라. 게난 이젠 아버지 모셔다네 참 두 일퀘 열나흘 정말 호걸런 이젠 잔치를 허연 하르방이 살았인디, 이제 하르방은 죽어불곡 그걸 조상이라 생각을 안허고 그 냥 사는디, 여섯 번쩍 메뉴리에 막 으탁이 댜 거라. 막 아판, 경 헨 굿 허난 막 춤 추단 입으로 막 뻘뻘린 거라. “난 영영 헤연 유리안란국에서 뜰라온 조상이엔.” 허렌 경 허곡 하르방 탕 간 파사뉘 분 배, 선양, 지금도 저기 모셔 있어. 그 삼양3동에 나 바닷가에 제 드리레 가났지? (조사자 : 네.) 그 서쪽에 영 돌 쪽에 보면 걸 모산 있어. 그 장칩이서는 이제 집에 일 념길레면 그 나시 상을 허나 놔. 집에서 상 놔, 그디 거는 문밖 따로 이제 다 제반 걸어. 그디 가그넝에 비웁고 경 헤영 문 더꺼두곡 행 경 행 와. 거기 조상이 된 거지. 유리안란국에서 따라온 조상도 기고 또 그 배 선양, 배 선양, 파산배 선양. 경 영 헤가명 그 조상도 놀리곡 헤가명 하르방도 같이 놀려주곡 허는 거주게. 하르방 연줄로 경 똬기 때 문에.

### <자료 3> 일월맞이 : 석살림>놀판 [2021. 5.15. 양승건 심방]

#### 석살림 >놀판>떡담

[요령을 들고 흔들면서 초석을 크게 돈다.]

106) ‘유리안란국’은 ‘유구국’과 ‘안남국’의 변형된 전승으로 보인다. ‘유구국(琉球國)’은 현재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류큐제도 일대에 있던 국가인 ‘류큐왕국’을 말한다. ‘안남국(安南國)’은 현재 베트남 지역을 칭하던 명칭이다. 탐라국은 쿠로시오 해류를 통하여 타이완-류큐제도-규슈 등지와 활발한 교역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역과 함께 표류의 기록도 남아 있는데, 특히 14명의 표류민에 대한 기록을 남긴 정운경(1699~1753)의 『탐라문견록』이 대표적이다. 정운경은 1731년 9월 제주에 입도하여 만난 제주민들 중 대만, 유구, 안남 등에 표류했다 돌아온 표류민의 기록을 남겼다.

아리소~.

아 지치고 다쳤구나-.

야 양씨부인님 홀로 단신 이곳 땅 찾아들엉, 정성 허저 굽영 일억 굽영 일억 절 허저 지치고 다쳤구나-. [요령]

에- 신이성방님네도 삼춘님네, 야 곳 허저 쟁 허저 [요령] 지치고 다쳤구나-. [요령]

야 뱃사람은 날이 좋으면 내일내일로 놀자 하고 원정승 팔자 곳은 신이성방님네 신이아이는 오늘오늘로 놀자 허는구나-. [요령]

야 이거 집안일월 조상님네 [요령] 다 풀려 놓서.

오늘 오늘 오늘은 오늘이라.

날도나 좋아 오늘 [요령] 이라.

날도나 좋아 어제 오늘. [요령]

성도 험만 가실소나. [요령]

정드레 일광 몇천 진정 [요령]

부름산도 놓고 가져. [요령]

구름산도나 쉬고 가져. [요령]

앞마당에는 남서당 놓고 뒷마당에는 여서당 [요령] 논다.

월매 뿔 춘향이는

이도령 품에서 잠들었구나. [요령]

명사십리 해당화야 [요령]

꽃 진다고 너는 설워 마라. [요령]

백년대철 춘삼월 되면

죽었던 나무도 송갯 나고 [요령]

강남 갔던 제비새도 [요령]

삼월삼진 되면 이직 또 찾아오건마는 [요령]

우리 인간은 한번 죽어지면 다시 또 못오는 건 우리 인생이로다. [요령]

노세 놀아 젊안 놀아 [요령]

늙어나 지면은 못노나니 [요령]

황공담풍 제갈량도 [요령] 육곡 달래든 소진장계 [요령]

급헌 처서가 달래오민 못달래어 죽어지든 그만이로구나. [요령]

영희정 우의정 좌이정이어 삼정승 육판서 7튼 양반도 [요령]

흔번 죽어지면 그만이로구나. [요령]

젊어 청춘 소년들이 늙어 백발을 조롱 마라. [요령]

어제 청춘 오늘 백발 [요령]

늙어나지면은 서럽난게 [요령]

노세 놀아 젊아 놀아. [요령]

늙어나지면은 못노나니. [요령]

### **석살림 >놀판>덕담>군옹본판**

군옹에 본초가 어덜르나

군옹에 시조가 어덜러나 [요령]

군능하르방 천왕제석 군옹할망 지왕제석 [요령]

군옹아방은 낙주게남 군옹어명은 해수게남

아들이사 삼형제 난다. [요령]

큰아들은 솟아나서 동해바당을 초질 허곡 [요령][본주가 일어서 함께 춤을 춘다.]

둘чат 아들 솟아나서 서이와당을 초질 허곡 [요령]

족은아덜 솟아나서 [요령] 흔덕 굿어라 내 팔자여. [요령]

흔덕 굿어라 내 스주여.

대공단 고까른칼 머리 삭발 두고 [요령]

줄줄이 누벼라 삼동바지

저고리 수페미녕 [요령] 두르막 입고

흔침 지른 굴송낙이 [요령]

두침 지른 비랑장삼 [요령]

흔 손엔 금바랑 또 한 손엔 옥바랑

한 번을 똑딱 궁글치민 [요령]

강남은 가면 황제군농 [요령]

두 번을 똑딱 궁글치난 일본은 가면 스제군농 [요령]

세 번을 똑딱 궁글치난 우리나라 데흥데비 스데비여 [요령]

한사팽풍 족지팽풍 [요령]

### **석살림 >놀판>덕담>조상본풀이**

뒤에서 놀든 일월조상

이 집안네 뭍고 뭍은석살림 >놀판>덕담 (양승건/북 : 이용순)

산신일월도 풀려놔서. [요령]  
 현감 벼슬 받아나 오고 [요령]  
 오설룡에 하르바님 쉼 벵수에 물 벵수에 [요령]  
 ○○ 거느려 오던 일월  
 이 집안에 일월조상님 [요령]  
 신나락 만나락 풀려놔서. [요령]  
 이 자손덜 동안데주 오씨로나 일은여섯  
 양씨부인 일은여섯 신체건강을 나수와줍서.  
 명과 복을 제거줍서. [본주가 절을 한다.]  
 족은아덜 육지 살앙 먹을연 입을연 나수와줍서.  
 자손 번성을 나수와줍서.  
 손지애기 열흔설에 혼이일곱설 쌍둥이웨다.  
 글 장원 활 장원 나수와주고 수명 장수 복 장수나 [요령]  
 이번 집안 조순들이  
 재수 스망을 나수와줍서.  
 막음 먹고 뜻 먹은대로 소원 성취를 나수와줍서.  
 [음영]에- 조상이 낙허면 조손도 낙허는 법입네다.  
 [신칼점] 이 정성 받아근 [신칼점] 해년마다 해오곡 한 해 걸릿수다만은 이만한 정성이 [신  
 칼점] 어딴습네까. 야 윈조부도 좋수다만은 나이 만만허여 일은여섯님 [신칼점] 이 정성  
 [신칼점] 다하여 감시난 [신칼점] 그만헌 발복을 네수와줍서.  
 [본주에게 분부]이거 신나락 만나락 다 풀려 논덴예. 좋은 정성 허염수다. [일어선다.]  
 [이○○ 심방이 조상본 풀라고 하지만, 군위오씨 조상본 풀어본 적 없다고 양○○이 못한  
 다고 함.][군웅치매 벗음.][이○○심방 : “어기여차 닷강기 불러라.”]

### 석살림 >놀판>서우제소리

에 어기여차 닷강기 소리로 풀려 놀자. [요령]  
 어- 어허허야 어야디여 상사로다. [요령][이후 소미들이 후창한다.“아-하- 아하하요 어허어  
 허야 어-허-요”]  
 일월이 놀자 제석이 놀자 간장 간장을 풀려 놀자 [요령]  
 이 집안네 뭍고 뭍은 일월 조상님네 다 풀려 놔서. [요령]  
 옛날이라 옛적에는 제주 절승 입도를 허난 [요령]

큰가지는 정이 차지히고 셋가지는 선흘 차지 하고 [요령]  
 죽은가진 명월 차지 하여 직함벼슬 받아나 오든 [요령]  
 오설룡에 하르바님 간장간장을 다 풀려놓서. [요령]  
 청삽사리 흑삽사리 네눈이 반둥개 거느려오고 [요령]  
 마세조총 거느려오고 은썰 단설 녹미녹썰이 [요령]  
 테역장오리 물장오리 동남어깨 서남어깨 [요령]  
 ○○○라 오든 산신일월 산신백관 다 풀려 놓서. [요령]  
 쉼 백수에 물 백수에 수장남에 수벨감에 [요령]  
 훤은 책에 훤은 글씨 줌진 책에 줌진 글씨 [요령]  
 삼만관속 육방하인 청일산에 백일산에 [요령]  
 놀아나오던 집안 일월 신나락 만나락 다 풀려 놓서. [요령]  
 이 집안에 즈손들이 재수 소망을 나수와줍서. [요령]  
 송낙 전지 그놀르나 술전지로 그놀르나 [요령]  
 뭍고 뭍은 일월조상 달빛 비추듯 햇빛 비추듯 [요령]  
 이 집안에 즈손들이 불성 뭍은 질 발라줍서. [요령][요령을 공깃상에 내려놓는다.]  
 [음영]아- 신나락 만나락 다 풀려놓서. [신칼점]  
 어기여차 닷강기 소리로 [신칼점] 일월조상이 몸받아 [신칼점] 아이고 고맙수다.[신칼을 들  
 고 일어선다. 신칼을 공깃상에 내려 놓는다.]

**<자료 4> 시왕맞이 : 상당죽임>동이풀이 [2022 .2. 12. 김돌산 심방]**

일월조상님~.

[음영] 김전적하르바님이로구나 고전적하르바님이로구나. 야 나 부모 혈속 탄생허나네.

노는 것도 글소리여, 자는 것도 글소리여, 구덕에 누워 앗앙 잘 때도 글소리여, 혼 설 두  
 설 여남은설 뉘어가난, 글서당에 글 부찌난,

[음영] 선생님 하늘천 허면 따지 따지째 허면 집우 천하문장 지하문장이

뉘옵데다예-.

김전적 고전적 하르바님

[음영] 천하문장 지하문장이 뉘난 야 이십스물이 뉘난

입장 갈림을 허엿구나.

입장 갈림 허나네

[음영] 야 저 예촌 양택이 구덕 혼서 험데다.

하르바님은, 서울 상시관이 과거를 보러 가난, 야 한양고을 한양 성간, 들어가나네,

[음영] 야 전적베실을 답데다.

하루 이틀 사는 게, 훈 덜 두 덜, 훈 덜 두 덜 사는 게, 연삼년을 살았구나.

[음영] 이제 제주와당드레 들어오젠 허난

야 어떻 험 곱닥헌 애기씨가

[음영] 집이 가민 누게 잇수쥬 허난 똥 하나 잇젠 허난, 연반물 치메 진녹색 저고리 느전나  
전 부전이여 다 해난, 하르바님 내일 모레 스오시날은  
배질 헤영.

[음영] 제주드레 가켄 허난, 야구 나두 가쿠덴 허난

아이고 아니 제주사름

[음영] 육지 못 가고 육지사름 제주 못웃 떼에  
에-

[음영] 이제 아무 날 아무 시간이나 오젠

허난, 하르바님은 베실 살안 오단 보난

[음영] 야 어떻 험 애기씨 호합상저

머리에 잉어근, 전솔남बाट디로 들어가는구나.

[음영] 어떻헌 에펜이 양반이 행착을 허는디 압을 가렴신고 저년 강 심어오렌  
허나네, 야 좃을 수가 엇엇구나. 야 배질 헤여근, 오젠 허나네

[음영] 애기씨, 호합상저 머리 잉은 애기씨가 배 우트레 올르젠 허난

이물 받은 이사공, 고물 받은 고사공, 배 추판을 등겨보난 호합상제, 물러레 털어지어보난,  
현감님 담배는, 지픈 바당, 호합상젠 야픈 바당, 현감님 담배 갈치와당, 에 메역바당,

[음영] 야 호합상젠 저 화복 금돈지 알로  
올랏구나에-.

금돈지 알로 올르나네,

[음영] 애기씨 몸종 악쟁인 연세답 허레 가난 야 호합상제 봉갓구나 올안 보난 클런 보난  
야 느전이여 나전이여 연반물 치메 진녹색 저고리 잇이난 그거 봉가다 애기씨 입지난  
노단 어쥬 청주녕이 기는 듯, 웬독진 흑주녕이 기는 듯, 허여 가난, 어떻 허코.

[음영] 미추쟁이 광절뎡이 어루쟁이 두리거 훈 날 훈 시 뉘엇구나. 아이고 그거 입으난 예  
촌 양택이, 구덕 혼사 허는 디, 그레 막 돈단 보난 범주리 가시에 세비낭 가시에 옷은 문  
딱 찢어지고, 야 손에여 발에여 피 찰찰 낫구나. 예 그디 간 보난 모 심엄시난, 나룩बाट  
모 심엄시난 이레 참방 저레 참방

모 싱거 두고,

[음영] 야 그디 어른덜 모욕시겨 녹젓이난, 야 현감님은 악쟁이신디 애기씨 어디 가신덴 허난 아까 있던게 모르쿠다. 이년 저년 애기씨 아니 찾아오민 청뎃섭에 목 걸려 죽이켤 허난 애기씨 어딜 가신고,

[음영] 훗단 보난, 옷은 문딱 찾아지어 가시자왈에 범주리 가시에 문 잇이난 그 옷 보고 찾아진 거 찾아명 그거 푼르명 강 보난  
저 예촌 양덱이 가지엇구나-.

[음영] 아이고 이디 우리 애기씨 왓십데겐 허난, 아이고 어제 그지게날 완 모 심단 저디 방에 모욕시겨 녹진, 아이고 애기씨 상전님신디 간,  
애기씨 상전임아,

[음영] 훈저 집이 걸읍서, 상전임 큰상전임 오란 훈저 둘안 오란 햄수다. 이년아 어느 것 청가메나 백가메나, 아이고 청가메도 엇고 백가메도 엇고, 나 등드레라도 돌아입서.  
걸랑 기영 허라, 빈동남밭길로 놀고 가자, 안세미로도 놀고 가자, 밧세미로도 놀고 가자, 비경남밭딜로, 놀고 가자, 볼레낭 동산으로 놀고나 가자, 영 허명

[음영] 야 오단 보난 집이 다 와젧구나. 야 현감님은 문 곳인 방안에 갇혀부렸구나에-.

문 곳인 방안에 갇히난 죽역살악,

[음영] 어루쟁이 더루쟁이 막 헤여가난, 아이고 아무 때도 어뎡 답답허난, 저 삼양 설가물 개 이월네신디 간 문점 허난 곳 헤여 사쿠다, 양반이집이 곳이엔 현 게 무신 말이여, 경해도 곳 헤여 사쿠덴 허난

큰곳 허저, 천도천왕 지도지왕 인도인왕 상간지 오룬지법으로,

[음영] 천상긴 지늦추고 지왕긴 지드투고, 천지 염렛데 지리 양상기 나부 줄전지  
야 줄 싸메연, 안으로 만스 스웨당클, 야 줄 싸메연, 초감제도 넘어든다 초신맛이 넘어나든다.

초상게, 각당 하정 넘어든다, 보세감상 넘어든다, 할마님맛이 넘어든다, 초공 풀어 초공맛이 이공 풀어 이공맛이 삼공 풀어 삼공맛이, 넘어나든다, 시왕연맛이 때 근당허난,

[음영] 야 큰심방이 허는 말이 오리정 신청괘가 뉘연 야 조상덜 일월 때가 뉘여가난, 애기씨 얼굴 스난 시겨사쿠덴 허난, 양반이 집이 얼굴이엔 현 게 무신 말이,

야 악쟁이, 몸전, 돌아당 춤추게 헤여가난 안네선 큰곳이여 바깳디선 족은곳이여,

[음영] 아이고 춤 추명 이젠 그 곳 무깐, 야 신이성방덜 갈 때 허는 말이, 내일모리 사오섯날 일주일 넘어 동네에 초흔 소리가 나민 애기씨 산 중 알곡, 초흔소리가 아니 나민 애기

씨 죽은 중 압센 헤연 일주일 녀언 초흔소리 아니 난 문 올안 보난, 애기썸 동이 앓든 사  
런

죽엇구나-.

동이 앓든 사런 죽어부나네, 애기씨 엄토감장 시겨두고, 애기씨 죽으난 현감님도 죽읍데다  
현감님도 죽으난, 그 택일 현

[음영] 정시도 죽읍데다. 정시 죽으난

악생이도 죽읍데다에-.

[음영] 훈 무던 헐 디 네 무덤 헤엇구나. 야 현감님은 죽연 저싱 가난 즈순덜 인간에 사남  
받으렌 오랜 허난

[음영] 내려오람시난, 양씨에미 어진 조상 야 개장국에 몸모욕 시겨 죽연 물어부난  
아이고 농농절에 앓안 울업고나.

[음영] 아이고 현감님 사남받으레 앓구나, 어뎡 허난 저 애기씨 우엔 개장군내가 남시니,  
야 종경내가 남시니

압등허나네, 에-, 야 쇠고기 곰내가 남시니, 영 허난, 어서 이젠,

[음영] 아이고 현감님아 나 저싱 얼굴 곱덴 헤연 서천꽃밭 물 주렌 허난 물 주어 가난 서  
천꽃밭 꽃이 느릿느릿 죽어가난 넌 인간에 옷 시간이 아니 뉘난 어서 저싱에서 옷 시간이  
아니 뉘난 인간드레 가렌 허난 농농절에 앓안 울업수나. 현감님아 우리 오라방들 세 개 잇  
인게 큰오라방 가지랑 가지가지 똑기 게껴두고, 셋오라방 죽은오라방 가지 우리도 굿 허게  
영 우리 읍서, 현감님광 나광 날랑 브름알로 현감님이랑 브름 우이로 상 받기 어뎡 험니  
까.

걸랑 기영 허라, 풋죽 숲양 모욕허고, 즈소지로 입소고, 청감주로 입소 해소허연, 현감님은

[음영] 우트레 브름 우이로 상 받곡, 양씨 애민

알로 브름알로, 상 받으네다, 오늘 신갈림 때 뉘엇수다, 조상 받아근, 모도

모두 즈순들 허는 일마다, 소원성추 시겨나 줍서, 장 원정 시겨줍서, 선신개괄 시겨줍서,  
신병원고 거뉘줍서, 머리에 뉘통징이여 눈에 걸름새 코에 콧줄 입에 아묵 귀에 영영허는  
거 문 거뉘줍서. 아덜 삼형제 메뉴리 시동생 손지 으둑 개 문 펜안허게 시겨줍센 헤여, 오  
늘 동이풀이 올리져, 영 헤염수다 영혼 영신이랑 흐끔 잠주헤십서. 예 일월조상 받아나글  
랑, 이 즈순들 [장구를 정리한다.]

모두 예 신갈림 허쿠다.

이나난니 난니아 [북][이후로 소미들이 북 장단에 맞춰 심방 소리를 따라 '니나 난니 난니  
야'로 후창한다.]

이나노 난니 난니야 [일어서서 본주를 부른다. 빈 상을 본주 며느리에게 들고 있게 한다.]

이나 나 난니야

[이후 어깨춤을 추면서 소리를 이어간다.] 이나노 난니 난니야

애기씨 간장을 풀렁

즈순덜 안체시경

뎡기는데 그놀롭서.

간장 간장 께친 간장

다 풀렁 어서 갑서.

[어깨춤을 추면서 탁상 위의 ‘고전적따님아기씨’ 신체 앞으로 가면서 소리를 한다.] 니나노

난니 난니야

[입으로 동이를 물 준비를 하면서 어깨춤을 계속 춘다.] 니나노 난니 난니야

[탁상에서 물러 나와 본주 쪽으로 간다.] 애기씨 상전임

동이 앓든 스런 저싱 가부난

즈순덜랑 펜안허게

큰굿 혈 땀 석시석시

[어깨춤을 추면서 탁상 위의 ‘고전적따님아기씨’ 신체 앞으로 간다.] 한 번 두 번 제삼 번  
으로

[입으로 동이를 물 준비를 하면서 춤을 춘다.] 즈순덜 가심에 안앙

[탁상에서 물러 나와 본주 쪽으로 간다.] 여서 뎡기는 디 마다

[어깨춤을 추면서 초석을 등글게 돈다.] 물썸 뭉은질 님아줍서.

[어깨춤을 추면서 탁상 위의 ‘고전적따님아기씨’ 신체 앞으로 간다.] 이나노 난니 난니야

[입으로 동이를 물 준비를 하면서 춤을 춘다.] 이나노 난니 난니야

이나노 난니 난니야

[첫번째로 동이 무는 시도를 한다.][돌아서서 소미들에게 장단을 계속 치라고 한다. “소리  
해야지.”] 이나노 난니 난니야 [“둘이 다 팡팡 두드려.”][소미들이 후창 소리를 크게 하면서  
북, 장구 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한다.]

이나노 난니 난니야

[두번째 시도에 동이를 입으로 물고 어깨춤을 추면서 제장 가운데로 간다.][소미들이 소리  
를 계속 한다.][초석에 서서 어깨춤을 추고 초석을 크게 돌면서 춤을 춘다. 돌아서 빈 상을  
들고 있는 본주 며느리에게 간다. 상 앞에서 동이를 문 채 계속 춤을 춘다. 물었던 동이를  
상에 내려 놓는다.][본주가 옆에 서서 며느리가 받은 ‘고전적따님아기씨’ 신체의 옷을 정돈

한다.〔본주 며느리가 들고 있는 상을 받아든다.〕

[말] 아이고 조상 잘 받았수다. [소미들은 후창을 계속 이어간다.〕상을 초석 위쪽으로 놓는다. 절을 한다.〔본주 가족이 심방 뒤에서 절을 한다.〕

아이고 조상님, 즈순 상 받으난, [신칼점]“아이고.” 점사가 잘 나와서 좋아하면서 본주를 향해 돌아앉는다.〔소미가 본주 며느리에게 ‘고전적따님아기씨’ 신체 있는 상에 돈을 올리라고 한다.〕

[“아이고 착하다. 오늘 이거. 그래도 오른 즈부가 좋은 거라.” 본주에게 “양, 상 잘 받았수다야.”〕〔본주 : “아이고 속암수다. 고맙수다.”〕〔“덕은 언니 덕이우다. 저거 들러봅서. 들리지 커나.”〕

[음영] 야 조상님, 이거 동이풀이 대풀이 해연 이거 전적하르바님도 갈 시간이 뉘엿수다. 전적하르바님도 갈 시간이 뉘엿수다. [탁상 위의 ‘고전적’ 신체를 내린다.] 신갈림 때가 뉘엿수다. [탁상 위의 시리도 내린다. “이제사 이거 뜯어사주.” ‘고전적따님아기씨’ 신체에 입힌 옷을 정리한다.]

**<자료 5> 일월맞이 : 초감제>젯드 리얏혀살려움>석시로 군웅 청함>덕담**

**[2021 .5. 15. 이용순 심방]**

어리소~ [요령]

오널 오널로 놀아보카 내일로 놀아보카 [요령]

뱃사람은 내일내일 허당 보문 옛날은 삼일만 부름 불민 느이 집이 식게 제숙도 다 들러먹고 신이성방은 훈 날 훈 시가 급허난 신자리 안네서 오널 오널로 일천간장 다 풀려 어서 놓서-. [요령]

[북] 어제 오널은 오늘이요. [요령]

날도 좋아서 오늘이라.

부름산도 넘고 간다. [요령]

구름산도 넘고 간다.

앞마당엔 [요령] 연서당 놓고

뒷마당엔 만서당 논다. [요령]

월매 툇 춘향이는

이도령 품 안에 놓고 간다. [요령]

어제 오늘은 오늘이요.

어제 청춘은 오널 백발

백발 보고서 희롱을 말어.  
 너도야 살다 백발이 뉘면 [요령]  
 그전 ○○나 아니나 허고  
 아무도 늙어 보게 되면  
 갔던 새도나 되돌아간다. [요령]  
 우수나 피었다 시들어지면  
 오던 나부도 되돌아간다.  
 아니 아니야 노지는 못하리라.  
 군농에 시조가 어딜러나  
 군농에 본판이 어딜러나 [요령]  
 군농에 하르바님은 천왕제석  
 군농에 할마님 지왕제석  
 군농에 아버지는 낙수계남 [요령]  
 군농에 어머님 해수계남 [요령]  
 군농에 아들이사 삼형젠데  
 큰아들은 [요령]  
 탄생허여 동해 바당을 초질 허고 [요령]  
 둘째 아덜은 탄싱허난 [요령]  
 서해 바당을 초질 한다.  
 ○○ 족은 아덜 탄싱허난 훈녁 굿어라 팔저로구나. [요령]  
 훈녁 굿어라 스주로구나.  
 대흥단에 드는 고칼 머리 삭발허엿구나.  
 훈침 굴러라 굴송낙이여 두침 찢러라 비랑장삼 [요령]  
 언별 복덕을 걸어간다  
 아강베포 직부잘리 훈 질 버튼 철죽대를 짚어 앉아 [요령]  
 큰곳에는 열두 석이요  
 작은곳엔 ㄹ섯 석이요  
 앓인평젠 삼 석으로  
 일천간장을 다 풀립서. [요령]  
 조상이면 [요령] 훈 불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게 다 틀립니다. [요령]  
 그런게 아니로구나-.

[음영] 오늘은 이거 난데 엇이 이거 혼 이년 동안 싯단 조상 간장을 푼덴 허난 조상님이 신나락 만나락 허는구나-. [요령] 이거 조상님은 혼 불이 아니고 집집마다 다 떨리는 법이 난 이 집안은 균위 오떡이나 이거 옛날 전주 부모 조상은 남군 남월이가 뒹웁네다만은 허 뒹 조상 때부터 타리거성 허연, 옛날 먹을 거 엇곡 가난서난 허난 이거 목안은 제주시로 오랏구나-. [요령]

오란 사는 게 그때는 하도 엇곡 굶어지곡 허난 배고픈 시절도 만허곡 허난 조상 생각은 못 허연 조상 대접은 못허엿수다. [요령]

영 헌게 이 집안 동안대주 오씨로 일흔여섯님 양씨 안전 일흔여섯님 부베간 만나 입장 혼 연허연 아기덜 삼남매 탄싱허연 없는 금전 들연 살암시난 좋은 집도 나오곡 좋은 데궐 7 뜬 집도 나오곡 금전도 하영 나오란 살아가는게 어찌 큰아덜이 쓰물이 나던 해에 교통사고 로 저 한림 협재 해수욕장 간 오단 옹포 들어사난 그냥 천지낙마가 뒹여 [요령] 여자친구 데꼬허여 오단 베려부난 천지낙마 뒹난 스물 나던 해에 영청 유월들은 당하난 큰아덜은 인간 세별이 뒹엿수다-. [요령]

그때부터는 아이고 이거 조상님도 잘못 허엿수다. 영혼님에도 잘못 헛수다 데로 들령 양씨 안전 일흔오섯님이 일년 혼 번 삼년 혼 번 데로 들러 시왕을 청허곡 혼 헨 일월맛이 허곡 불도맛이 허고 영 허멍 매해마다 이제??정 허여 오는 게 작년 혼 헨 못허연 이 앞으로 열 혼 술 열혼 술 일곱설 일곱설 난 아기 할마님에 잘 등장 들어 키와줍산혀 이 아기덜 너오 누이 탄싱을 시겡수다-. [요령]

그 후로부터 균위 오떡에 조상을 좇안 허는 것에

[북] 조상님아~ [요령]

조상님아~

균위 오떡에 묵고 뒹은 조상님은 [요령]

오씨 하르바님 삼형젠데 제주 입대를 허여간다.

과거 보러 들어오난

셋가지는 선흘가지

큰가지는 정이가지 [요령]

족은가지는 멩월가지

[음영] 멩월 가질 초지 흡데다-. [요령] 큰하르바님은 정이가지 초질 허연 사는 게 천하거 부제로 잘 살안

[북] 천하 거부제로 잘 살앗구나.

쉐도 백 수 뒹도 백 수 사랑뵈 거느리어 사는 것이

수장남은 [요령] 수벨캄에 집안 들안 살아간다.

[음영] 흐를날은 수장남 수벨캄이 이거 바랑밧디 강 보민 쉼도 하나 으꼭 죽영 잇곡 몰도  
하나 죽영 잇곡 허난 이거 수장남 수벨캄은 오랑 아이고 이거 하르바님신디 말을 허면 우  
리가 죽을 거고 어떻 허민 좋코 허는 것이, 흐를날은

[북] 흐를날은 수장남 수벨캄이 나고 가서 [요령]

밤이밤중 야삼경 곱안 보난

서대구덕 녹진 아기가

청사초롱에 불을 밝혀

사랑밧데레 들어간다. [요령]

[음영]키는 족아지난 거기에 도고리 옆언

[북] 올라사근 뛰영 그로어

손을 질러 [요령]

언설 단설 녹미녹설을 베여 앓언 [요령]

은데양에 발라 씻언 [요령]

청세 초롱을 불을 밝힌

집으로 들어오란

[음영] 서대구덕에 누웠구나-. 그때엔 딱시 강 보민 쉼도 죽영 잇곡 몰도 죽영 잇이난 흐를  
날은 오란 오설롱하르바님안테 “아이고 오설롱님아, 큰일 낫수다.” “무슨 일이냐?” “그런  
게 아니라 강 보민 쉼도 하나 죽영 잇곡 몰도 하나 죽영 잇수덴.” 허난 “너네들 문딱 죽영  
잡앙 먹어팅 그런 소릴 험시닌.” 헤얀 “아이고 게거들랑 오설롱님이 강 봐래방 읍서.” “너  
네덜 아니문 청뎃섭에 목을 걸령 죽일러라.” [요령]

[북] 그때에는 밤이밤중 야삼경이 뒤편보난

오설롱님이언 들어가건

곱안 부려보난

[음영] 아닐서라 서대구덕 녹진 아기씨가, 청세초롱 불을 밝힌 바랑밧디 오란 도구리 옆언,  
뒤흐로 손을 질러 언설 단설 녹미녹설을 빼언 은데양에 활활 씻어두언 그걸 먹어가는데  
[요령]

[북] 청세초롱을 불을 밝힌

집으로 들어오란 서대구덕에 누워간다.

[음영] 그때에 수장남 수벨캄이 흐는 말이 “오설롱님아 어떻 허여십데긴.” 허난 “너네덜 청  
뎃섭에 목을 걸령 죽이젠 허단, 아닌 게 아니라 서대구덕 녹진 아기씨가 경 허염시난 이거

나에 쫓겨이든야

[북] 서데구덕 녹진 아기 손발 문딱 올라간다.

줄란 앓언 먼동소천국 들어사건

[음영] 널라그네 본향으로도 혼 녀으로랑 받곡 혼 녀으로랑 산신으로도 받아

[북] 살렌 현연 곤는 것이 오설롱 하르바님 네와옴던 [요령]

산신백관 산신일월 모친 간장을 다 풀립서.

모친 시름을 [요령] 다 풀립서.

[음영] 그뿐만 아닙니다 셋가지 오현감 하르바님은 얼굴은 관옥이요 몸은 풍선이 뒀었구나.

역력하고 똑똑허난 서울 상시관에서 현감 베실을 네어준다-. [요령] 네여주는 게 오설 이거

현감 하르바님은 제주 입데 해연 “널랑 제주도 강 살다 오렌.” 해연 제주도 들어오는 게

화북 포구로 들었구나-. [요령]

그때에 앞엔 선배 두엔 후배 마후배 거양배 거느린 동좌으로 나오란 관데청으로 들어산,

사는 것이 정이 현감 대정 원님 목안 판관 살이로 허엿구나. [요령]

[북] 예- 판관 살일 허여 앓어 [요령]

연삼년 중상 차느난 나가 그냥 오랑 살당 가면 뒀을 허랴.

앞엔 선배 후배 건○ 뒀연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오백장군 구경 좋다 구경처로 나가젠 허난

아이고 현감님아 뒀을 허영 갑니까

늑눈에 반동개 거느리고 [요령]

소리 좋은 마세조총 거느리고

지달이 감태 씨여간다

가족창신 가족옷을 입언

아유산 굴메굴산 올라간다.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오백장군 오백선앙을 덩기단 보난 [요령]

네릴목에 꿩 사농이여 오를목에 노리 사농을 바쳐 앓어

[음영] 오씨하르바님은 현감님은 이거 나만 먹으믄 되겟느냐 그걸 문딱 쯤근쯤근헤야

[북] 가자 앓어 서울이라 상시관에 도올른다.

상시관에 도올란 현감님은 진상 상납을 바껴가난

이게 무슨 거냐 말을 허난

아이고 이거 클렁 볍서 제주 나는 어우젠 허여

[음영] 클렁 네런 보난 아닌 게 아니라 꿩 사농 노리 사농을 허연 가난 “널랑 현감 베실로  
살앙 상을 받곡, 너가 이거 산신에 이거 맞천 오랏이난 널랑 산신으로도 상을 받으렌.” 허  
여 간다. [요령]

[북] 현감 하르바님 매와오텐

산신일월로 놀고 갑서.

현감 베실 살던 훤은 책에 훤은 글발 줌진 책에 줌진 글발

매와오텐 현감 하르바님

조순덜 앞길을 붉혀줍서.

현감님도 일천간장을 다 풀립서. [요령]

일천시름을 다 풀려건

아니 허여도 예순 일흔여섯 꿈에 선몽을 허엿수다.

그전 뗏해 전이 꿩 하나가 집이 들어오란

산신하르바님 신령이난

산신일월에서 이 집안 마흔여섯 편안하게 험서.

일흔여섯님 편안하게 험서.

하다 앞이 들엉 어지지게 하라그네

오설롱하르바님 신력으로

먼동소천국 아기 신력으로

현감 하르바님 신력으로

이 집안 편안하게 시겨줍생 허여

큰곳에는 열두 석 작은곳엔 여섯 석 앓인평젠 삼석으로

일천간장 [신칼점]

[음영] 아이고 고맙수다. 조상이 낙허민 조순이 낙허는 법입네다.

흐꿈만 그자 어기어차 닷강기 소리로 이거 담불 소리로 일천간장 다

[담불] 나무~ 아미탐불아~. [이후 소미들이 ‘나무아미탐불아’를 후창한다.]

넘어간다

나무아미탐불아 [요령]

산신일월 산신백관 [요령]

묵친 간장 묵친 시름 [요령]

오설롱 하르바님 매와오던 [요령]

사랑밭데 쉼 백수 물 백수 [요령]

산신일월 놀고나 갑서. [요령]

현감베실 살아오던 [요령]

현감님 메웁던 조상님도 [요령]

네릴목에 꿩사농을 [요령]

노리 사농 맞춰오던 [요령]

현감님도 놀고 갑서. [요령]

이제??정 즈손들이 [요령]

미처 몽롱 허엿수다. [요령]

이 앞으로 조상에서 [요령]

앞질 연질 발라줍서.

날로 가민 [신칼점]

[음영] 아유 고맙수다. 조상님은 그자 곶아?난 술술 이거 그자 매해마다 조상 간장 풀어가  
난 조상에서 일천간장 다 풀려 어서 놓서.

떨어진 신전님네랑 삼곡마령 삼주잔 [탁상 앞에 앉아서 소미한테 장구를 받는다.] 저먼정  
지냉기명 옥동 타명 금동 타명 제청드레덜 다 위굽퍼 살려들 읊서예-.